

기초자치단체 문화 정책 개발 지원 방안 연구

-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예산 분석 -

경기문화재단

제 출 문

경기문화재단대표 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경기문화재단이 의뢰한 『기초자치단체 문화정책 개발 지원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

중부일보 대표이사 임재율

<연구진>

책임연구원 :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원희

연 구 원 :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조교 정선모

연 구 원 : 안성의제21 사무국장 박종혁

발 간 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31개 시·군의 지리적·경제적 환경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의 재정적 형편이나 문화적 여건도 상이하며 시·군민들의 생활상도 판이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내 31개·군의 문화예술은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지역 주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의 수혜도 편차가 큽니다. 반면에 각 시·군의 문화예술 육성의지는 높아져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여 시·군 단위의 문화예술정책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의 의도는 유형별로 10개의 시·군 정도를 선별하여 문화예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문화정책 정향을 파악하고 정책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경기도 전체 시·군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우선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분석대상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대신 정책의 제시 보다는 문화예산의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중부일보사의 협조로 10개 시·군의 문화예술 현황을 심층 취재하여 기획기사로 연재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 정책 수립을 위한 시·군 문화정책 담당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산과 연구기간의 한계로 인해 문화예산의 분석에 그친 것은 이번 연구의 한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연구는 부족하나마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 8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제학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지방화와 지역문화정책	5
제1절 지역 문화 정책의 방향	5
제2절 지역문화 산업과 지역경제	12
제3절 지역 문화와 축제	22
제3장 경기도 문화정책의 현황	25
제1절 지역별 문화예산 관련 과목 구조의 특징	25
제2절 지역별 예산 구조의 분석	36
제3절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비교 분석	87
제4장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관련 예산지출의 문제점	96
제1절 예산 사업의 문제점	96
제2절 문화 인프라 구축의 노력	99
제3절 지역축제의 현황 및 예산	102
제5장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관련 예산지출의 발전방향 ·	113
제1절 문화 관련 예산 지출의 개선의 방향	113
제2절 예산 지출의 방향	114
제3절 문화 관련 지출의 법적 근거 마련	116
제4절 지역축제의 향후 발전방향	119
제5절 문화분권을 넘어 통합지원서비스체제로	12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56
별첨1 경기도 각 시·군 지역축제 현황	162
별첨2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지원내역 (2001-2005)	175

표 목차

<표 3-1-1> 안성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26
<표 3-1-2> 안산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27
<표 3-1-3> 화성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27
<표 3-1-4> 이천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27
<표 3-1-5> 양평군 문화예술 과목 구조	28
<표 3-1-6> 여주군 문화예술 과목 구조	28
<표 3-1-7> 성남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28
<표 3-1-8> 평택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28
<표 3-1-9> 시흥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29
<표 3-1-10> 부천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29
<표 3-1-11> 안양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29
<표 3-1-12> 오산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0
<표 3-1-13> 동두천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0
<표 3-1-14> 김포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0
<표 3-1-15> 포천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0
<표 3-1-16> 구리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1
<표 3-1-17> 연천군 문화예술 과목 구조	31
<표 3-1-18> 양주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1
<표 3-1-19> 하남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1
<표 3-1-20> 의정부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2
<표 3-1-21> 의왕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2
<표 3-1-22> 가평군 문화예술 과목 구조	32
<표 3-1-23> 고양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3
<표 3-1-24> 광명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3
<표 3-1-25> 파주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3
<표 3-1-26> 남양주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3

<표 3-1-27> 수원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3
<표 3-1-28> 광주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3
<표 3-1-29> 군포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4
<표 3-1-30> 과천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4
<표 3-1-31> 용인시 문화예술 과목 구조	34
<표 3-2> 문화관련예산의 일반적 구조	35
<표 3-3-1> 안산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37
<표 3-3-2> 안산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38
<표 3-3-3> 안성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39
<표 3-3-4> 안성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40
<표 3-3-5> 화성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41
<표 3-3-6> 화성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42
<표 3-3-7> 이천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43
<표 3-3-8> 이천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44
<표 3-3-9> 양평군 문화관련예산 규모	45
<표 3-3-10> 양평군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45
<표 3-3-11> 여주군 문화관련예산 규모	47
<표 3-3-12> 여주군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47
<표 3-3-13> 성남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48
<표 3-3-14> 성남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49
<표 3-3-15> 평택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50
<표 3-3-16> 평택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51
<표 3-3-17> 시흥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52
<표 3-3-18> 시흥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52
<표 3-3-19> 부천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54
<표 3-3-20> 부천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54
<표 3-3-21> 안양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55
<표 3-3-22> 안양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56
<표 3-3-23> 오산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57

<표 3-3-24> 오산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57
<표 3-3-25> 동두천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58
<표 3-3-26> 동두천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59
<표 3-3-27> 김포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60
<표 3-3-28> 김포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60
<표 3-3-29> 포천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61
<표 3-3-30> 포천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61
<표 3-3-31> 구리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63
<표 3-3-32> 구리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63
<표 3-3-33> 연천군 문화관련예산 규모	64
<표 3-3-34> 연천군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65
<표 3-3-35> 양주군 문화관련예산 규모	66
<표 3-3-36> 양주군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66
<표 3-3-37> 하남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68
<표 3-3-38> 하남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68
<표 3-3-39> 의정부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69
<표 3-3-40> 의정부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70
<표 3-3-41> 의왕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71
<표 3-3-42> 의왕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71
<표 3-3-43> 가평군 문화관련예산 규모	72
<표 3-3-44> 가평군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73
<표 3-3-45> 고양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74
<표 3-3-46> 고양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74
<표 3-3-47> 광명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76
<표 3-3-48> 광명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76
<표 3-3-49> 파주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77
<표 3-3-50> 파주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77
<표 3-3-51> 남양주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78
<표 3-3-52> 남양주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79

<표 3-3-53> 수원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80
<표 3-3-54> 수원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80
<표 3-3-55> 광주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82
<표 3-3-56> 광주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82
<표 3-3-57> 군포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83
<표 3-3-58> 군포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83
<표 3-3-59> 과천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84
<표 3-3-60> 과천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85
<표 3-3-61> 용인시 문화관련예산 규모	86
<표 3-3-62> 용인시 문화관련예산 규모의 특징	86
<표 3-4> 문화관련 예산지출의 지역별 유형	92
<표 3-5> 시군별 문화관련 예산의 주요지표	93
<표 4-1> 전국 문화 인프라 구축의 총괄표	100
<표 4-2> 경기도 시·군·구별 문화기반시설	101
<표 4-3>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축제의 분포	102
<표 4-4> 개최시기별 축제 분포	103
<표 4-5> 예산규모에 따른 축제 분포	104
<표 4-6> 문화관광축제 지원 현황	105
<표 4-7> 향토축제 지원현황	105
<표 4-8> 특장행사 지원현황	106
<표 4-9> 우수기획문화축제 지원현황	106
<표 4-10> 종합예술제 특장행사 지원현황	106
<표 4-11> 문화관광축제 외국인 관광객 현황	110
<표 5-1> 문화관련 조례제정 현황(조례/규칙)	118

그림 목차

<그림1> 문화의 해석학적 분류 및 흐름	15
<그림2> 문화의 소비경로	16
<그림3> 문화요소와 관광산업의 승수화과정	17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990년대 이후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회의 문화형성 및 문화개발을 위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후로, 지역 문화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크게 향상되어 왔다.¹⁾

특히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문화적 측면에 관한 국가적 관심은 더욱 강조되면서 중앙정부는 삶의 질과 연관된 문화 복지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문화 정책적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는 지역사회발전과 지역홍보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수만족을 위한 문화개발전략을 확대하고 있다.²⁾

경기도의 경우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 이동이 극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결집을 촉발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별로 축제가 있고, 또 문화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 정책에 대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이 많다는 지적도 많다.

- 1) 정부는 1993년 문화 창달 5개년 계획연구에서 그 동안 소수의 창조집단 위주, 예술 위주, 중앙 집중적으로 수립되었던 문화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참여하고 창조된 문화를 어디서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즉, 모든 국민에게 고루 향수될 수 있는 문화정책 둘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정책 셋째, 중앙집권적인 문화정책에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문화정책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문화 복지의 활성화를 시도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즉, 문화예술에 관한 시설 및 창조, 향수 등 여러 측면에서의 중앙 편중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문화확충의 관계법령 개선 및 시설확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 25 - 29)
- 2) 지역문화예술의 가치가 점차 부각되고 민선자치시대가 진전되면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정책개발원은 1998년 12월 29일 '지역문화정책 연구경향과 방향 워크숍'을 주최하여 14개 광역시 · 도 연구원의 문화정책 연구담당자와 지역문화정책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연구경향과 과제 그리고 각 지역 및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연구경향과 과제 그리고 각 지역 및 각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 7)

사실 문화개발(cultural development)³⁾전략은 문화의 부정적인 요소를 수정하고 문화의 긍정적 요소를 고양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문화개발전략은 한 지역사회가 자신의 미래를 개발하는 창조적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의 지역사회는 해당 지역을 개성화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개발은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지닌 지역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쾌적함을 수준 높임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의 지역적 소속감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문화의 세기로도 예견되는 21세기는 국민 생활 중에서 문화생활의 비중이 커지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기능이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자원이나 자본보다 오히려 문화적 역량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개발을 위해 예술영역별로 진흥전략을 수립해 놓고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해당 국에서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문화예술정책 및 자원배분에 관한 역할분담이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지역별로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사회비전의 제시 및 국민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문화입국을 위한 문화개발의 모든 노력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정책사안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 편중적인 문화정책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전략적인 문화개발로 '문화적인 마을'을 만드는 일은 시급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을이 문화적으로 된다'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문화예산관련 예산 구조를 분석하여 예산지출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⁴⁾

3) cultural development는 '문화발전' 혹은 '문화개발'의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되어 상호 교차적으로 쓰인다. 그러나 어감상으로 차이를 따진다면 개발은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는 타동사적인 의미가 강하다. 이 논문은 전략적 문화기획이라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다름으로 '문화발전'이라는 용어보다는 '문화개발'로 사용하고자 한다.

4)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31개 시군의 모든 예산 자료는 2005년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방화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문화 정책에 대해 연구하기로 한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문화 정책을 표준화하여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의 접근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지역적 연고에 특성을 두고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급속한 인구 유입의 지역이 많아 지역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안성의 경우 20여년을 인구 10만 정도를 유지하다가 5년 사이에 인구가 15만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의 정주 의식과 정체성 확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문화 사업이 매우 활발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매우 높다. 이에 문화 정책은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둘째,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본청의 경우 지역문화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다양한 지역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인구 100만에 가까운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의 지역이 있는가 하면, 10만을 조금 넘는 수준의 안성, 양평, 광주 등의 지역이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고 정부의 지원 사업도 그만큼 다양해야 한다. 종전의 경직적인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지역 문화 사업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 재정규모가 1조원에 달하고 재정 자립도가 90% 정도가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재정 규모가 3천억원 정도에 자립도가 30% 정도에 불과한 지역도 있다.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지역의 다양한 재정 경제적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 정책을 분석하고 특징을 추출한다. 특히 재정 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화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31개 시군의 모든 예산 자료는 2005년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첫째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축제가 갖는 문제점과 과제를 분석한다. 둘째 문화 관련 재정지출에서 자본비와 경상비를 비교한다. 자본비는 투자비로서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지출이다. 반면 경상비는 일회성의 행사 지원비가 된다. 예산구조에서 이러한 자본비와 투자비를 비교하여 재정사업의 life cycle 관점에서 특징을 추출하고자 한다. 셋째,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문화 관련 예산지출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경상경비 보조의 경우 유력 정치인의 로비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특히 문화관련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의 경우 어떠한 특징이 있는 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문화정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 관련 예산 구조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경기도 3개 시군의 문화 관련 예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향후 발전 과제를 정리한다.

제 2 장 지방화와 지역 문화 정책

제 1 절 지역 문화 정책의 방향

1. 문화 다양성 협약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 2005년 10월 20일(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총회에서 마침내 통과되었다.⁵⁾

프랑스에서 열린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 협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수립·채택할 자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
-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국제법으로 의무화하고,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WTO DDA 서비스협상이나 FTA 등에서 제외
- ▲국가간 문화분야의 분쟁해결 절차 명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10월 26일(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문화연대, 민예총 등 30개의 단체로 구성된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세문연)와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이하 영화인대책위)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유네스코 총회 통과를 환영하며 하루빨리 국회 비준이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또 정부는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라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WTO, FTA 등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시청각서비스(영화, 방송, 음반)를 포함

5) 참고로 총회의 투표결과는 이렇다. 154개국 대표가 참여한 총회 표결에서 찬성 148, 기권 4, 반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되었고, 반대한 두 나라는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었다. 적어도 3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될 수 있어 아직 실제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한 문화 분야를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정지영 감독은 "그동안 스크린쿼터제를 지지해 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운을 똬 뒤 "한국정부가 FTA협상 등에서 이번 '문화다양성 협약'을 무효화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화배우 안성기는 "이번 문화협약 채택시 가장 모범사례로 든 것이 우리의 스크린쿼터제였다"며 "그동안 스크린쿼터제 유지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적인 측면으로 보여져 걱정했는데 이번 협약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의 총회통과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문화영역에서만만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혁명적인 사건"이라면서 "협약과 유네스코헌장 정신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이사장인 황철민 감독은 "이 협약이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문화 문제 뿐 아니라, 독립문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문화를 상업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대중문화 시대에서 독립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은 지난 25일(화) 성명을 발표하고 "문화다양성 협약의 채택은 자국의 민족적 정체성과 특수성,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협약이 기초예술 활성화의 한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갈망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협약의 국회 비준을 통해 한국이 문화주권국가로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해 줄 것"과 "협약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문화정책이 정부차원에서 핵심 과제로 연구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점차 다양화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공존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그들의 참가를 보장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과 시민사회의 역동성 및 평화를 위한 선행조건이므로, 문화다원주의는 문화다양성의 실현을 위한 기반인 것이다. 그 성격상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교류와

공공의 삶을 유지하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중략...)

시장성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인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분야와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한 공공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1년 10월, 파리) 중에서

유네스코는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인 문화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약자의 문화를 소외 또는 약화시키고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여, 문화다양성의 진흥이야말로 이러한 시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선언이 채택된 지 4년 만에 실질적인 효력발휘가 가능한 <문화다양성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공은 현 정부에게로 넘어갔다.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참여정부의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문화 NGO들의 거센 비판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었음을 유념한다면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들은 주요 무역수출국들의 무역보복을 우려하며 스크린쿼터제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문화NGO들의 문화다양성을 위한 세계적인 차원의 결의와 투쟁에 대해서 줄기차게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해 왔다. 이 문제에 관한한 향후 우리 사회의 원만한 합의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화 다양성이란 개념을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문화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향이다.

2. 문화 분권

참여정부의 최대 화두는 지방분권이였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04년 1월 13일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에 서명·공포하게 되었다. 이 같은 흐름은 지역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국가 균형 발전전략

은 분권·분산·분업이라는 3분(分)정책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를 다극적 발전체제로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우리 사회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발전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취지와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나치게 경제 중심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사회문화적인 관점이 실종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다.⁶⁾

지방분권은 행정의 분권과 경제 기반의 조성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대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랭스시가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예술가이자 광부의 아들인 귀아루쉬리(Guy Alloucherie)는 “예술이라는 단어는 이곳에서 절대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연극, 무용, 그림, 조각 등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았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단 말인가? 광부들,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마저도 이러한 문화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탄광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에 희망을, 에너지를 주기 위해 고통을 참으면서 노력했음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도 최소한의 평등과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소외와 멸시로 고통스러웠던 이 지역에 이제 그 품위를 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곳 탄광지역에 루브르 전체를 옮겨 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토론했다.⁷⁾

프랑스에서도 예술문화의 지방분권화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다. 1960년대부터 프랑스정부는 각 지방의 예술센터들과 연계하여 특히 미술과 디자인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을 지급해왔다. 1984년까지 프랑스 전체가 지방이 없는 거대한 미술관으로 변화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연구와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점이다.⁸⁾

6) 매우 비약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폐광으로 위기에 몰린 탄광도시를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는 사북에 카지노를 세웠으나 프랑스는 탄광도시 랭스에 루브르박물관 분관을 짓는다.

7) 이러한 노력은 주민의 의식 전환도 수반되어야 한다. 다른 더 유리한 지역의 경쟁도시들로부터 박물관 분관의 유치를 위해서 랭스의 시민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지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모여진 서명록을 랭스 시장을 통해 정부 문화부에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당연하다.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전문화예술 2005.11.12월 호 50쪽-52쪽을 참조할 것.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분권은 행정(권)력의 수직적 분권이 아니라, 집중된 권한과 자원의 분배 이후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자치역량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분권이 핵심이다. 특히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관에서 민간으로의 분권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누구나 말하고 있는 민-관 네트워크 체제 또는 협치제도(Governance System)도 그러한 분권화의 한 형태일 수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생각되는 문화분권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지난시기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문화적 권한 및 재정의 분산, 그리고 인력과 인프라의 지역적 분산 등으로 마치 한 쪽에 집중되어 있던 자원의 재배치 및 재조율을 통한 균형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권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의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자생성, 그리고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참여와 자율을 이끌어 내고 이를 강화·확산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착과제로서의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단계적인 이행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사고와 접근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역에서 분권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접근도 미흡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미흡한 요인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겠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거센 반면에 수도권 지역의 기득권층은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의 분권정책 역시 각 지역의 문화기득권층은 다양한 지역이권과 맞물려 오랜 시간 공생관계를 누려온 기반이 흔들리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현상이 여전하다. 민간영역에서도 지역문화의 분권을 수용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있다.

3. 지역 생활 문화의 재발견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은 '공공의 삶에 생기를 부여하고 예술과 인문학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하며, 모든 비영리의 음악가, 화가, 배우, 작가, 무용가, 고고학자 그리고 박물관은 문화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상생

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사회적 풍토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미국과 네덜란드의 문화정책 보고서에서 인용)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능동적인 문화향유계층을 두텁게 형성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수용자 스스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자신의 삶의 일부로 문화예술을 받아들여 즐기는 것이 바로 생활문화인 것이다. 튼실한 생활문화의 정착이야말로 지역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창조력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고 바로 극대화된 창조력이야말로 지역 경쟁력의 핵심인 것이다. 국민의 정부 후반에 시작된 새 예술정책의 연구와 창조적 적용은 참여정부에서도 이어져, 2004년 17대 국회를 통해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과 함께 문화관광부 산하에 '문화예술교육과'가 신설되었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창조성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원천을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행정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역과 기초지방정부의 행정단위별로 다수의 문예교육 지원센터가 개설될 수도 있을 것이다.⁹⁾ 또 동네마다 기존 또는 신설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주로 활동하는 단위들이 서로 네트워크 되어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강사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예술장르별 실기교육 중심으로 교육활동(또는 사업)을 해오던 기존 활동단위가 변화하는 문화예술교육 환경에 어떻게 적응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3년부터 경기도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의 사례¹⁰⁾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에는 양적 확산보다는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수행한 지역 활동그룹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실험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9) 중앙의 지원체계로는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10) 안성 소나무갤러리-지역 작가들과 방문객들과의 만남, 양평 전원스튜디오-도움아이 프로젝트, 광명 평생학습센터-교과개발센터기능, 의정부 교육연대-문화단체 아님에도 지역문예교육센터 역할 수행, 이천 YMCA-지역내 신뢰할만한 문화단체가 부재한 경우 예외적인 문예교육 네트워크 주체로 설정.

제 2 절 지역문화 산업과 지역 경제

1. 문화 산업과 지역 경제

문화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문화 자체가 사회적 병리현상과 부조리에 대한 여과 및 순환기능을 수행하는 점이 최근 연구를 통하여 많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범죄 같은 병리현상은 청소년들의 문화향수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국가 거시적으로 보면 광복이후 남북대치 과정에서 심화된 남북한의 이질화현상 및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지역이나 세대간의 갈등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족문화의 공동접근 또는 공간적인 아우라(Aura)¹¹⁾의 발견에서부터 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다. 개방화시대의 외국의 저질문화의 무차별적인 국내유입을 과거의 행정적 수단만으로 방치할 수 없고, 건전한 문화의 발전을 통한 경쟁적 우위

11) 아우라(Aura)는 기독교 문화권 시대의, 혹은 그 이전이라도 종교 미술작품에서 보여지는 후광(halo)을 일컫는다. 인간과 같은 형체로 표현된 초월적 존재에 대한신성과 존엄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기호이다. 이러한 아우라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은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1892~1940)의 예술이론에서 나오는데, '예술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 를 의미한다. 1934년 벤야민의 논문 '기술복제시대의 예술 작품'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Reproduzierbarkeit)에 등장한 예술 개념이다. 벤야민은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 일어난 결정적 변화를 '아우라의 붕괴' 라고 정의하였다.

'아우라는 유일한 원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진이나 영화와 같이 복제되는 작품에는 아우라가 생겨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아우라는 종교 의식에서 기원하는 현상으로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먼 것의 일회적 현상'(einmalige Erscheinung einer Ferne, so nah sie sein mag)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르네상스 이후의 예술에서도 과거의 종교적 숭배가 세속적인 미의 숭배로 대체되었으므로 아우라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 아우라는 예술작품의 원본이 지니는 시간과 공간에서의 유일한 현존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진이나 영화처럼 현존성이 결여된 작품은 아우라가 없다는 것이다. 독특한 거리감을 지닌 사물에서만 가능한 아우라는 복제품이나 대량생산된 상품에서는 경험될 수 없는 것이다.

벤야민은 '사진의 작은 역사'(Kleine Geschichte der Photographie),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ber einige Motive bei Baudelaire)에도 아우라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두 논문에서도 현대사회에 일어난 지각 구조의 변화를 아우라 붕괴 현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우라가 극복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의 이론은 기술주의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브레히트(Brecht, Bertolt, 1898-1956)는 '모든 것이 신비주의일 따름이다. 유물론이 그런 식으로 소화될 수 있다니 놀랍다' 라고 하였다. 브레히트는 예술의 역사적 변화를 아우라처럼 모호한 개념을 빌어 설명한다는 것은 벤야민이 신비주의적 · 신학적 경향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뜻한다고 했다. 또 위르겐 하버마스(Jrgen Habermas, 1929-)도 '의식 비평인가, 구제 비평인가' 에서 아우라의 신비주의적 요소를 비판하였다

의 확보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한다.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경제학(cultural economics)은 문화투자가 국민경제에 대하여 최종소비의 개념이아니라 생산, 소득, 고용, 부가가치 같은 경제지표에 대한 생산적, 중간 투자적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화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 때문에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문화산업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 생활의질(quality of life), 또는 쾌적성(amenities)을 추구하는 국민적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등장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고 정보통신산업, 관광산업 등과도 관련된 연관산업으로 중요한 부문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문화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문화투자가 사회발전의 기반구조로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국제적으로 기술보호주의가 만연하는 상황 아래서, 기술혁신과 발명의 토대로서 문화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문화-기술 관계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기술발전이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문화와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문화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사회적 창의성은 문화토대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사회적 창의성이 기술혁신에 주요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화는 연성 사회자본(soft infrastructure)으로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화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프랑스 등 선진국은 정부와 기업, 문예단체 등이 문화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활발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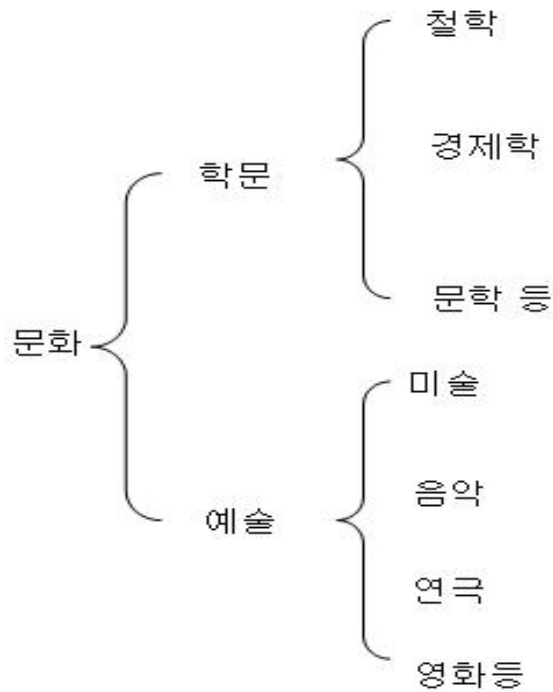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자치와 분산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나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설정하고 그 지역이 정체성을 설정하여 다원적 형태로 발전해 가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2. 문화 산업의 사회적 효과

문화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인성,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유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의 문화경제학(cultural economics)¹²⁾은 문화투자가

국민경제에 대하여 최종 소비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와 같은 경제지표에 생산적이고 중간투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문화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은 전통적 사회에서 교육과 같이 귀족들의 교양수준을 제고시키는 소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적, 물적 생산요소의 조달과 배분을 통한 국민경제에 생산적 기능을 수행한다.

-
- 12) 미국에서 문화경제학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유럽 대륙에서는 이미 1910년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독일의 「국민경제지 Volkswirtschaftliche Blätter」의 특별호인 「예술과 국민경제 : 경제학에서의 예술의 위치 Kunst und Volkswirtschaft : Die Stellung der Kunst in der Volkswirtschaft」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미국에서와 같은 절박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즉, 유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술과 문화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전통이 귀족—절대군주—중앙정부 등의 역사적 변동을 겪으면서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문화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 요청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정부의 예술문화의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의 문화경제학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에는 정부의 역할로써 그 중요성이 미미하게 여겨졌던 교육, 의료보험 등의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 intervention이 확대되는 경향에 문화 분야 역시 편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시장 원리,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수급의 균형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의 한계가 정부로 하여금 국민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의 충족(주거, 의료, 교육 등)으로부터 정신적 욕구의 충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급박한 생활 요구인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비해 문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지원은 뒤쳐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타당성의 근거도 미약하였다. 더구나 개인적인 자선 philanthropy 차원의 후원에 더 많이 의지하고 있던 예술문화의 전통이 오히려 어떠한 국가차원의 배려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다른 분야들이 체계적인 경제이론을 공용하여 그 지원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문화예술 분야는 기껏해야 사회학적 근거(교육이나 소득 혹은 소속 계급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설명하는 경우)에 국한되어 왔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예술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바로 1960년대에 와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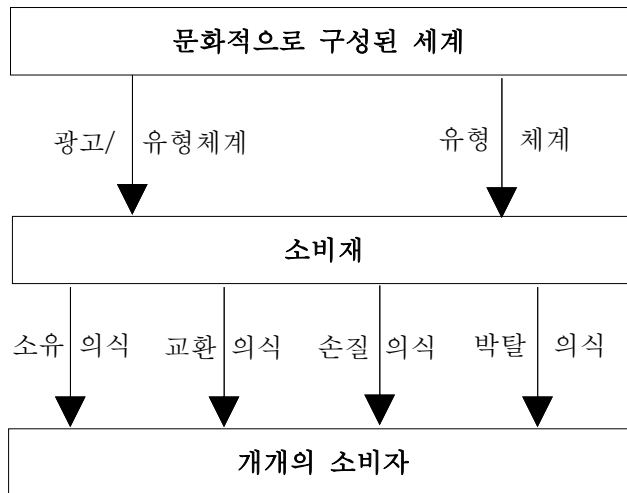


<그림1: 문화의 해석학적 분류 및 흐름>

특히 문화투자에 대한 문화경제학적인 접근은 문화투자가 전통적인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수급의 차원을 떠나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기술 혁신의 원동력인 연성사회 기반구조(soft infrastructure)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 생산적 효과에 대하여 19세기 러스킨(Ruskin)이나 20세기 초의 케인즈(Keynes)도 문화와 경제의 연계성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나, 본격적인 문화경제학적인 접근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작되었다.

의미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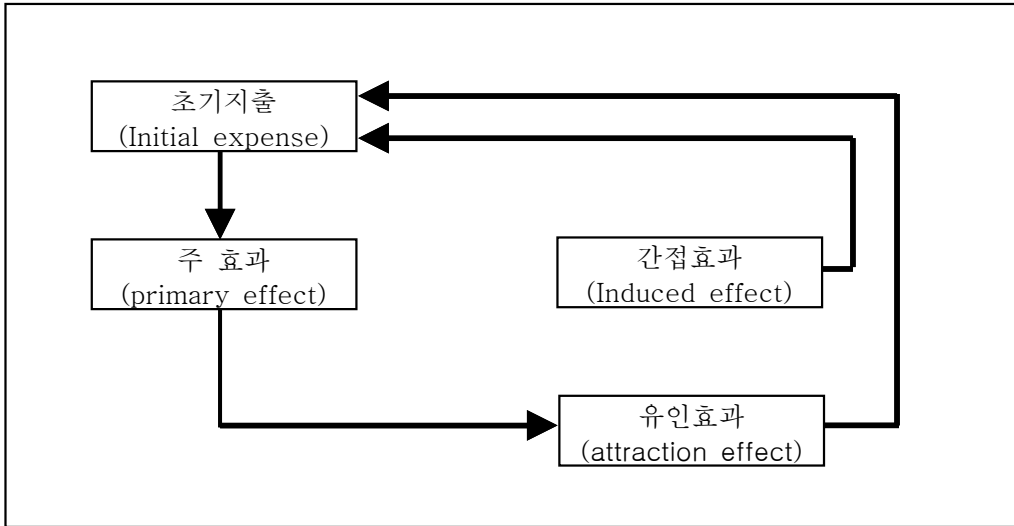
<그림2: 문화의 소비경로>¹³⁾

문화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최근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비중으로 인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의 문화산업은 용어 자체에서 도 느낄 수 있듯이 생산측면의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와 이에 따른 범위 및 유형의 확정은 문화라는 용어의 정의만큼이나 다양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문화가 가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에 공유된 실체적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분류방법에 대하여서도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은 문화라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최종적인 산출물의 형태로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경우의 문화산업은 연극, 영화와 같은 공연 예술(performing arts)과 문화제관리 및 관람서비스와 같은 산업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뉴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방송서비스, 비디오예술과 같은 정보산업이 포함된다. 또한 문화산업은 최종생산물인 문화재화와 문화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간생산물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연관 산업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¹⁴⁾적 기능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3) 자료출처: 소비재와 소비행위의 상징적인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Grant McCracken, 2003)

14) 경제현상에서 어떤 경제량, 예를 들면 투자의 증가(감소)가 파급적인 효과를 낳아,



<그림3: 문화요소와 관광산업의 승수화 과정>

3. 문화 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가. 문화 산업 클러스터의 도입¹⁵⁾

문화관광부는 2001년부터 지방 문화산업클러스터지정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이 있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적 입지에 따라 문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문화산업 업체가 밀집된 지역을 첨단 디지털 문화산업의 기획·제작·생산·유통기지 및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점 육성·지원하고 있다.

2001년에 2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대전, 춘천, 부천, 청주, 광주, 경주,

궁극적으로는 처음의 몇 배나 되는 증가(감소)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승수이론은 최초의 경제량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총효과, 즉 승수효과의 크기를 분석하고 이론화한 것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인 경제변수에 주는 한계적 효과를 승수효과라고 한다.

이 승수효과에 관한 착상과 정식화(定式化)는 R.F.칸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고용량의 제1차적 변화는 제2차, 제3차...의 고용증가로 파급된다는 사실에서 고용승수를 정식화하였다. 그러나 이론체계의 중추부분에 승수이론을 도입한 것은 J.M.케인스였으며, 이에 따라 승수이론의 지위도 비약적으로 제고되어 이후의 다채로운 전개에 기초가 구축되었다.

15) 자료출처: 문화정책연구원

전주 등 7개 지역이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한편 첨단문화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주요 지방거점도시에는 문화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센터 내에는 창업공간/정보/기술/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산업의 지방확산과 균형적인 발전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2002년에는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을 위하여 캐릭터-애니메이션-만화 연계 공동제작실 운영, 우리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 우량 콘텐츠의 디지털북뱅크구축, 독립제작사 제작시스템 구축, 디지털 매직스페이스 조성추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량 콘텐츠의 디지털북뱅크 구축, 독립제작사 제작시스템 구축, 디지털 매직스페이스 조성은 각각 전자책 산업진흥과 방송산업 진흥의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공동제작실 운영사업은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개발·입력·제작·시연·상품화·투자유치에 걸친 연속적 지원체계구축으로 One-Source Multi-Use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로 개별업체 차원에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 고가의 장비에 대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영세문화 콘텐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공동제작실 사업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은 우리 전통문화에 숨어 있는 이야깃거리나 우리 고유의 색채, 우리 고유의 소리 등을 디지털화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영화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소재로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업적으로 활용가능한 문화원형을 선별하여 5개년간 단계적으로 콘텐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별된 문화원형의 콘텐츠화는 공모형식을 통해서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2년에 3차례의 공모를 통하여 40여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유관기관 소장자료 및 공공 DB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콘텐츠화 한 문화원형은 한국문화콘텐츠 리소스센터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나. 지역 발전과 문화 산업 클러스터

문화산업의 클러스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클러스터적 관점을 정책과정의 전반에 걸쳐 견지한다는 것이다. 행정구역에 따라 억지로 클러스터를 확정해서는 안되며 대상산업의 자연스런 혁신시스템의 작동과정을 따라서 클러스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후발국의 문화산업클러스터정책은 국가경쟁력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OECD(1999)는 “대부분의 국가가 강력한 ICT클러스터를 갖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들이 엇보이지만 이와 유사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현이 어렵다. 자기 국가 내에서 이러한 유형의 가치사슬을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¹⁶⁾ 하물며, 최첨단의 CT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문화산업의 혁신클러스터를 지방의 좁은 행정구역내에 단기간에 완성하려 하는 경우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콘텐츠 발굴 및 기획력의 강화에 보다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산업은 문화컨텐츠가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은 그 발전의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므로 문화산업의 성패는 기술적 수준보다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콘텐츠 소재 발굴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그것이 자국의 문화적 전통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서도 지방정부는 향토의 문화적 자산의 발굴 및 기획의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 생산사슬의 초기단계에 주도권을 확보하여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을 통한 부가가치의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클러스터 발전의 초기에는 생산시설이 밀집한 서울 등을 부분적 공정의 생산기지로 활용하다가 점차 보다 밀접한 분야부터 제작/가공 공정의 이전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창구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므로 정책구상의 초기에 기획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16) OECD(1999), 이공래(2001)에서 재인용.

문화산업 혁신클러스터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 및 지식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무엇보다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지식은 비단 정보통신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클러스터가 위치한 지역 및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달라진다. 특히 소비자 시장에 대한 정보는 기술정보이상으로 중요하다. 해외시장의 정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집되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보의 이용을 위한 지역거점들을 설치하여 클러스터의 입지적 장점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역거점에는 클러스터내의 기업들이 상호 교류하고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상호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등 상호교류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러스터의 형성지역이 지방인 경우 최신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정기적인 소식지의 발간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클러스터 내 소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강좌를 개최하고 참여자들간의 회합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도 지식흐름의 촉진과 상호교류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개발 인프라가 약한 지방의 경우 대학을 그 지역의 지식창출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의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대학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장비를 대학에 지원하고 지방기업들의 활용도에 지원의 확대 및 축소를 연계시키는 등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보고 되는 바와 같이 후발국의 클러스터는 중심적인 대기업이 관련산업을 거느리고 혁신을 선도하는 형태의 경우가 많다. 여건이 다소 불리한 지역에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견 및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된다.

경쟁과 협력의 강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공동과제 추진을 특히 차별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정보센터 설치 및 매칭펀드 등을 통한 외부투자유치의 촉진 및 퇴출장벽 완화는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논하는 경우 생산과정에 관심의 초점을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창작 및 소비기반의 강화 또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창작

및 공연집단 등 예술 인력을 지역에 유치하는 등 예술활동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장기적인 문화산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된다.

제 3 절 지역 문화와 축제

1. 지역 축제의 의의

지역문화는 삶의 총체적 양식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문화 자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문화의 양식을 창출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자생적인 문화 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유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럴 경우 가장 쉽게 만나는 행사가 지역의 축제이다. 대체로 지역의 오랜 전통을 살려 이벤트를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 아니면 새롭게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

하여간 이러한 축제는 지역 주민을 한 군데 모으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는 주민이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화의 시대에 모든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 지역 축제의 효과

축제의 효과는 크게 여섯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축제 자체가 문화라는 점이다. 축제는 지역주민이 누리는 문화임과 동시에 주민이 만들고 이끌어가는 생활이다. 따라서 축제는 주민의생각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둘째, 축제는 지역통합의 기능을 갖는다. 축제를 통해 하나의 구심점을 형성하고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예를 들면 왜 있잖아요. OOO축제를 하는 곳입니다.“또는 우리 거기 축제장에서 만나자.”, “이번 축제에 내가 OOO일을 했는데 참 재미있었어” 등의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분명 축제가 지역의 구심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유럽과 일본에 마을마다 축제가 있는 것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축제가 지역통합

의 기능으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경제성과 인기라는 명제에 빼앗기고 있다. 축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모든 축제는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으며 저마다 내세울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말이다.

셋째, 축제는 지역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여준다.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의 수준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말하자면 수요가 있으므로 공급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급자가 있으므로 축제를 통해 수용자를 창출하기도 한다.

넷째, 축제는 주민의 문화예술복지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축제를 통해 보지 못했던 공연을 볼 수도 있으며 자녀들과 함께 축제를 관람함으로써 외부로 나가서 사용하는 경비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주말 가족활동을 보장받는 것은 주민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다.

다섯째, 축제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 축제는 일탈행위라고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쉬면서 즐기는 소모적인 분야가 강하다. 그래서 이러한 소모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역상인들의 매출액을 높여주게 되며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게 만든다.

여섯째, 축제는 교육기능을 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통합적인 기능과도 연결되거나 중복될 수 있겠지만 특히 축제가 갖는 교육적 기능은 어린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것이다. 축제를 접하고 지역의 문화를 느끼게 함으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에 대한 애乡심을 이끌어가게 되며, 결국은 지역의 가장 큰 재산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축제는 문화형성, 지역통합, 문화예술, 주민복지, 지역경제, 교육기능 등을 담당하는 등 그 파급성과 농축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경제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도 없다. 따라서 단순히 축제의 생산성을 축제 자체의 수입이라든지 경제적 성과로 귀결지어 비효율적이라거나 소모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 3 장 경기도 문화 정책의 현황

제 1 절 지역별 문화예산 관련 과목 구조의 특징¹⁷⁾

아직 31개 시군별로 통일된 예산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예산 구조에서 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하다. 지역 단위에서는 사업을 관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현재 문화 관련 예산은 사회개발비라는 장(章)에 속해 있다. 사회개발비(2000)에는 복지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되는데 이중에 교육 및 문화비(2100)라는 관(款)에 문화비가 포함된다. 여기까지는 31개 시군이 공통된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항(項) 과목부터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항 과목으로 처리되는 유형을 보면 다음 <표 3-2>와 같다. 항 과목의 유형으로는 '문화 예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안성시의 경우 특이하게 '문화 체육'으로 분류되어 있다. 문화 관련 예산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문화 예술'의 항 과목 내에서 세항 과목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보를 포함시키는 경우 (양평), 도서관 업무를 포함시키는 경우(안산, 화성), 청소년 업무를 포함시키는 경우 (안산), 시민회관 관리를 포함시키는 경우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체육진흥을 포함시키는 경우(양평), 관광을 포함시키는 경우(여주), 문화에 공보를 포함시키는 경우(화성) 등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지역간의 문화관련 예산 구조를 일관성 있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과목 구조의 표준화가 있

17) 이하의 모든 자료는 2005년도 일반회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어야 지역간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다양성을 인정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한 표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원칙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징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 문화, 문화재 관리, 축제¹⁸⁾, 박물관 관리, 시민회관, 국악단 및 예술단 관리의 범주만 포함하여 분석한다.

한편 안산, 수원, 화성의 경우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별도로 관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의 경우 별도로 이를 통합하여 분석한다.

이의 구체적인 내역은 <표 3-3>과 같다.¹⁹⁾

그리고 분석을 위해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중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과 다시 민간단체에게 단순히 이전하는 지출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표 3-1> 지역별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표 3-1-1> 안성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 체육(2110)	문화재 관리(2111)
	문화예술(2112)
	문화시설(2113)

출처: 2005년도 안성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18) 축제는 포함되지만 일반적 의미로서의 관광은 제외한다.

19) 여기에서 도서관 예산은 제외한다. 도서관의 경우 교육비로 분류하는 경우와 문화예술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을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문화관광부가 문화기반시설로는 도서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을 비교 분석할 때는 별도로 분석한다.

<표 3-1-2> 안산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 예술(2110)	문화 관리(2111)
	예술 관리(2112)
	청소년 관리(2113)
	시립국악단 운영(2114)
	시립합창단 운영(2115)
	성호기념관 운영(2116)
	중앙도서관 건립(2117)

출처 : 2005년도 안산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3> 화성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 및 체육 관리 (2110)	문예 관리(2111)
	문화재 관리(2112)
	공보관리(2113)
	관광관리(2114)
	도서관 관리(2115)

출처 : 2005년도 화성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4> 이천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 예술(2110)	문예 관리(2111)
	문화재 관리(2112)
	시민회관 관리(2113)
	박물관 운영(2114)

출처 : 2005년도 이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5> 양평군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 공보(2110)	홍보기획(2111)
	문화예술(2112)
	체육진흥(2113)
	도서관 운영(2114)

출처 : 2005년도 양평군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6> 여주군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 관광 (2110)	예술 문화(2111)
	문화재 관리(2112)
	관광관리(2113)
	체육관리(2114)
	도서관 관리(2115)

출처 : 2005년도 여주군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7> 성남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 예술(2110)	문예 관리(2111)

출처 : 2005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8> 평택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 예술(2110)	문예진흥 (2111)
	문화재 관리(2112)
	문화재 관리(2114)

출처 : 2005년도 평택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9> 시흥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 예술(2110)	시정홍보 (2111)
	문화예술(2112)
	문화재관리(2113)
	청소년복지(2114)

출처 : 2005년도 시흥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10> 부천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 예술(2110)	문화예술 (2111)
	관광영상(2112)
	문화시설(2113)
	예술단운영(2114)

출처 : 2005년도 부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11> 안양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 예술(2110)	문화예술 (2111)
	문화재관리(2112)

출처 : 2005년도 안양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12> 오산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 관광(2110)	공보관리 (2111)
	문화관광진흥(2112)
	체육청소년관리(2113)

출처 : 2005년도 오산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13> 동두천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예술(2110)	시설사업소운영 (2111)

출처 : 2005년도 동두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14> 김포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예술(2110)	예술문화 (2111)
	교육지원(2114)

출처 : 2005년도 김포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15> 포천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예술(2110)	문화관광 (2111)
	문화예술(2112)
	문화관리(2113)

출처 : 2005년도 포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16> 구리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예술(2110)	문예진흥 (2111)
	문화재관리(2112)
	관광진흥(2113)

출처 : 2005년도 구리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17> 연천군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교육진흥(2110)	교육관리 (2111)
문화관광(2120)	문화예술관리(2121)
	선사유적관리(2122)
	관광관리(2123)

출처 : 2005년도 연천군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18> 양주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예술(2110)	문예관리 (2111)
	문화재관리(2112)
	문화시설사업소운영(2113)
	도서관운영(2114)

출처 : 2005년도 양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19> 하남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정책(2110)	문화예술 (2111)
	교육지원(2112)
	문화재관리(2113)

출처 : 2005년도 하남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20> 의정부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관광(2120)	문예진흥 (2121)
	문화재관리(2122)
	도서관관리(2123)

출처 : 2005년도 의정부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21> 의왕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예술(2110)	문예관리 (2111)
	문화재관리(2112)
	문화의 거리조성(2114)

출처 : 2005년도 의왕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22> 가평군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관광(2110)	문예관리 (2111)
	문화재관리(2112)
	관광진흥(2113)
	관광지개발(2115)

출처 : 2005년도 가평군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23> 고양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예술(2110)	문화관리 (2111)
	문화재관리(2112)
	행주산성관리소운영(2114)
	문화센터건립(2115)
	예술진흥(2116)
	관광관리(2117)

출처 : 2005년도 고양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24> 광명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예술(2110)	문화관광 (2111)
	예술공연(2112)

출처 : 2005년도 광명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25> 파주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관광(2110)	문화행정 (2111)
	예술진흥(2112)
	관광진흥(2113)

출처 : 2005년도 파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26> 남양주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관광(2110)	문화예술운영 (2111)
	문화재관리(2112)
	관광진흥(2113)
	도라산사업소운영(2114)

출처 : 2005년도 남양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27> 수원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예술(2110)	예술문화 (2111)
	문화조성(2115)

출처 : 2005년도 수원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28.>광주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관광(2110)	문화관광진흥(2111)
	문화재관리(2112)
	문예회관운영(2113)

출처 : 2005년도 광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29> 군포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체육(2110)	시정홍보(2111)
	문예진흥(2112)
	청소년복지(2113)
	체육진흥(2114)

출처 : 2005년도 군포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30> 과천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관광(2110)	문화재관리(2111)
	문예관리(2113)

출처 : 2005년도 과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1-31> 용인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항 과목의 명칭	세항 과목의 명칭
문화예술(2110)	문화예술(2111)
	문예관리(2112)
	관광진흥(2113)

출처 : 2005년도 용인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2> 문화관련 예산의 일반적 구조

일반회계 총규모						
	사회개발비 (2000)					
		교육 및 문화비 (2100)				
			문화관광 (2110)			
				예술 문화	경상예산 (민간이전)	
					사업예산 (보조사업)	
				문화재 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	
					사업 예산 (보조사업)	
				축제	경상예산 (민간이전)	
					사업예산 (보조사업)	
				박물관 관리		
				국악단 관리		

* 비교 분석을 위해 31개 시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조정 한 구조임

제 2 절 지역별 예산 구조의 분석²⁰⁾

1) 안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안산의 경우 신도시가 발달하면서 주민의 일체감 형성을 위해 문화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공단 지역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청소년 관련 재출을 문화 예술의 향으로 분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이하게 시립 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회계 규모로 보아 재정력이 큰 자치단체의 분류가 아닌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 관련 관심이 커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05년부터 문화원사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20) 이하의 모든 자료는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3-3-1> 안산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467,172,823	문화 예술 7,799,834	문화 관리 517,382	경상비 (민간이전)	359,677 (195,000)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시설비	157,705 (105,200) (40,000)
		예술 관리 1,215,840	경상예산 (민간이전)	937,540 (737,200)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시설비)	278,300 (76,000) (172,100)
		청소년 관리 102,500	청소년문화행사 보조	102,500
		시립국악단 운영	1,459,189	
		시립합창단 운영	1,669,074	
		성호기념관 운영	311,962	
		문화원사 건립	900,000	전액 시설비
		문화예술의 전당 7,591,987	행정관리 1,159,297	경상비
	사업비 (자체사업)			36,658 (36,658)
	공연예술 3,865,750		경상비	2,427,600
			사업비 (자체사업) (민간이전)	1,438,150 (1,438,150) (140,000)
			경상비	636,440
	시설관리 2,566,940		사업비 (자체사업) (민간이전)	1,930,500 (1,930,500) (1,220,000)

* 별도 운영되는 문화예술의전당 사업비 포함. (출처 : 2005년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재구성)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 중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6%이다.

전체 문화예술 예산 중 경상비가 59%로서 비중이 크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17%이다.

중앙이나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비(181,200천원)의 경우 문화예술 전체 규모 대비 2.3%로서 높지 않다.

<표 3-3-2> 안산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467,172,823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15,391,821	
- 민간 단체 보조금 (C)	- 2,575,900	17%
- 보조금 지원 사업 (D)	- 181,200	1%
- 경상비 (E)	- 9,026,621	59%
인구 수	686,873	
일반회계 대비 비중		3.29%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22,409원

출처 : 2005년도 안산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성호 문화제, 안산단오축제, 안산 경기 민요합창단 경기 공원, 안산웃다리 풍물놀이 경연대회, 단원 김홍도 축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 연간 3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이 많아서 인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미약하다.

2) 안성

가) 예산구조의 특징

과목 2112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2004년 18억원에서 33억원으로 증액될 정도로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적극적이다. 마우덕이 축제를 통해 문화의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관련해 보면 각종 행사 보조금이 나열되고 있다.

<표 3-3-3> 안성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233,916,919	문화체육 11,755,940	문화재관리비 2,299,081	경상비	100,097
			민간이전	(12,000)
			사업비	2,198,984
			보조사업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1,663,584) (65,263) (1,278,321) (120,000)
		문화예술 3,292,566	경상비	1,664,908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527,000) (5,000)
		문화시설 166,101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1,527,658 (1,089,058)
			경상비	110,701
		체육진흥 3,380,806	민간이전	(32,000)
			사업비	55,400
			경상비	1,239,600
			민간이전	(1,067,000)
시립도서관운영 2,617,386	사업비	2,141,206		
	보조사업	(1,882,206)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159,276) (1,250,000)		
	경상비	296,786		
	사업비	2,320,600		
	보조사업	(2,300,000)		
	(시설비및부대비)	(2,100,000)		

* 체육진흥과 시립도서관 제외함 (출처 : 2005년도 안성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일반회계 중 문화관련 예산은 2.46%이다. 이중 민간단체 보조금 비율이 32%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48%이다. 바우덕이 축제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3-4> 안성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233,916,919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5,757,748	
- 민간 단체 보조금 (C)	1,848,321	32%
- 보조금 지원 사업 (D)	2,752,642	48%
- 경상비 (E)	1,875,706	33%
인구 수	156,839	
일반회계 대비 비중		2.46%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36,711원

출처 : 2005년도 안성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송문주 장군제향, 이덕남 장군 제향 등 문화재 관리 비용으로 23억이 지출되고 있다.

남사당 전수관, 죽산 공연장 등의 운영으로 16억원이 지출되며 2004년 대비 15억원이 증가되었다.

시립 풍물단의 운영을 위해 10억이 증액되었다.

각종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34억원이 지출되며 이는 2004년 대비 32억원이 증액되었다. 이에는 국악제, 장애인을 위한 미술 전시회, 창작 음악회, 청소년 예술경연대회, 어르신 공경위안 잔치, 어머니 합창 경연 대회 등이 포함된다.

바우덕이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7억5천만원이 지출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3) 화성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와 관련한 적극적인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 대비 문화 관련 예산 규모도 1.33%로서 적은 편이다.

<표 3-3-5> 화성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362,304,000	문화및체육관리 13,165,809	문예관리 3,053,391	경상비	1,104,650
			민간이전	900,978
			사업비	1,948,741
			(보조사업=민간이전)	110,557
		문화재관리 1,761,258	경상비	4,509
			사업비	1,756,749
			보조사업	1,172,772
			(시설비및부대비)	1,033,572
		공보관리 1,630,650	민간자본이전	120,000
			경상비	712,550
			사업비	918,100
			경상비	108,740
관광관리 5,016,268	민간이전	58,840		
	사업비	4,907,528		
	보조사업	125,240		
도서관운영 1,704,242	(시설비및부대비)	77,000		
	사업비	1,704,242		
	(보조사업=민간이전)	323,073		

* 공보관리, 관광관리, 도서관 운영은 제외함

출처 : 2005년도 화성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6> 화성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362,304,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4,841,649	
- 민간 단체 보조금 (C)	-1,131,535	24%
- 보조금 지원 사업 (D)	-1,283,329	27%
- 경상비 (E)	-1,109,159	23%
인구 수	268,736	
일반회계 대비 비중		1.33%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17,916원

출처 : 2005년도 화성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우선 각종 단체 지원은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화성문화원, 한국예총 화성시 지부 지원이 있고, 문화의 집 위탁 대행 사업비로 2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비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홍제 사진전, 전통민속발굴, 정조효행문화행사지원, 전통품물경연대회, 용줄당기기, 용주사 승무제(6천만원) 등이 있다. 화성 포구 축제를 위해 2억1천만이 배정되어 단일 사업으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악회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연주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지는 예산서를 통해 이해할 수 없다.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1억), 한여름 밤의 국악공연, 난파음악제, 전국 효음악 경연대회 등이 있다. “정조대왕의 꿈” 오페라 공연에 6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특이하다.

화성시 문화상, 노작문학상 등 시상과 관련한 행사도 문화예산의 주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문화교실 운영, 문화학교 지원 등 교육과 관련한 각종 학교 운영도 있다.

4) 이천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시민회관, 박물관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각종 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이 많다.

이천 문화원을 통해 설봉문화예술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도자기를 소재로 하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개발비의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도자기 축제지원이 도비 4억원과 시비 4억원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표 3-3-7> 이천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220,118,650	문화예술 4,186,159	문예관리 3,352,287	경상비	480,710
			민간이전	428,000
		문화재관리 344,072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2,871,577
			경상비	4,072
			사업비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	340,000 210,000 10,000
		시민회관관리 293,387	경상비	138,487
			사업비	154,900
		박물관운영 196,413	경상비	173,413
			사업비	23,000
	광공업 관리 800,000	도자기 축제 지원	경상비 (도비 보조금)	800,00 (400,000)

* 도자기 축제 사업이 광공업 관리로 지역경제개발비에 속하고 있으나 포함함
출처 : 2005년도 이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8> 이천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220,118,65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4,986,159	
- 민간 단체 보조금 (C)	-562,557	11%
- 보조금 지원 사업 (D)	-744,557	15%
- 경상비 (E)	-1,596,682	32%
인구 수	192,725	
일반회계 대비 비중		2.27%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25,872원

출처 : 2005년도 이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천3백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각종 민간 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사진연구회, 이천 예우회, 청미문학회 등에는 1백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각종 어린이 합창단, 한울림 합창단 등 각종 합창단 등에는 3백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각종 동우회에 문화 사업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천시 윈드 오케스트라 사업 지원으로 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설봉서원 건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박물관 운영을 위한 경비가 1억9천만원이 지출되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5) 양평군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일반회계 대비 문화예술관련 예산의 비중이 1.9%로서 낮은 편이고 특징적인 사업이 부족하다.

<표 3-3-9> 양평군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192,147,000	문화공보 8,645,561	홍보기획 784,175	경상비	647,075
			사업비	137,100
		문화예술 3,650,890	경상비	27,276
			사업비	3,523,614
			보조사업	3,108,366
			민간이전 (시설 및 부대비)	115,510
		체육진흥 1,919,829	경상비	36,642
			사업비	1,783,187
			보조사업	1,167,287
			민간이전 (시설및부대비)	167,287
		도서관운영비 2,290,667	경상비	129,747
			사업비 보조사업	2,160,920 (1,890,000)

* 홍보 기획, 체육진흥과 도서관 운영비 제외

출처 : 2005년도 양평군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10> 양평군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192,147,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3,650,890	
- 민간 단체 보조금 (C)	-115,510	3%
- 보조금 지원 사업 (D)	-3,108,366	85%
- 경상비 (E)	-27,276	1%
인구 수	85,242	
일반회계 대비 비중		1.90%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42,830원

출처 : 2005년도 양평군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독창적이고 자생적인 문화 관련 예산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해당된다. 예총 양평지부 지원(1천8백만원), 지방문화원 지원(6천만원)이 주요한 사업이다.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경기도 아마츄어 연극제 참가지원, 경기도 성인 민속 예술 축제 참가 지원, 향교 유림 전통 문화 시연 등이 있다.

자체 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은 맑은 물 사랑 예술제 지원(3천만원), 사물놀이 풍물단체 지원(4천5백만원), 팝스 오케스트라단 사업 활동비 지원(2천만원), 백운문화제(2천만원), 양근성지 성역화 사업(1천만원)이 큰 사업이고 나머지는 1천만원 이내의 매우 조그마한 사업이 나열되고 있다. 이에는 청소년 향토유적 탐방지원(1천만원), 영목제 개최, 지방서원 육성 지원, 한문 및 서예 교육지원, 지방향교 육성 지원, 전통성년제 지원, 양평 기독교 연합회 문화 행사 지원, 우리 동네 음악회 지원 등이 있다.

6) 여주군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일반회계 대비 문화 예술 예산은 1.9%로서 낮은 편이고 보조금 지급 사업이 52%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사업은 8%로서 낮다.

<표 3-3-11> 여주군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항			
172,558,000	문화관광 6,952,904	예술문화 434,882	경상비	214,825	
			민간이전	158,000	
		문화재관리 2,837,418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120,057	116,557
			경상비	398,174	
		관광관리 2,555,030	사업비	2,439,244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1,693,944	1,227,144
			경상비	323,595	
		체육관리 789,600	사업비	2,231,435	
			보조사업 (시설비 및 무대비)	1,200,500	1,160,00
			경상비	352,400	
		도서관리 335,974	민간이전	341,900	
			사업비	437,200	
	보조사업	367,200			
	민간이전	149,057			
	경상비	199,571			
	사업비	136,403			
	보조사업	80,000			

* 관광관리, 체육관리, 도서관리는 제외

출처 : 2005년도 여주군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12> 여주군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172,558,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3,272,300	
- 민간 단체 보조금 (C)	-274,557	8%
- 보조금 지원 사업 (D)	-1,693,944	52%
- 경상비 (E)	-612,999	19%
인구 수	105,006	
일반회계 대비 비중		1.90%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31,163원

출처 : 2005년도 여주군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명성왕후 생가의 유적지를 배경으로 몇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군 문화상, 세종대왕 숭모대전, 전국사진 공모전, 군민의 날, 상룡거 줄다리기, 전국 향교 기로연, 경기도 성인민속예술 축제 참가 지원 등 행사 지원비가 있다.

문화학교, 지방문화원 등 기관에 대한 지원이 있다.

명성왕후 유적 관리소, 향토 사료관 운영비 등 유적지 관리비가 있다.

7) 성남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술의 비중이 7.57% 정도로 매우 높다.

튼튼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재정 부담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3-3-13> 성남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783,989,000	문화예술 59,342,372	문예관리 59,231,372	경상비	6,125,970
			민간이전	1,142,015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52,105,402 202,150	
		문화재관리 111,000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111,000 51,600

출처 : 2005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14> 성남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783,989,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59,342,372	
- 민간 단체 보조금 (C)	-1,395,765	2%
- 보조금 지원 사업 (D)	-253,750	0%
- 경상비 (E)	-6,125,970	10%
인구 수	986,170	
일반회계 대비 비중		7.57%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60,175원

출처 : 2005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시민회관, 서현·초림 등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등의 운영에 44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규모를 크게 하는 요인이다.

문예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민간행사 지원 경비로 11억원이 지출되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이에는 대보름맞이 민속 놀이, 해맞이 행사, 성남사진대전, 한가위 국악큰잔치, 성남학생국악경연대회, 모란현대미술대전, 성남전국창작동요제, 새봄맞이 축제, 청소년예술제 등이 있는 데 대체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지원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각종 민간 행사 지원비로 12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는 성남연국인합동공연, 성남주부가용제, 동호인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공원별 테마 예술제 축제 등이 있다.

민간위탁금으로 성남예술 발간비, 성남문학 발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성남문화재단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출연금 67억원이 배정

되어 있어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나타난다.

8) 평택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문화예산 규모가 0.64%로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이 42%를 차지하고 있어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단체 지원금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가) 예산 구조의 특징

<표 3-3-15> 평택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375,810,750	문화예술 2,401,270	문예진흥 835,794	경상비	692,684	
			민간이전	471,000	
			사업비	143,110	
				보조사업	129,110
				민간이전	119,110
		문화재관리 634,860	경상비	149,260	
			민간이전	135,000	
			사업비	485,600	
			보조사업	415,600	
				민간이전	15,600
		(시설비및부대)	200,000		
		민간자본이전	200,000		
문예회관운영 930,616	경상비	528,771			
	민간이전	70,000			
		사업비	401,845		

출처 : 2005년도 평택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16> 평택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375,810,75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2,401,270	
- 민간 단체 보조금 (C)	-1,010,710	42%
- 보조금 지원 사업 (D)	-544,710	23%
- 경상비 (E)	-1,370,715	57%
인구 수	378,073	
일반회계 대비 비중		0.64%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6,351원

출처 : 2005년도 평택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평택호 예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향악단, 시합창단, 어머니 합창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으로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 지원비로 평택농악 경연대회, 동령 줄다리기 재연, 소사벌 국악대향연, 청소년을 위한 국악대 향연, 소사벌 미술대전, 평택미술협회 회원전, 소사벌 학생 미술 실기 대회, 청소년 음악회, 평택시민 사진촬영대회, 시민백일장, 시화 전시회, 평택시민 가요제, 청소년 가요 댄싱 경연대회, 청소년을 위한 한여름밤 추제, 소사벌 무용경연대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국제아트 웨스티발, 지영희 예술제, 시민화합 국악대축제 등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단체 지원금으로 평택농악 보전회 지원 등이 있고 앞에 본처럼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다.

9) 시흥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산이 3.53%이고 미간단체 보조금은 3%에 불과하다. 비교적 문화

예산이 큰 편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3-17> 시흥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항		
249,219,880	문화예술 11,133,206	시정홍보 1,134,396	경상비	512,852
			사업비	621,544
		문화예술 2,633,320 <1,433,320>	경상비	71,260
			사업비	2,062,060
			보조사업비	(1,320,000)
			민간이전 (시설및부대비용)	(1,200,000) (1,200,000)
		문화재관리	경상비	5,110
			사업비	1,866,880
		청소년복지 5,493,500	경상비	1,600
			사업비	5,491,900
		보조사업	(5,295,000)	
		민간이전	(303,000)	

* 시정홍보비, 민간이전 12억원은 도서관 건립비로서 제외함

출처 : 2005년도 시흥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18> 시흥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249,219,88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8,798,810	
- 민간 단체 보조금 (C)	-303,000	3%
- 보조금 지원 사업 (D)	-6,615,000	75%
- 경상비 (E)	-77,970	1%
인구 수	390,933	
일반회계 대비 비중		3.53%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22,507원

출처 : 2005년도 시흥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로 6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경기도 성인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8백만원),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4백만원)을 하고 있다.

시립여성합창단, 시립전통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억5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로 4억9천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에는 정월대보름 행사, 연성문화제(7천만원), 찾아가는 공연 트라콘서트(9천8백만원), 신년음악회, 시흥문학상, 물왕예술제(1억1천만원), 문인협회 시화전, 시흥문학지발간, 한여름밤 바다의 향연, 시흥시 주부가요제 등에 지출되고 있다.

10) 부천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예술의 비중이 2.82%로서 비교적 높다. 반면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7%로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체적인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은 13%로 상대적으로 낮다.

<표 3-3-19> 부천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486,939,221	문화예술 13,743,718	문화예술 5,403,128	경상비	954,836	
			민간이전	729,250	
		관광영상 1,371,995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4,248,292 143,000	
			경상비	132,040	
		문화시설 2,262,100	민간이전	(10,000)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1,239,955 875,600	
		예술단운영 4,706,495	경상비	191,004	
			사업비	2,071,096	
				경상비	4,705,495
				사업비	1,000

출처 : 2005년도 부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20> 부천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486,939,221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13,743,718	
- 민간 단체 보조금 (C)	-1,757,850	13%
- 보조금 지원 사업 (D)	-1,018,600	7%
- 경상비 (E)	-5,983,375	44%
인구 수	864,501	
일반회계 대비 비중		2.82%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15,898원

출처 : 2005년도 부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행사 지원으로 복사골예술제, 경인미술대전, 복사골청소년합창경연대회, 복사골 부천사진공모전, 전국무용경연대회, 복사골전국국악경연대회, 부친을 빛낸 역사인물전, 바둑대회 등이 있다.

특히 부천시의 역점 사업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 8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국제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도 2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시상에 지원되는 것으로 문화상, 문화예술유공자 시상이 있다.

문화학교, 문화원, 문화의 집(1억6천만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향토역사관을 운영하면서 1억8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47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을 두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 35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11) 안양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문화예술의 비중이 3.05%로서 높게 나타난다.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의 비중이 1%로서 낮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사업은 33%로서 높다.

가) 예산 구조의 특징

<표 3-3-21> 안양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383,156,953	문화예술 11,691,602	문화예술 11,629,762	경상비	5,604,250
			민간이전	3,677,000
		문화재관리 1,000,000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5,025,512 132,000
			경상비	25,040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36,800 22,800	

출처 : 2005년도 안양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22> 안양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383,156,953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11,691,602	
- 민간 단체 보조금 (C)	-3,831,800	33%
- 보조금 지원 사업 (D)	-154,800	1%
- 경상비 (E)	-5,629,290	48%
인구 수	625,197	
일반회계 대비 비중		3.05%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18,701원

출처 : 2005년도 안양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인건비 및 경상비로 17억5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다양한 행사로 전국남여시조 경창대회, 금요상설 무대 지원, 안양전국 사진공모전, 송년음악제, 관악현대 미술대전, 시민가요제, 문화예술제, 시민축제, 장터 문화제, 휘호 대회, 소규모 야외 및 거리 공연지원, 성년식

개최, 안양시지 편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안양 유원지 공공예술화 사업에 28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학교, 지방문화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안양문화원과 문예회관 시설 개조비로 12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평촌 아트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유지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도 지출되고 있다.

공공예술 학술 국제심포지엄 개최로 7천4백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문화예술기금에 10억원을 출연하고 있다.

12) 오산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술의 비중이 2.37%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사업이 7%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출하는 내역도 2%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문화 관련 사업에 역동성이 부족하다.

<표 3-3-23> 오산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127,887,272	문화관광 6,105,396	공보관리 515,287	경상비 민간이전	355,187 (14,400)
			사업비	160,100
		문화관광진흥 3,027,280	경상비 민간이전	295,132 (225,614)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1,107,606 (72,000)
		체육청소년관리 2,562,829	경상비	859,440
			사업비 보조사업	1,305,176 (685,176)

* 공보관리, 체육청소년 관리는 제외

출처 : 2005년도 오산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24> 오산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127,887,272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3,027,280	
- 민간 단체 보조금 (C)	-225,614	7%
- 보조금 지원 사업 (D)	-72,000	2%
- 경상비 (E)	-295,132	10%
인구 수	122,784	
일반회계 대비 비중		2.37%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24,655원

출처 : 2005년도 오산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사회단체 보조금이 대체를 이루고 있다. 오산문화원(1천8백만원), 오산시 여성합창단(1천8백만원) 등을 제외하면 5백만원 내외의 보조금으로 성균관유도회 오산시 지부 지원, 오산소년소녀 합창단, 한국문인협회 오산지부, 사립유치원 연합회, 국악협회 오산지부, 한국연예협회 오산지부에 대한 지원 등을하고 있다.

13) 동두천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관련 예산의 비중이 1.6%이다.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18%이고 민간 단체 보조금 사업에도 뚜렷한 특징이 없다. 문화 관련 사업에 역동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3-25> 동두천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134,657,000	문화예술 2,151,704	시설사업소운영 2,151,704	경상비	448,663
			사업비 보조사업	1,703,041 (390,000)

출처 : 2005년도 동두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26> 동두천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134,657,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2,151,704	
- 민간 단체 보조금 (C)	-	-
- 보조금 지원 사업 (D)	-390,000	18%
- 경상비 (E)	-448,663	21%
인구 수	81,117	
일반회계 대비 비중		1.60%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26,526원

출처 : 2005년도 동두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3백만원 내외의 지원으로 독서교실, 문화교실, 독서으 달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사업소를 통해 시민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14) 김포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술의 비중이 0.6%로서 매우 낮다. 그나마 보조금 의존 사업이 43%이고,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이 64%에 달하고 있다. 자생적인 문화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표 3-3-27> 김포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219,855,000	문화예술 3,409,562	예술문화 1,327,736	경상비 민간이전	709,370 (451,200)
			사업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시설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618,366 (568,366) (137,110) (160,856) (256,000)
			교육지원	14,600
		2,081,826	사업비	2,067,226

* 교육지원은 제외 (출처 : 2005년도 김포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28> 김포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219,855,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1,327,736	
- 민간 단체 보조금 (C)	-844,310	64%
- 보조금 지원 사업 (D)	-568,366	43%
- 경상비 (E)	-709,370	53%
인구 수	216,689	
일반회계 대비 비중		0.60%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6,127원

출처 : 2005년도 김포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김포문화예술제(2억3천만원)이외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1억2천 만원을 총액계상하고 있다.

그리고 통진두레놀이 계승보존(1천5백만원), 유명예술단 초청공연(2천 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지원(5천만원)이 있다. 손오공 진혼제 2백 만원 등 소규모 사업도 있다,

15) 포천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술의 비중이 3.23%로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단체 보조금 비율은 9%로서 그다지 높지 않다. 자체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3-29> 포천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210,156,216	문화예술 6,781,482	문화관광 978,082	경상비 민간이전	143,000 (138,000)
			사업비	300,000
		문화예술 3,784,815	경상비 민간이전	387,371 (303,100)
			사업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3,397,444 (3,335,444) (144,557) (1,646,286)
			문화관리 2,018,585	경상비
			사업비	177,240

출처 : 2005년도 포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30> 포천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210,156,216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6,781,482	
- 민간 단체 보조금 (C)	-585,657	9%
- 보조금 지원 사업 (D)	-3,335,444	49%
- 경상비 (E)	-2,371,716	35%
인구 수	158,487	
일반회계 대비 비중		3.23%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42,789원

출처 : 2005년도 포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산정호수 억세꽃 축제에 1억3천만원을 지출하는 등 비교적 문화관련 예산에 적극적이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는 아시아 미술제(1억2천만원), 마홀문예대학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무용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포천사랑백일장, 포한사랑 시낭송회, 미술실기 대회, 청소년 연극제, 반월문화제, 백일장, 전충다례교육지원, 경기소리 보존회 정기 공연, 포천사진동우회 등에 5백만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다.

반월아트홀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6억3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16) 구리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관련 예산 규모가 0.85%로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 71%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출하는 비중이 45%이다. 자체적인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3-3-31> 구리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143,323,715	문화예술 1,281,930	문예진흥 695,540	경상비	370,440
			민간이전	(313,000)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225,100 (120,000)
			경상비	47,290
		문화재관리 530,890	민간이전	(10,000)
			사업비	483,600
			보조사업	(433,600)
			민간이전	(33,600)
		관광진흥 55,500	민간자본이전	(400,000)
			경상비	2,100
사업비	53,400			
보조사업	(33,500)			
		민간자본이전	(20,000)	

* 관광진흥은 제외 (출처 : 2005년도 구리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32> 구리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143,323,715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1,226,430	
- 민간 단체 보조금 (C)	-876,600	71%
- 보조금 지원 사업 (D)	-553,600	45%
- 경상비 (E)	-417,730	34%
인구 수	194,346	
일반회계 대비 비중		0.86%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6,311원

출처 : 2005년도 구리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시민백일장, 온달장군 추모제향, 음악 콩쿨, 미술실기 대회, 민요경창대회, 문학아카데미, 문학의 밤, 친환경 사진전, 코스모스 축제 등에 3억1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지방문화원,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17) 연천군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술의 예산 비중이 3.92%로서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은 6%로서 낮게 나타난다. 자체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3-33> 연천군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180,368,000	문화관광 10,371,943	문화예술관리 1,023,007	경상비 민간이전	640,400 (363,100)
			사업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382,600 (140,557) (80,557)
		선사유적관리 6,284,116	경상비	70,416
			사업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213,700 (5,738,200) (5,538,200)
		관광관리 3,064,820	경상비	163,121
			사업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901,699 (1,340,499) (1,100,000)

* 관광관리는 제외

* 문화예술관리비 중 연천도서관 신축 228,000천원은 제외함

출처 : 2005년도 연천군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34> 연천군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180,368,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7,079,123	
- 민간 단체 보조금 (C)	-443,657	6%
- 보조금 지원 사업 (D)	-5,878,757	83%
- 경상비 (E)	-710,816	10%
인구 수	49,361	
일반회계 대비 비중		3.92%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143,415원

출처 : 2005년도 연천군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민간행사 보조로 성년제, 향교 제향비, 송의전 제향비, 경순왕릉 제향비, 백일장, 전곡리 구석기 축제 행사 경비 등에 6억1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곡리산서유적지 등 유적 정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18) 양주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산의 비중이 5.7%로서 높게 나타난다. 반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5%에 불과하다. 경상비가 12%로서 낮은 편이며 시설비 관련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3-3-35> 양주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182,926,228	문화예술 12,740,981	문예관리 824,750	경상비	483,220
			민간이전	(336,000)
		문화재관리 6,442,292	사업비	341,530
			(보조사업=민간이전)	(90,000)
			경상비	148,232
			민간이전	(129,800)
		문화시설사업소운영 3,164,745	사업비	6,294,060
			보조사업	(6,016,900)
			민간이전	(2,557)
		도서관운영 2,309,194	시설및부대비	(5,999,943)
경상비	578,230			
사업비	2,586,515			
(보조사업=시설 및 부대비)	(2,500,000)			
		경상비	114,991	
		민간이전	(10,000)	
		사업비	2,194,203	
		보조사업	(2,075,000)	
		시설비 및 부대비	(1,700,000)	

* 도서관 운영은 제외(출처 : 2005년도 양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36> 양주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182,926,228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10,431,787	
- 민간 단체 보조금 (C)	-568,357	5%
- 보조금 지원 사업 (D)	-8,606,900	83%
- 경상비 (E)	-1,209,682	12%
인구 수	159,891	
일반회계 대비 비중		5.70%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65,243원

출처 : 2005년도 양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지역에 존재하는 단체도 많지 않으며 지원되는 행사도 많지 않은 편이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8천6백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양주 소놀이굿 공연, 고전농악 공연지원, 청소년연희단 버들소리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3억3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찾아가는 문화유산, 시민백일장, 국악교실 등 사회단체 보조금에 3천7백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문화원 문화학교에는 7천8백만원이 지출된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양주전통문화예술제, 양주 문화제 등 문화행사보조로 1억7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문화시설 사업소 운영비가 31억원으로 큰 편이며 문화예술회관도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다.

19) 하남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관련 예산이 5.01%로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 보조금을 받

아서 집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상비 비율이 5% 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37> 하남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150,387,338	문화정책 9,658,163	문화예술 6,577,537	경상비 민간이전	363,537 (178,500)
			사업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6,214,000 (6,161,600) (131,600)
		교육지원 2,116,971	경상비	100,000
			사업비	2,016,971
		문화재관리 963,655	경상비	29,573
			사업비 보조사업	934,082 (728,602)

* 교육지원은 제외 (출처 : 2005년도 하남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38> 하남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150,387,338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7,541,192	
- 민간 단체 보조금 (C)	-310,100	4%
- 보조금 지원 사업 (D)	-6,890,202	91%
- 경상비 (E)	-393,110	5%
인구 수	131,565	
일반회계 대비 비중		5.01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비중		57,319원

출처 : 2005년도 하남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7천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이성문화축제, 마을별 민속제 개최, 향토예술전, 학생미술대회, 미술대전, 백일장 개최, 시 낭송회, 찾아가는 청소년 음악회 등에 1억7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에 60억원이 지출되어 문화 관련 예산 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 의정부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관련 예산이 2.79%로서 낮은 편이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15%로서 높은 편이고, 그나마 경상비가 22%이다. 주로 단체 지원금이 주종을 이루는 사업을 하고 있다.

<표 3-3-39> 의정부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263,600,000	문화관광 7,480,125	문예진흥 6,463,680	경상비 민간이전	1,477,558 (748,000)
			사업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1,863,422 (162,000) (66,000) (96,000)
		문화재관리 144,400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144,400 (100,000)
		도서관관리 872,045	경상비 민간이전	595,545 (10,000)
			사업비 보조사업	276,500 (130,000)

* 도서관 관리는 제외 (출처 : 2005년도 의정부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40> 의정부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263,600,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6,608,080	
- 민간 단체 보조금 (C)	-1,010,000	15%
- 보조금 지원 사업 (D)	-262,000	4%
- 경상비 (E)	-1,477,558	22%
인구 수	400,018	
일반회계 대비 비중		2.79%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16,519원

출처 : 2005년도 의정부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소년소녀합창단에 6억6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민간행사 보조로 희룡문화제, 토요일문화가 산책, 통일예술제, 사진협회 우너전, 의정부 합창제, 국악민속공연, 문학공모전, 가곡의 밤 등에 7억4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21) 의왕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관련 예산의 비중이 2.06%로서 낮은 편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비율은 6%에 불과하다.

다른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65%에 달하고 있으며 경상비는 1%에 불과하다. 보조금을 받아 시설을 확대하는 유형에 해당된다.

<표 3-3-41> 의왕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항		
118,347,444	문화예술 2,440,164	문예관리 806,953	경상비	32,050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774,903 (148,000)
		문화재관리 41,500	사업비	41,500
		문화의거리조성 1,591,711	사업비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1,591,711 (1,591,711)

출처 : 2005년도 의왕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42> 의왕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118,347,444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2,440,164	
- 민간 단체 보조금 (C)	-148,000	6%
- 보조금 지원 사업 (D)	-1,591,711	65%
- 경상비 (E)	-32,050	1%
인구 수	146,595	
일반회계 대비 비중		2.06%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16,646원

출처 : 2005년도 의왕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문화의 거리 조성에 15억원이 지출되어 예산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복지회관, 문화의 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여성문학회, 화가회, 화도회 등에 5천8백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22) 가평군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산 비중은 1.78%이다.

반면 민간단체 보조금 비율은 7%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른 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비율은 40%이다.

경상비는 5%에 불과하여 다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3-41> 가평군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151,239,000	문화관광 2,690,536	문예관리 1,111,857	경상비	49,260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862,597 (174,557)
		문화재관리 406,680	경상비	33,480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373,200 (193,200) (13,200) (180,000)
			경상비	40,000
		관광진흥 253,499	사업비 보조사업	213,499 (13,499)
			경상비	17,500
		관광지개발 918,500	사업비 (보조사업=시설비및부대비)	901,000 (688,000)

* 관광진흥, 관광지 개발은 다른 시군과 달리 축제를 포함하고 있어 문화예산에 포함함

출처 : 2005년도 가평군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42> 가평군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151,239,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2,690,536	
- 민간 단체 보조금 (C)	-187,757	7%
- 보조금 지원 사업 (D)	-1,069,256	40%
- 경상비 (E)	-140,240	5%
인구 수	55,252	
일반회계 대비 비중		1.78%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48,687원

출처 : 2005년도 가평군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한석봉 선생 휘호 대회, 순회 공연, 북한강 축제 등을 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출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기금에 2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23) 고양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산의 비중이 12.65%로서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단체 보조금 지급 사업은 2%에 불과하다. 보조금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은 81%에 달한다.

경상비는 6%에 불과하다.

결국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상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유형이다.

<표 3-3-45> 고양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항		
550,863,000	문화예술 70,148,243	문화관리 9,069,940	경상비	181,025
			사업비	8,888,915
		문화재관리 245,655	경상비 민간이전	49,055 (26,800)
			사업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196,600 (122,800) (31,200) (31,600) (60,000)
			경상비 민간이전	382,255 (70,000)
			사업비	141,410
		문화센터건립 56,154,000	경상비	100,000
			사업비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56,054,000 (56,054,000)
		예술진흥 3,706,183	경상비 민간이전	3,427,268 (1,130,000)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278,915 (245,557)
		관광관리 448,800	경상비	51,350
			사업비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97,450 (364,750) (60,000)

* 관광관리는 제외 (출처 : 2005년도 고양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46> 고양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550,863,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69,699,443	
- 민간 단체 보조금 (C)	-1,563,557	2%
- 보조금 지원 사업 (D)	-56,422,357	81%
- 경상비 (E)	-4,139,603	6%
인구 수	893,965	
일반회계 대비 비중		12.65%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77,967원

출처 : 2005년도 고양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문화재단 출연금 73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561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고양어린이 나라,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을 위해 12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등 시설비가 매우 많다.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 22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행주얼지 발간, 전통선년지, 시조경창 대회, 효릉 봉양제, 경륜봉양제 등 11억원이 지출된다.

24) 광명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술의 비중이 2%로서 낮은 편이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도 5%로서 잔다.

반면 다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비율은 30%로서 높다.

그리고 경상비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배분하는 기능에 강조되는 유형이다.

<표 3-3-47> 광명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220,556,000	문화예술 4,401,942	문화관광 2,216,912	경상비 민간이전	355,122 (114,000)
			사업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1,861,790 (1,304,000) (110,000) (1,194,000)
		예술공연 1,367,289	경상비	1,211,859

출처 : 2005년도 광명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48> 광명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220,556,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4,401,942	
- 민간 단체 보조금 (C)	-224,000	5%
- 보조금 지원 사업 (D)	-1,304,000	30%
- 경상비 (E)	-1,566,981	36%
인구 수	333,053	
일반회계 대비 비중		2.00%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13,217원

출처 : 2005년도 광명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문화원과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화 예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리문화제, 유림회 등이 활동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미미하다.

25) 파주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술이 비중이 0.96%로서 매우 낮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26%로서 높다.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비율은 52%로 매우 높다. 그리고 경상비는 30%로서 높은 편이다. 결국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단체이다.

<표 3-3-49> 파주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308,122,000	문화관광 7,225,384	문화행정 2,187,887	경상비 민간이전	354,524 (152,360)
			사업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1,883,363 (1,498,463) (78,463) (1,170,000) (100,000)
			경상비 민간이전	536,320 (401,000)
		예술진흥 782,320	사업비 (보조사업비=민간이전)	46,000 (42,000)
			경상비 민간이전	147,212 (16,000)
		관광진흥 2,097,212	사업비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950,000 (1,654,000) (1,600,000)
			경상비	480,962
		도라산사업소운영 2,157,965	사업비 (보조사업비=시설비및부대비)	1,677,003 (650,000)

* 관광진흥과 도라산사업소 운영은 제외

출처 : 2005년도 파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50> 파주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308,122,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2,970,207	
- 민간 단체 보조금 (C)	773,823	26%
- 보조금 지원 사업 (D)	1,540,463	52%
- 경상비 (E)	890,844	30%
인구 수	423,073	
일반회계 대비 비중		0.96%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7,021원

출처 : 2005년도 파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파주시 합창단 운영비로 1억1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악한마당, 율곡서예대전, 서각전시회, 경기민요한마당, 관악합주단 등에 4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는 율곡문화제, 임진강 가요제 등에 3억1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26) 남양주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술 비중은 1.63%로서 낮은 편이다.

보조금 지급 사업은 26%로서 높은 편이다. 다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비율은 75%로서 매우 높다. 반면 경상비 지출은 7%이다.

결국 보조금을 지원받아 단체 보조도 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형이다.

<표 3-3-51> 남양주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항		
317,778,832	문화관광 9,032,843	문화예술운영 3,901,488	경상비	344,718
			사업비	3,556,770
			보조사업비	(2,690,000)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140,000) (2,550,000)
		문화재관리 1,288,423	경상비	34,323
			사업비	1,254,100
			보조사업	(1,204,100)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22,800) (1,181,300)
		관광진흥 3,842,932	경상비	62,311
사업비	3,780,621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6,000) (1,922,000)			

* 관광진흥은 제외 (출처 : 2005년도 남양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52> 남양주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317,778,832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5,189,911	
- 민간 단체 보조금 (C)	1,344,100	26%
- 보조금 지원 사업 (D)	3,894,100	75%
- 경상비 (E)	379,041	7%
인구 수	252,700	
일반회계 대비 비중		1.63%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20,538원

출처 : 2005년도 남양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풍양사진연구회, 사진작가 협회, 무용협회, 시인 협회, 극단 광대, 문인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등에 1억원이 지출된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는 신춘음악회, 찾아가는 문화공연, 송년 음악회 등에 1억6천만원이 지출된다.

문화의 집, 향토 사료관, 남양주 아트 센터 운영비 등에 3억 2천만원이 지출된다.

27) 수원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술의 비중이 4.09%로서 높은 편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비율은 12%이다. 비교적 재정이 탄탄하여 다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 경상비 비율은 40%로 높은 편이다. 자체 재원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표 3-3-53> 수원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항		
798,986,000	문화예술 21,389,845	예술문화 8,386,993	경상비 민간이전	7,976,793 (2,387,100)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210,200 (144,000)
		문화재관리 507,831	경상비 민간이전	372,873 (62,400)
			사업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134,958 (74,958) (46,958) (28,000)
			경상비 민간이전	346,391 (44,000)
		문화조성 12,495,021	사업비 (보조사업=시설비및부대비)	12,148,630 (8,287,000)
	경상비 (민간이전)		3,176,234 (769,500)	
	화성사업소	관리과 3,711,784	사업비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	535,550 (27,000) (315,200)
			경상비	1,257,145
		시설과 15,739,107	사업비 (보조사업)	14,481,962 (2,532,858)
경상비				

* 문화조성의 사업비중 사업예산(보조사업) 중 도서관 건립비 82억원은 제외

* 문화예술 중 화성사업소는 포함함

출처 : 2005년도 수원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54> 수원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798,986,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32,700,736	
- 민간 단체 보조금 (C)	3,769,158	12%
- 보조금 지원 사업 (D)	2,865,816	9%
- 경상비 (E)	13,129,436	40%
인구 수	1,042,132	
일반회계 대비 비중		4.09%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31,379원

출처 : 2005년도 수원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화성문화제, 수원시민의 날 등 행사 지원비에 4억1천만원이 지출된다.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원 등에 48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미술협회 수원지부, 무용경연 대회, 남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각종 음악회, 전시회 등에 2억4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사이의 규모로 많은 행사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예술제, 학술발표회, 가요제, 음악제, 경연대회, 등에 2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2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2004년에는 10억원이 지출되었다.

28) 광주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술의 비중이 1.1%로서 낮은 편이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49%로서 매우 높다. 다른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은 17%이다. 경상비가 41%이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주의 문화 사업을 하고 있다.

<표 3-3-55> 광주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항		
227,050,000	문화관광 7,005,066	문예관광진흥 6,419,926	경상비 민간이전	824,426 (800,676)
			사업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5,595,500 (4,645,500) (145,500) (4,500,000)
			경상비 민간이전	197,440 (137,000)
		문화재관리 531,140	사업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333,700 (293,200) (13,200) (280,000)
			경상비	24,000
		문예회관운영 54,000	사업비	30,000

* 문예관광진흥 중 사업예산(보조사업, 시설비) 중
도서관 건립비 4,500,000천원은 제외함

출처 : 2005년도 광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56> 광주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227,050,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2,505,066	
- 민간 단체 보조금 (C)	1,230,876	49%
- 보조금 지원 사업 (D)	438,700	17%
- 경상비 (E)	1,045,866	41%
인구 수	212,621	
일반회계 대비 비중		1.10%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11,782원

출처 : 2005년도 광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광주시민의 날 행사 및 남한산성 문화제에 대해서는 5억8천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 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29) 군포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술은 2%로서 낮은 편이다. 민간단체 보조금의 비율이 13%이다. 다른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은 7%이다. 경상비가 22%를 차지한다. 적극적인 사업이 없고 자체 재원으로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수준이다.

<표 3-3-57> 군포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 항		
166,417,000	문화체육 5,141,045	시정홍보 703,059	경상비	550,427
			사업비	152,632
		문예진흥 1,627,774	사업비	1,627,774
			보조사업	(247,200)
			민간이전	(127,200)
			민간자본이전	(120,000)
		청소년복지 1,371,807	경상비	128,975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1,242,832 (164,300)
		체육진흥 1,438,405		
			사업비	1,438,405
문화예술 1,701,495	문화예술회관운영 1,701,495	경상예산 (민간이전)	740,432 (170,000)	
		사업비	961,063	

* 시정홍보, 체육진흥, 청소년 복지는 문화활동의 연장이 아니어서 제외함

*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문화예술로 구분하고 있어 별도로 합산함

출처 : 2005년도 군포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군포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166,417,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3,329,269	
- 민간 단체 보조금 (C)	417,200	13%
- 보조금 지원 사업 (D)	247,200	7%
- 경상비 (E)	740,432	22%
인구 수	278,680	
일반회계 대비 비중		2.00%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11,947원

출처 : 2005년도 군포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시립여성합창단,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운영에 3억6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성년회, 수리문화예술제, 철죽동산 축제, 군포예총 각급협회 사업 등에 7억9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30) 과천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술의 비중은 2.72%로서 낮은 편이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37%로서 높은 편이다. 다른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은 11%로 그리 크지 않다. 경상비는 64%로서 매우 높다. 비교적 재정이 탄탄한 과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단체를 지원하면서 조그마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 경우로 평가된다.

<표 3-3-59> 과천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항		
153,499,000	문화관광 4,167,981	문화재관리 1,577,911	경상예산 민간이전	233,334 (50,000)
			사업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1,344,577 (355,757) (82,557) (140,000) (120,000)
		문예관리 2,590,070	경상비 민간이전	2,428,890 (1,179,063)
			사업비 (보조사업=민간이전)	161,180 (116,080)

출처 : 2005년도 과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60> 과천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153,499,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4,167,981	
- 민간 단체 보조금 (C)	1,547,700	37%
- 보조금 지원 사업 (D)	471,837	11%
- 경상비 (E)	2,662,224	64%
인구 수	68,641	
일반회계 대비 비중		2.72%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60,721원

출처 : 2005년도 과천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1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이전비로 11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로는 과천문화원(6천7백만원), 과천 향교, 중앙오페라단, 한뫼국악예술단, 어울림남성합창단, 민속보존회, 한국경기소리보

준회, 과천무용단, 우리춤 연구회등이 있다.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는 과천한마당 축제(2억원), 과천나무꾼 놀이, 주말 차없는 문화거리 축제, 통키타와 영화의 만남, 원소절 행사, 도당성 황제 등에 지원되고 있다.

31) 용인시 문화 예술 과목 구조

가) 예산 구조의 특징

문화 예술의 비중은 0.54%로서 매우 낮은 편이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75%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다. 다른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은 17%로서 낮은 편이다. 경상비가 81%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자체 재원을 동원하여 단체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표 3-3-61> 용인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항	세항			
636,193,000	문화예술 19,643,644	문화예술 18,680,138	경상비	2,730,554	
			민간이전	(2,223,622)	
			사업비	15,949,584	
			보조사업	(3,221,150)	
				민간이전	(138,000)
				시설비 및 부대비	(3,083,150)
		문화재관리 686,610	경상비	28,987	
			사업비	657,623	
			보조사업	(564,310)	
			민간이전	(324,310)	
		민간자본이전	(240,000)		
관광진흥 276,896	경상비	186,896			
	민간이전	(40,000)			
	사업비	90,000			
		(보조사업=시설비및부대비)	(50,000)		

- * 문화예술 중 사업비(보조사업, 시설비) 중 도서관 건립비 3,000,000천원은 제외함
- * 문화예술 중 사업비(자체사업) 중 교육기관보조금 10,820,000천원도 제외함
- * 관광진흥은 제외 (출처 : 2005년도 광명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표 3-3-62> 용인시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의 규모	636,193,000	
문화 예술관련 예산 규모	3,417,164	
- 민간 단체 보조금 (C)	2,547,932	75%
- 보조금 지원 사업 (D)	564,310	17%
- 경상비 (E)	2,759,5417	81%
인구 수	649,577	
일반회계 대비 비중		0.54%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		5,261원

출처 : 2005년도 용인시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나) 주요 사업의 특징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로만 2억7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3.1 운동탑 건립을 위해 14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각종 단체 보조금과 행사 지원비로 22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제 3 절 문화 관련 예산 규모의 특징 비교 분석

1. 예산규모의 특징 비교

(1) 예산의 절대 규모

문화 관련 예산의 절대액으로 보면 크게 3개의 분류로 유형화된다.

첫째는 고양시 700억, 성남시 593억, 수원시 327억원 등과 같이 인구도 많고 예산 규모가 큰 경우에 매우 높게 나타난다.

둘째는 안산, 부천, 시흥, 안양, 포천, 양주, 하남, 의정부 등과 같이 50억 내외의 수준을 갖는 자치단체이다. 이런 시의 경우 관심은 있고 문화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셋째는 평택, 동두천, 김포, 구리, 의왕, 가평, 파주, 군포, 과천, 용인 등과

같이 30억 내외의 수준을 갖는 지역이다. 이런 시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문화 관련 사업이 발굴되지 않거나 관심이 적은 지역이라고 평가된다.

(2) 일인당 문화 예산의 규모

문화 관련 예산의 절대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일인당 문화 예산의 규모를 비교해보는 것은 별도의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인구가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인당 문화 관련 예산이 5만원 이상이 되는 지역은 성남, 양주, 하남, 고양, 과천시, 연천군이다. 성남, 고양처럼 비교적 예산이 규모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만 상대적으로 부천, 수원 등의 지역이 빠진다. 그리고 양주, 하남, 연천 지역의 일인당 문화 예술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2만원에서 5만원 이하의 중간 수준으로는 안성, 안산, 이천, 양평, 여주, 시흥, 오산, 동두천, 남양주, 포천, 가평, 수원 등이 포함된다. 비교적 문화 관련 예산 지출에 대한 관심은 있는 지역으로 평가될 수 있다.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의 지역은 화성, 부천, 안양, 의정부, 의왕, 광명, 광주, 군포 등이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만원의 이하의 지역으로는 평택, 김포, 구리, 파주, 용인 등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의 사업을 확대가 필요하다.

3) 규모의 편차

지역별로 예산 규모를 비교해보면 Z 값의 경우 +이면 평균치 보다 큰 경우이고, -이면 작은 경우이다.

이에 의하면 성남, 고양, 수원의 경우 이 이상이다. 이들 지역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에 해당되는 지역은 안산, 부천, 안양, 양주, 등 4개 지역이다. -에 해

당되는 지역은 남은 24개 지역이다.

이는 성남, 고양, 수원의 규모가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사업의 구성

(1)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많은지 다른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많은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향후 문화 관련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편입되어 포괄적으로 교부되는 경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사업이 부족할 경우 문화 관련 예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쟁점이다.

이에 의하면 50% 이상이 되는 지역으로는 김포, 포천, 구리, 의왕, 광주, 용인 등이 해당된다.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의존적인 사업이 많은 것이다.

반면 10% 이하로는 안산, 양평, 여주 성남, 부천, 안양, 오산, 연천, 양주, 하남, 고양, 군포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타 지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재원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가능하다. 한편 또 다른 극단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재정력이 미약한 지역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지원을 통한 보조금 사업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즉 적극적인 사업의 의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중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사업

문화 관련 예산의 경우 특히 민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지원금 보조 사업이 많다. 자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칫 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5백만원 내외의 작은 행사지원비가 그러하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사업이 50%에 달하는 지역으로는 안성, 양평, 여주, 시흥, 연천, 양주, 하남, 고양, 파주 남양주 등이 해당된다.

10% 이하의 지역으로는 성남, 포천, 의정부, 가평, 광명, 수원, 군포 등이다. 이들 지역은 다시 극단적인 두 가지의 해석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민간단체 보조금 보다는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는 문화 예산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 지급 사업조차 별다른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3) 경상경비 비율

경상경비는 투자비와 구분된다. 경상비가 많다는 것은 투자비보다 유지관리비가 행사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비가 50%를 넘는 지역은 안산, 평택, 김포, 과천, 용인 등이다.

반면 경상비가 10% 이하인 지역은 양평, 성남, 시흥, 오산, 연천, 하남, 의왕, 가평, 고양, 남양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 관련 건물을 건축하거나 시설 관련 사업이 많은 지역이다.

3. 문화관련 예산 지출의 지역별 특성의 유형화

이상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역별로 문화 관련 예산지출의 유형화가 도출 가능하다. 그것은 재원의 충당과 관련하여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하는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지로 구분된다.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지, 자체 사업을 주로 하는 지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은 자체 재원으로 자체 사업을 주로 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에는 매우 극단적인 유형이 포함될 수 있다. 하나는 재정이 매우 탄탄하여 자생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니면 문화관련 예산이 매우 미미하여 외부의 지원을 유도할 관심도 없고 자체적인 적은 예산으로 적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자체재원으로 보조금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있으나 자체적으로 문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단체 행사 보조금에 충당하는 소극적인 지역이 해당된다.

셋째는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그나마 자체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지역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있지만 재정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보조금의 재원에 의존하면서 주로 민간단체의 행사 보조금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문화 관련 사업을 지역에서 제대로 구상하지 못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구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문화 관련 예산에 자체 재원으로 많은 지출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4가지의 유형화는 재정 지출에 따른 상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계산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동태적인 사업을 읽어내지 못할 우려는 있다.

그러나 최소한 모든 사업이 예산으로 반영된다고 할 때 예산의 세입 구조와 세출 구조를 통해 분류한 이러한 유형은 향후 재정 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4> 문화 관련 예산 지출의 지역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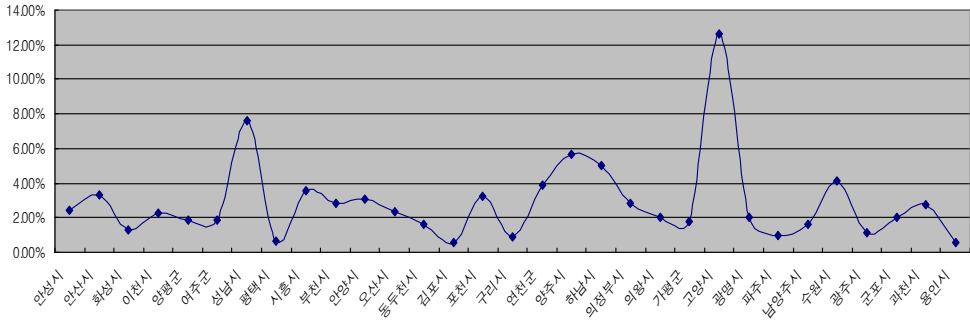
		세출의 유형	
		자체 사업	보조금 지출
세입의 유형	자체 자원	1 유형 성남, 부천, 안산, 화성, 이천, 안양, 동두천, 의정부, 고양, 수원, 군포	2 유형 여주, 시흥, 오산, 연천, 양주, 하남, 고양, 파주, 남양주, 과천
	보조금 의존	3 유형 양평, 포천, 의왕, 가평, 광명, 광주, 용인	4 유형 안성, 평택, 김포, 구리,

<표 3-5> 시군별 문화관련 예산의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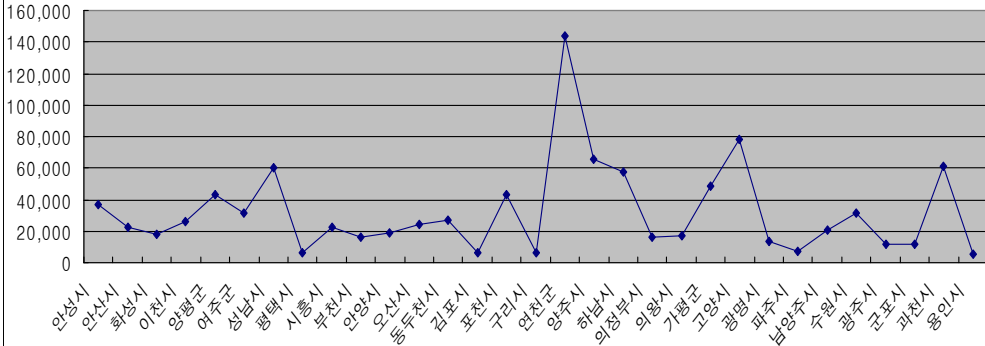
시군	일반회계 (천원)	문화예산 (천원)	인구 (명)	예산중 문화 예산 비중	일인당 문화예산 (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비율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사업비율	강령비 비율	문화예산 (%포인트)
안성시	233,916,919	5,757,748	156,839	2.46%	36,711	32%	48%	33%	- 0.28
안산시	467,172,823	15,391,821	686,873	3.29%	22,409	2%	16%	62%	0.33
화성시	362,304,000	4,814,649	268,736	1.33%	17,916	24%	27%	23%	- 0.34
이천시	220,118,650	4,986,159	192,725	2.27%	25,872	11%	15%	32%	- 0.33
양평군	192,147,000	3,650,890	85,242	1.90%	42,830	3%	85%	1%	- 0.41
여주시	172,558,000	3,272,300	105,006	1.90%	31,163	8%	52%	19%	- 0.43
성남시	783,989,000	59,342,372	986,170	7.57%	60,175	0%	2%	10%	3.12
평택시	375,810,750	2,401,270	378,073	0.64%	6,351	23%	42%	57%	- 0.49
시흥시	249,219,880	8,798,810	390,933	3.53%	22,507	3%	75%	1%	- 0.08
부천시	486,939,221	13,743,718	864,501	2.82%	15,898	7%	13%	44%	0.23
안양시	383,156,953	11,691,602	625,197	3.05%	18,701	1%	33%	48%	0.10
오산시	127,887,272	3,027,280	122,784	2.37%	24,655	7%	2%	10%	- 0.45
동두천시	134,657,000	2,151,704	81,117	1.60%	26,526	18%		21%	- 0.50
김포시	219,855,000	1,327,736	216,689	0.60%	6,127	64%	43%	53%	- 0.56
포천시	210,156,216	6,781,482	158,487	3.23%	42,789	49%	9%	35%	- 0.21
구리시	143,323,715	1,226,430	194,346	0.86%	6,311	71%	45%	34%	- 0.56
연천군	180,368,000	7,079,123	49,361	3.92%	143,415	6%	83%	10%	- 0.19
양주시	182,926,228	10,431,787	159,891	5.70%	65,243	5%	83%	12%	0.02
하남시	150,387,338	7,541,192	131,565	5.01%	57,319	4%	91%	5%	- 0.16
의정부시	236,600,000	6,608,080	400,018	2.79%	16,519	15%	4%	22%	- 0.22
의왕시	118,347,444	2,440,164	146,595	2.06%	16,646	65%	6%	1%	- 0.49
가평군	151,239,000	2,690,536	55,262	1.78%	48,687	40%	7%	5%	- 0.47
고양시	550,863,000	69,699,443	893,965	12.65%	77,967	2%	81%	6%	3.78
광명시	220,556,000	4,401,942	333,053	2.00%	13,217	30%	5%	36%	- 0.36
파주시	308,122,000	2,970,207	423,073	0.96%	7,021	26%	52%	30%	- 0.45
남양주시	317,778,832	5,189,911	252,700	1.63%	20,538	26%	75%	7%	- 0.31
수원시	798,986,000	32,700,736	1,042,132	4.09%	31,379	12%	9%	40%	1.43
광주시	227,050,000	2,505,066	212,621	1.10%	11,782	49%	17%	41%	- 0.48
군포시	166,417,000	3,329,269	278,680	2.00%	11,947	13%	7%	22%	- 0.43
과천시	153,499,000	4,167,981	68,641	2.72%	60,721	11%	37%	64%	- 0.38
용인시	636,193,000	3,417,164	649,577	0.54%	5,261	75%	17%	81%	- 0.42

출처 : 2005년도 31개 시군 세입세출예산안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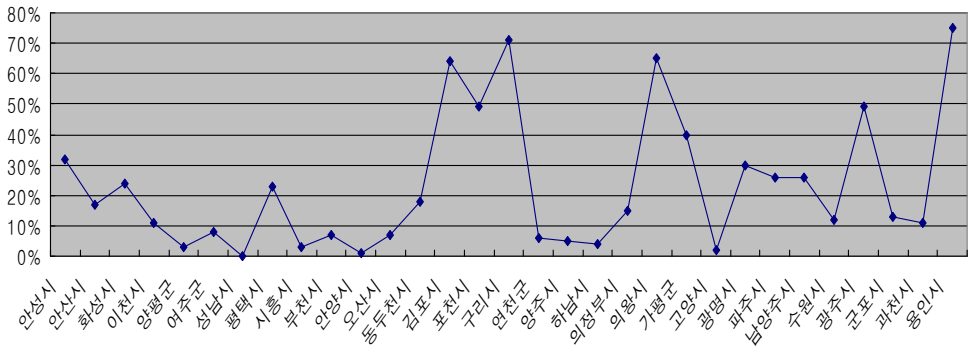
예산중 문화예산 비중



1인당 문화예산



보조금받아서 집행한 비율



제 4 장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 관련 예산 지출의 문제점

제 1 절 예산 사업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 관련 예산 집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컨텐츠의 부족

문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이 개발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역적 문화 자산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지만 이는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문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적 문화 컨텐츠가 사업 예산으로 연계되는 노력이 부족하다.

2.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지역별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사업이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이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다.

지역별로 3백만원 - 5백만원 정도의 자금을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경우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특히 주기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예술단, 교향악단의 운영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술단이나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지역이 있다.

평택, 용인, 의정부, 파주, 군포, 구리, 양주, 하남, 시흥 등에서는 1억 이하

의 작은 규모로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예술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평택 2억, 포천 6억 등 중규모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구성된 지역도 있다. 과천 10억, 안양 17억, 고양 22억, 안산 31억, 성남 44억, 부천 47억 등이 그러하다.

지역의 동아리 활동이 확대된 수준이 아니라 전업으로 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등이 구성된 경우에는 활동이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즉 직접 이러한 공연단을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첫째, 경기도 여러 지역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비를 지원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일정을 조정하여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럴 경우 소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고 경비도 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각종 공연단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에서 직접 이러한 공연단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비용이 커질 위험이 있다.

둘째 보다 적극적으로 아웃 소싱(outsourcing) 하는 방안도 있다. 경비 지출대비 연주 횟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동아리 활동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연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경제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동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웃 소싱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칫 지방화 시대에 문화 관련 사업을 지역별로 PIMFY(Please In My Front Yard)에 의한 할거주의로 낭비적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시설투자비의 확대

문화 관련 지출이라고 하면 대체로 행사비를 생각하기 쉽다. 특히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제 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지역별로 역사적 배경과 지역적 정서를 근간으로 한 시설 투자비 그리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출도 필요하다.

5. 공연장, 문화의 집 활용

지역별로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시설 인프라라고 하는 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프라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지역별로 외형만 번듯한 공연장만 건설되고 있을 뿐이고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 2 절 문화 인프라 구축의 노력

문화관광부는 지역문화정책의 강화를 위해 지역별 문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4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이 해당된다,

전국적 분포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문제는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으로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면적도 가장 넓다. 즉 근접성에서 보면 지역 주민의 토착화된 문화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 인프라의 구축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문제는 경기도의 개별 시군별로 보면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이러한 문화 시설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문화시설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문화 양극화가 발생하기 않도록 경기도 전체적으로 문화 인프라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표 4-1> 전국 문화 인프라 구축의 총괄표

(2004.12.31 기준)

시도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 예 회 관	문 화 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박물관				미술관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계	1,170	487	250	223	14	397	328	101	133	94	69	15	52	2	132	154
서울	185	44	16	22	6	104	84	15	45	24	20	1	19	0	7	30
부산	43	24	10	12	2	12	9	2	0	7	3	1	1	1	4	3
대구	27	13	0	12	1	6	6	1	2	3	0	0	0	0	7	1
인천	23	11	3	8	0	6	3	1	1	1	3	0	3	0	5	1
광주	30	12	7	5	0	11	7	3	0	4	4	1	2	1	4	3
대전	35	15	13	2	0	15	13	4	3	6	2	1	1	0	2	3
울산	13	5	1	4	0	1	1	0	0	1	0	0	0	0	2	5
경기	174	70	59	8	3	68	55	15	31	9	13	1	12	0	19	17
강원	79	39	17	22	0	19	17	8	4	5	2	1	1	0	12	9
충북	57	25	10	15	0	18	15	5	4	6	3	1	2	0	7	7
충남	81	38	19	19	0	27	23	7	11	5	4	0	4	0	9	7
전북	81	36	18	17	1	19	16	6	4	6	3	2	1	0	12	14
전남	84	44	25	19	0	16	11	5	4	2	5	2	3	0	14	10
경북	109	51	23	28	0	33	31	14	6	11	2	0	2	0	14	11
경남	101	42	18	24	0	27	25	12	10	3	2	2	0	0	13	19
제주	48	18	11	6	1	15	12	3	8	1	3	2	1	0	1	14

<표 4-2> 경기도 시 · 군 · 구별 문화기반시설
(명, %, 개소)

시·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 회관	문화의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경기(31)	70	59	8	3	68	16	43	9	19	17
수원시	6	3	1	2	2			2	1	
성남시	5	4	1		2		2			3
의정부시	1	1			-				1	
안양시	4	4			-				2	
부천시	5	4		1	5	4	1		1	1
광명시	2	2			1		1			1
동두천시	1	1			1	1				
안산시	3	3			1	1			1	
과천시	2	1	1		4	1	3		1	1
구리시	2	2			-					
평택시	3	2	1		-				3	1
오산시	1	1			1			1	1	1
시흥시	2	2			1		1			
군포시	3	3			-				1	
의왕시	1	1			1	1				1
하남시	1	1			1	1				1
고양시	5	5			3		3		1	
남양주시	2	2			2		2			1
양주시	1	1			1		1		1	
여주군	2	1	1		11	2	9			
연천군	1	1			-					
포천군	1		1		1	1			1	
가평군	1	1			-				1	1
양평군	1	1			-				1	1
이천시	2	2			4	1	2	1		1
용인시	2	2			13	1	10	2	1	
파주시	3	3			2		2			
안성시	1	1			2	1		1		
김포시	2	1	1		1		1			1
화성시	3	3			2			2		2
광주시	1		1		5		5		1	

제 3 절 지역축제의 현황 및 예산

1.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축제의 분포

문화관광부가 전국의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지역축제는 총 591개로 파악되었으나, 실제로 개최되고 있는 중·소규모의 행사를 합하면, 약1,00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50개 이상의 축제를 개최한 지자체는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로 조사된 바, 이것은 도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축제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축제의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세시풍속행사와 문화예술제 축제는 감소하는 반면에 “문화관광축제”가 증가하고 있다.

<표 4-3>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축제의 분포

지역	축제빈도	백분율	강원	60	10.2
서울	24	4.1	충북	20	3.4
부산	35	5.9	충남	41	6.9
대구	9	1.5	경북	72	12.2
인천	17	2.9	경남	93	15.7
광주	10	1.7	전북	70	11.8
대전	17	2.9	전남	35	5.9
울산	17	2.9	제주	27	4.6
경기	44	7.4	합계	591	100.0

[자료: 문화관광부]

나. 개최시기별 축제의 분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업으로 삼아왔으며, 대부분의 축제는 수확과 결실의 결실인 10월에 172개 정도가 열리며 이것은 전체 축제의 30%에 해당된다.

농사를 시작하는 4,5월에는 142개 정도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10월과 4,5월에 축제가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다.

<표 4-4> 개최시기별 축제 분포

시기	빈도	백분율	시기	빈도	백분율
1월	31	5.2	8월	51	8.6
2월	38	6.4	9월	53	9
3월	24	4.1	10월	172	29.1
4월	76	12.9	11월	11	1.9
5월	66	11.2	12월	20	3.3
6월	25	4.2			
7월	24	4.1	합계	591	100.0

[자료: 문화관광부]

다. 예산규모에 따른 지역축제의 분포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만원 미만이 소용되는 곳이 230곳이고,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용되는 곳은 128곳으로, 절반이상이 1억원 미만의 예산으로 축제가 치루어지고 있다.

<표 4-5> 예산규모에 따른 축제 분포

예산규모	빈도	백분율	비고
5천만원미만	230	38.9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128	21.6	
1억원이상~3억원미만	154	26.1	
3억원이상	70	11.8	
기타	9	1.5	
합계	591	100.0	

[자료: 문화관광부]

라. 예산 지원 현황

2001. 7. 23. 문화관광부는 지역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인삼, 도자기, 김치, 태권도와 같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 2~3개 축제를 선정, 2005년까지 분야별 5개년 육성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육성프로그램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판로확장을 위한 축제의 브랜드 가치 제고방안, 상품의 신뢰성을 기초로 축제테마 품질관리 방안, 해외상품화를 위한 해외홍보마케팅 강화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축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광국에서는 1998년 18건 662백만원, 1999년 15건 540백만원, 2000년 26건 1,650백만원을 지원했다.

<표 4-6> 문화관광축제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1998	1999	2000	합계
지원 건수	18	15	26	59
지원 금액	662	540	1,650	2,852

[자료: 문화관광부]

한편 문화관광부 예술국에서는 전국의 향토축제, 특정행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너무 미약하다. 지역민속축제진흥방안계획을 세워 축제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축제기획자의 자질향상을 통한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축제를 2개씩 선정하여 각종지원을 확대하여 축제를 특화시키고, 축제기획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해외우수축제의 경우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 4-7> 향토축제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1998	1999	2000	합 계
지원 건수	1	1	5	7
지원 금액	21	14	16	51

[자료: 문화관광부]

<표 4-8> 특장행사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1998	1999	2000	합 계
지원 건수	15	15	15	45
지원 금액	45	45	45	135

[자료: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매년 지역축제 중에서 우수기획문화축제와 종합예술제특장행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4-9> 우수기획문화축제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1998	1999	2000	합 계
지원 건수	8	15	16	39
지원 금액	20	215	270	505

[자료: 문예진흥원]

<표 4-10> 종합예술제특장행사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1998	1999	2000	합 계
지원 건수	14	17	17	48
지원 금액	94	107	101	302

[자료: 문예진흥원]

2. 문제점

세계관광이 흐름이 종래의 보는 관광에서 문화체험 위주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관광 육성 측면에서 관광축제를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여러 곳에서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특성 없는 축제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

가. 축제 개최 목적 불분명

축제는 지역의 주민들이 화합하고 전통을 계승하며, 외래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축제가 관광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문화인

류학자들이 말하는 무대화된 고유성(staged authenticity), 즉 문화의 지나친 상품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강화되어 지역문화의 파괴와 지역주민과 관광객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축제가 개최목적이 불분명하고, 일회성·소비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나. 축제내용의 세계화 및 질적 수준의 문제

국제적인 행사가 반드시 축제의 세계화를 뜻하지 않는다.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축제가 국제적이거나 세계화를 의미한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축제가 일년에 한 두 개씩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축제는 내용의 독창성과 질적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양적인 참여의 폭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축제라도 졸속으로 진행되고 알맹이가 없으면 세계적인 축제로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축제의 내용이자 질적 수준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p>☞ 우리나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p>
<p>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외국 탈춤패 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므로써 축제의 세계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단순한 양적 개념을 성취효과로 파악하는 모순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함.</p>
<p>☞ 외국의 “리우 카니발”, “뮌헨 맥주축제”</p>
<p>삼바춤으로 유명한 “리우 카니발”이나 맥주를 매개로 각종 이벤트를 벌이는 “뮌헨 맥주축제”는 국제 카니발이나 세계 축제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독창성과 질적 내용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획득하고 있음</p>

다. 축제 개최시기의 계절적 집중

우리나라 전통 축제는 정월보름, 단오, 추석에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축제의 대부분이 4,5, 10월에 집중되어 있다.

라. 축제장소 및 공간활용의 비효율성

도심의 공간확보가 어려워 접근성이 어려운 도심의 외곽지나 전통의 현장을 무시한 학교운동장, 공원, 실내체육관 등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의 접근성이 부족하고 축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마. 축제관련 전문인력 양성미흡

축제관련 행정기관의 전문성 미약으로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각종축제의 창의성과 기획력이 미약하고, 기본골격 외에는 대부분의 행사내용을 민간업체, 즉 벤트회사에 일임함으로써 축제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역의 폐쇄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지역축제를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지 못하고 해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만 되풀이되고 있다.

바. 축제의 관광상품화 마인드 부족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마인드 부족으로 행사안내(행사장 프로그램 안내, 교통편, 홍보 등)가 미약하고, 축제의 기본요건의 하나인 배울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미흡하다.

현대의 관광문화는 과거의 정적 중심에서 체험위주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도 고객중심적사고로 전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관광패턴의 변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마인드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 다양한 분야·계층의 의견수렴 미흡

대부분의 축제가 관주도에 의해 발생되어 축제로서의 자생성이 미약하며,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축제가 되어 주민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축제의 민간주도라는 명분에서 출발된 축제관련위원회 등은 대부분 축제와 무관한 토착유지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장르와 시민정서를 고려하기보다는 주최측 또는 이해관계자 몇 사람의 관심있는 특정분야의 기획과 전문성을 내세운 이벤트 회사의 손쉬운 영리 목적의 기획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아. 축제관련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미흡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는 대부분 지방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외래관광객들을 축제로 유인하기 위한 교통접근성 불리, 숙박시설 부족 등 관광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 외래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흡입요인이 빈약하다.

국정홍보처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관광 관련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관광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외국관광객의 수용태세의 미비(53.3%), 부족한 문화관광 자원(24.8%),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16.2)등으로 나타난 점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 관광객현황을 분석해보면, 전체관광객중 외국인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2.4%, 1999년 2.9%, 2000년 1.4%, 2001년 7월 현재 1%에 불과하다.

<표 4-11> 문화관광축제 외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명, %)

구 분	1998	1999	2000	2001.7
총 관광객	5,533,983	6,348,701	11,699,181	3,868,410
외국인 관광객	132,760	184,099	161,843	37,236
외국인 비율	2.4	1.9	1.4	1

자. 지역축제가 대부분 관주도의 행사로 진행

축제를 주최하는 기관 대부분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고 있었고, 형식적으로는 지역민 중심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관주도의 행사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차. 주민이 없는 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

상당부분의 지역축제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판단과 의도에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행사의 처음에서 끝까지 관 주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형식성을 Elf 수밖에 없었고 지역민은 참여가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었다.

파.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이 해당지역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고 중복적으로 개최

어느 지역이나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축제의 제목가지도 유사하여, 지역축제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지역축제로서 지녀야 할 지역적 독창성이 매우 부족하다.

최근 비엔날레라는 이름을 가진 축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나 각 자치단체가 무슨무슨 영화제 개최를 위해 앞 다투고 있는 현상을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타. 단체장의 즉흥적이고 선심성 행사로 예산의 낭비가 심하여 지방재정 위기의 한 원인

지역축제가 체계적인 사전조사와 장기적인 계획수립 하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단체장의 즉흥적인 발상으로 예산의 낭비가 심했으며 축제종료의 엄정한 평가와 환류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다.

파. 엄청난 규모의 지방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재정에 대한 투자심사 기능을 소홀

열악한 지방의 살림규모를 가지고 치르는 행사임에도 재정투입에 대한 절감의지나 어떻게 하면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매우 미약했다.(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목표달성분석, 재무분석 등)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축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지역살림을 어렵게 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현상도 볼 수 있었다.

제 5 장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 관련 예산 지출의 발전 방향

제 1 절 문화 관련 예산 지출의 개선의 방향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은 문화 관련 예산은 크게 3가지의 방향에서 지출되고 있었다.

첫째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이에 대한 매칭 펀드(matching fund)로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수반되어 지출되는 것이다. 종래 우리 지방행정을 '천수답 행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농민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듯이 중앙정부가 지시공문을 보내면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행의 연장에서 문화 관련 사업에서도 중앙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먼저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면 이에 근거하는 지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다. 이는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문화 사업을 하면 이에 대한 행사지원금을 지출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자치단체의 문화 정책의 정향에 적합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단체의 표를 의식하여 지원된다는 선심성 행정의 논란이 있기도 하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예산 집행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 방향에 맞추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 2 절 예산 지출의 방향

1. 참여를 통한 자체적인 사업의 구성

계획, 사업, 예산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흔히들 계획 없는 예산은 낭비이고, 예산 없는 계획은 허구라고 한다. 지역의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정립해야 한다.

문화 예산과 관련하여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의 토착화된 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이다. 경기 도민은 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문화 행사 참여도와 만족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문화 경기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주민 참여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경기도민은 개개인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넘어, 다른 사람의 문화적 욕구를 느끼고, 다같이 즐기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갈수가 있다.

2. 투자비의 확대

문화 예산의 경우 경상경비 지출의 비중이 높다. 주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나 행사 보조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투자비 내지 자본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이 있어야 주민이 모이고 또한 여기에 콘텐츠를 담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의 전제는 커다란 건물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투자비의 지출에서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 활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의 경우 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범위를 잘 선정하여 지역간 협력 체계를 통해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화가 심화됨에 따라 혐오시설의 공동 유치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호시설의 공동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성과 평가의 환류

지금은 다양한 문화 사업이 일회성의 이벤트라는 비판이 많다. 그것은 지출만 있고 이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관행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향후 문화 관련 예산 지출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축제 행사를 했으면 몇 명이 참여했고, 이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는 어떠한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을 지출했으면 이 행사의 결과 몇 명이 참여했고, 호응도는 어떠한가를 평가해야 한다. 작년에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올해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성과를 평가하여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하는 평가가 환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 내지 평가의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제 3 절 문화 관련 지출의 법적 근거 마련

일회성, 전시성 문화 행사를 극복하고, 도민의 참여 속에 문화 정책을 생산, 추진하고, 도민의 문화 창작,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예산의 집행도 보다 예측 가능한 집행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한편으로 지자체의 문화 관련 조례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장치로서 지자체의 문화 관련 정책 의지를 알 수 있다.

문화 관련 조례를 ① 문화예술진흥조례 ② 지원조직(재단,위원회 등) ③ 기금 ④ 시설기관관련 ⑤ 각종 시상 ⑥ 지역축제 ⑦ 예술단 등 지원 ⑧ 기타 조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할 수 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문화 관련 조례 현황은 <표 5-1>과 같다. 총 261개의 문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문화관련 기관, 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0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상 등 각종 포상”, “예술단 등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6, 25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문화 정책 전반에 대한 “문화예술진흥조례”는 경기도 본청과 파주시 두 곳에서 제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분야별, 시설별로 필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다. 예를 들어, 수원은 화성관련 조례가 4개, 규칙이 1개가 제정되어 있고, 안성의 경우 남사당과 관련한 조례가 4개 제정되어 있다. 이천의 쌀문화 축제, 연천군의 구석기 축제 등 지역 특징에 따른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문화관련조례에는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경기문화 발전을 위해 아래 6개의 규정을 제안한다.

6개의 규정은 ① 시민참여형 지역 문화 정책 개발, 추진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위원회 관련 규정과 ② 풀뿌리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단위인 문화예술소모임 지원 규정 ③ 지역 개발, 정책 추진과정이 지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지닌 문화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④ 지역 문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평가를 진행하는 시민모니터링단 관련 규정 ⑤ 지역내 유, 무형 문화재(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보

존을 위한 문화재 모니터링 관련 규정 ⑥ 지역내 문화 자산(유산)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활동을 하는 다양한 문화유산해설사(안내자) 관련 규정이다.

<표 5- 1> 문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조례/규칙)²¹⁾

		진흥 조례	지원조직- 문화재단 (예술) 위원회 사업소등	기금 관련	기관시설 관련 청소년 문화센터, 문화의집, 전수회관, 도서관등	각종 시상	지역 축제	예술단 등지원 조례	기타 (문화거리, 문화재,세 계유산등)	개수 (조례/ 규칙)
1	경기도	1/1	2/1	0	7/5	4/2	1/0	1/1	1/1	17/11
2	수원시	0/0	0/0	1/0	5/4	1/1	0/0	1/1	4/0	12/6
3	성남시	0/0	1/0	1/1	2/2	1/1	0/0	1/1	2/2	8/7
4	의정부시	0/0	0/0	1/0	2/1	1/1	0/0	1/1	2/0	7/3
5	안양시	0/0	2/1	1/0	3/3	1/0	1/0	1/1	3/1	12/6
6	부천시	0/0	2/0	1/1	1/2	1/0	0/0	1/1	5/1	11/5
7	광명시	0/0	1/0	1/0	2/1	0/0	0/0	1/1	2/0	7/2
8	평택시	0/0	0/0	0/0	4/1	1/1	0/0	0/0	4/0	9/2
9	동두천시	0/0	0/0	0/0	2/2	0/0	0/0	1/1	3/0	6/3
10	안산시	0/0	0/0	1/1	6/4	1/1	0/0	2/1	2/0	12/7
11	고양시	0/0	1/0	0/0	1/1	1/1	0/0	1/1	4/2	8/5
12	과천시	0/0	1/0	0/0	2/1	0/0	0/0	1/2	4/0	8/3
13	구리시	0/0	0/0	1/1	2/1	0/0	0/0	0/0	2/0	5/2
14	남양주시	0/0	1/0	0/0	2/2	1/1	0/0	1/0	4/0	9/3
15	시흥시	0/0	0/0	1/0	2/1	1/1	0/0	2/1	2/0	8/3
16	군포시	0/0	0/0	1/0	4/3	0/0	0/0	1/1	3/0	9/4
17	의왕시	0/0	0/0	0/0	2/2	0/0	1/1	0/0	2/0	5/3
18	하남시	0/0	0/0	2/0	2/2	1/1	0/0	1/1	2/1	8/5
19	용인시	0/0	0/0	0/0	3/2	1/1	0/0	1/1	2/1	7/5
20	파주시	1/1	0/0	0/0	2/1	1/1	0/0	1/1	3/1	8/5
21	이천시	0/0	0/0	1/0	3/2	1/1	2/0	0/0	2/0	9/3
22	안성시	0/0	0/0	1/1	7/5	1/1	1/1	1/1	2/1	13/10
23	김포시	0/0	0/0	1/0	3/2	1/1	0/0	2/2	4/0	11/5
24	화성시	0/0	0/0	0/0	4/2	1/1	0/0	0/0	2/1	7/4
25	광주시	0/0	0/0	0/0	1/1	1/1	0/0	0/0	3/0	5/2
26	양주시	0/0	0/0	0/0	3/2	1/1	0/0	1/1	2/0	7/4
27	포천시	0/0	0/0	1/1	0/0	1/1	0/0	0/0	2/0	4/2
28	여주군	0/0	0/0	1/0	4/2	1/1	0/0	0/0	0/0	6/3
29	연천군	0/0	1/0	0/0	1/1	1/1	0/0	1/0	3/0	7/2
30	가평군	0/0	0/0	1/0	4/3	0/0	0/0	0/0	2/1	7/4
31	양평군	0/0	0/0	1/0	4/2	0/0	1/0	1/0	2/0	9/2
	계(%)	2/2	12/2	19/6	90/63	26/22	7/2	25/21	80/13	261/131

출처 : 지방행정정보은행(LAIB) 홈페이지

제 4 절 지역축제의 향후 발전방향

1. 지역 축제의 의미와 방향

가. 주민참여형 축제

지역축제의 발전방향으로는 먼저 자치단체와 시민화합형 축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주민이 주도적 위치에서 축제의 계획, 운영, 평가과정까지 참여함으로써 축제의 근본목적을 살리면서도 주민이 축제의 주최자가 되는 새로운 축제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축제의 주인은 주민인 만큼 지역민의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단체장의 업적추진용 축제행사에 주민이 들러리가 되는 일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

나. 문화적 이미지 계승 발전

현대의 축제는 전통적 사실이나 사건, 인물이나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이미지를 유형의 것으로 형상화 하는데서는 성공하였으나 그 이상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가 형상화되어 축제가 열릴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와 상관없이 뭔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역의 민요나 구전 등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흥겹고 독특한 축제음악을 만들어내고

-
- 21) ① 청소년 관련 시설 중 문화의집과 문화센터, 문화의 거리는 포함하였으나, 수련관, 체육시설은 제외하였고, 또한 박물관과 시민회관 관련 조례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였음.
- ② 문화상, 역사 편찬, 지명(도로명)관련, 시민상(으뜸이) 관련 조례는 대부분의 시군에 있음. 이 중 지명과 역사(시사,도사) 편찬 관련 조례는 위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음.
- ③ 경기도와 과주시의 경우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기금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기금관련 조례가 없음.

거기에 울동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음악과 울동만 있으면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참여하여 즐기게 함으로써 참여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지역사랑'이라는 감상적인 태도에 의한 복원 결과로서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 치루기에 급급하여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은커녕 그 동안 가졌던 지역민들의 관심마저 멀어지게 하는 역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복원과 재현문제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축제를 군민주도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크고 비중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시민주도의 지역축제를 열기위한 지역역량의 구축이다. 지역민주도의 공청회나 학술세미나를 자치단체에서 주최하여 시민주도의 지역축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축제에 필요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이다. 사실적으로 민간주도의 지역 축제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축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힘든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에서 축제진행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제반사항을 행정적으로 해결하여줌으로써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재정 후원자로서의 역할이다. 지방예산의 지원은 절감이나 합법성 측면의 접근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재정의 효율성에 관심을 높여 나가야 하며, 재정집행에 대해서도 행사추진위에 자율성을 대폭 주고 투명성 확보도 민주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도적 보완에 주력해야한다

넷째는, 질서유지 및 구급대책이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많은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와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라. 지역축제에 경영마인드 도입

축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촉진시키는 주요용인이 되는 방안을 강

구해야 한다. 민선자치출범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새로운 지역축제를 생성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다소라도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한 시도로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축제는 어찌됐던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경쟁력 없는 축제는 남발로 얼마나 많은 지방재정력이 소모되고 얼마나 많은 지역민들의 노력이 헛되어 동원되어야 하는가를 자문해 보면서 경쟁력 없는 축제들은 과감히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축제는 그로 인해 파급효과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파급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계관광을 실시해야 하며, 지자체가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연계축제를 시행하는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지역특산품을 집중적으로 개발 육성하여 이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축제와 지역경제를 접목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지역 특산품의 개발로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2.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축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관광객들이 추구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부합시킬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획안을 마련하고 전국 및 각 읍면을 광역권 및 지역별로 묶어서 몇 개의 축제를 선정하여 중앙정부 및 민간협력차원의 우선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홍보, 국가 및 지역적인 관광홍보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체계적인 노력 필요하다.

가. 축제기획 및 평가의 과학적 기법도입

관광객에 대한 사전시장조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지속적인 조사, 정보수집, 분석활용에 과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여 기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방법이 주로 관광객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관광객의 주관적인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시스템 기법을 도입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나. 외국인관광객 친절안내와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친절안내와 상주 자전거축제 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태국의 경우 “투어리스트 폴리스”제도를 운영하여 유명관광지에 전담 경찰관을 상주시켜 외국인관광객을 보호하고 있음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터내셔널 폴리스(국제경찰)”제도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국제경찰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다. “광역 및 권역별 축제협의회” 구성

전국 및 각 읍면을 광역권 및 권역별로 나누어 관광벨트를 구성하고, 주변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시너지(Synergy)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광역권 및 권역별 축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및 각 읍 면간 축제시기 및 예산확충에 대해서 협의함으로써 지역 상호간의 정보를 교류, 아이디어 개발로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에 애한 문화향수권을 보장할 수 있다.

라.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관광객들의 축제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체험관광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축제를 구성하는 이벤트에 관광객들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제와 거리감을 완화시키고, 축제의 주체로서 직접 운영한다는 일체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마. 재원조달 확보 방안 및 수익성 확보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정부예산외에 기업으로부터 자금유치, 관련 경비의 협찬 등과 같은 스폰서십(sponsorship),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기부금 모금 등이 필요하다.

축제의 사업비 집행내역과 축제를 통한 수익사업의 결과, 그리고 직·간접적인 유발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재원조달과 수익성 확보의 결정적 요소이다.

사. 홍보마케팅의 단계별 전략

홍보마케팅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축제에 대한 방문욕구를 유발시키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며, 홍보단계별로 적절한 활동수단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기초 홍보단계	국내외적인 관심유도를 위해 주요 여행사 팸투어, 순회설명서, DM발송
△구매 유도단계	국내외 여행사 홍보, TV고아고, 신문광고
△축제이미지 실현단계	프레스센터 운영을 통해 취재편의를 도모, 주요행사 브리핑, 관련방송 섭외
△평가단계	매체모니터링, 관련기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아. 지역 및 문화관광축제 기록보존소 운영

매번 개최되는 지역 및 문화관광축제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다음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축제기록보존소를 운영한다.

축제가 개최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개최되지 않는 시기에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축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장소를 제공하며,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성격과 역사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3.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1) 지역축제 참여 업체·단체에 대한 일부 세제 혜택 부여

-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지역의 기업체, 단체, 업소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축제의 성공요인이다.
-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축제 참여(행사참여 인력, 장비 불꽃축제 등 각종행사의 인적, 물적 참여)에 소용되는 비용감면 혜택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 지역축제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의 공공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도 적극 기여한다.

2)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 검토

- 지역축제에 기업, 단체의 스폰서나 협찬을 관공서에서 받는 것을 극히 제한되어 축제의 안정적 재정 확보가 지난하다.
- 외국축제 경우 장기적으로 각 기업체, 언론사 등에서 후원·협찬받고 있어 축제 성공 큰 역할이다.
- 현재의 기금품 모집규제법 제4조의 모집허가 대상에 지역축제사업 포함시키고 행정절차 대폭간소화에 성공적인 지역축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3) 경기도 농업박람회 정기적인 개최

-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 농업페어(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하고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농업의 환경 중요성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 개최방법은 일정장소에 대규모 페어그라운드를 조성하여 평시에는 박물관과 체험의장 활용하고 축제기간에는 보고, 즐기고, 느끼는 축제로 운영
 - ※플로리다 스테이트 페어
 - 주정부 차원(주 농업국)에서 농업에 대한 발전사를 알리고 어린이들에게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상설 마련함으로

주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후대에 교육

3) 축제 전문조직 및 인력확보 의무화

- 현재 각 시군의 축제전담공무원이 행정공무원으로 전문성이 약하고 일정기간 근무후 타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축제전문인력(계약직)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담팀 조직을 만들도록 의무화 조치한다
- 지역의 문화축제가 기획프로그램 구성·홍보마케팅 등 모든 분야가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인력 확보는 시급한 설정이다
- 현재의 축제담당공무원은 전보제한 규정과 가점제도를 도입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 도모한다

4) 지역축제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현재 도내 각 시군별로 축제에 대한 홍보나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향후 경기도(경기관광공사)에서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부관 광객이나 도민이 모든 축제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

5) 지역축제 도비지원 확대(시군당 1개 의무화)

- 시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 균등한 도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을 뒷받침하고 도비지원에 따른 시군 지방비확보가 용이토록 적극 지원한다

6) 축제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해외 벤치마킹 정기적인 실시

- 경기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성공적인 지역축제에 대해 서로 상호비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축제기획·운영·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평가시키고 년1회 이상 해외도 벤치마킹시켜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모델형성에 적극기여한다

7) 축제 전시장(박물관)설치

○ 시군 지역 축제 중 경쟁력이 있는 우수축제에 대해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축제의 역사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박물관)건립하여 축제홍보와 아울러 청소년 산교육장으로 활용한다

※뉴올리안즈: 마르디그라 카니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건립운영

제 3 절 문화분권을 넘어 통합지원서비스체제로22)

1. 접근 방법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여, 지금까지 보건과 복지서비스라는 협소한 범위를 넘어선 개념으로 [지역주민통합서비스]를 제시한 바 있다. 보건과 복지 외에도 문화, 고용, 생활체육, 안전, 주거, 평생교육 등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되는 공적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여성부, 정통부, 문화관광부, 건교부, 청소년위원회 등 수많은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것을 망라하는 것이다. 이 또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부처마다 독자적인 전달체계 확충시도로 인한 비효율 및 예산중복으로 인한 낭비문제를 최소화 하려는 시도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앙차원이나 지역차원에서 분야별로 공공과 민간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협력방안이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지만, 매우 바람직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시도로 보인다.23)

문화통합서비스도 통합지원서비스 체제의 한 축으로 지역문화 분권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필요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화권 신장을 위해 복지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서로 다른 공공문화

22)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세미나(2005.10.07.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준))를 시작으로 통합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23)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가 손잡고 직원식당에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의 점심을 제공 (중계3동 사무소와 롯데마트 중계지점, 하계1동사무소와 하계테크노타운)한 사례.

기반 시설 간 서비스네트워크도 수용자인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축으로 재정립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체계는 기존의 멀티미디어체계로부터 통합미디어체계로 질적 발전이 이루어진 디지털 정보통신시스템의 발전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다. 비록 아직은 문화 분권을 위한 최소한의 네트워크체제의 실현도 미비한 현실이지만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를 주민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체제의 확립에 두고 문화 분권의 구체적인 실천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문화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1) 지역문화개발의 필요성

문화의 지역간 불균형현상 및 중앙 집중현상은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을 대립하게 하거나 종속관계에 놓이게 한다. 따라서 각각의 지역문화가 동등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동등한 위상으로 전승, 개발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국가정책은 정책으로부터 특별히 배제되거나, 혹은 특별히 배려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구현될 때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국가정책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거나 편향되면 지역간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서로 반목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국민 모두에 대한 균등한 배려라면, 문화정책의 기본목표도 궁극적으로는 각계계층이 자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문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의의는 지역별 특성이 잘 드러나는 지역문화정책의 추구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독특한 역사성과 문화적 동질성 안에서 성장해 온 개개의 지역문화는 지역주민의 정신적 동일성과 통합을 이루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지역문화는 미래사회의 지방자치시대와 맞물려 활성화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작게는 지역의 통합과 나아가 지역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사이의 유대를 강화

할 수 있고 크게는 한 단계 높은 민족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 16). 따라서 지역간 문화적 평준화의 증가는 국민의 문화향수를 고르게 배분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도 정책적인 배려를 대단히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내의 집단들과 기업들이 문화개발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득과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편익을 이해하기 시작함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전략적인 문화기획을 통한 문화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지방의회가 활성화된 나라들의 경우, 도로나 지방세 징수 및 쓰레기문제와 마찬가지로 문화개발을 꾀하려는 지역문화기획의 수립을 지역사회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²⁴⁾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문화예술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와 타당성은 무엇인가.

첫째, 문화예술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공공재이며 자본주의의 성숙과정에서 국민생활에 필수품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자치단체로써²⁵⁾ 지역문화예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예술의 창조 및 발견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개인이 아닌 공공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육성,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그 근거와 명분을 찾을 수 있다.

2) 전략적 지역문화기획의 방향

24) 호주의 각급정부에 부설되어 있는 준독립적 비정부 집행기관인 예술평의회(art council)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상급직원이 임명되는 가운데, 기능적으로는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역문화개발을 위한 전략적 문화기획을 수립한다.

25) 문화자치단체의 의미와 조건은 매우 자의적이다.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에 따르면 문화자치단체란 일정한 문화재와 문화시설을 보유하며, 문화 예술 활동이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향수기회가 많고, 문화예술 인사가 다수 거주하는 등의 환경을 갖춘 자치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화자치단체란 주민들이 보다 풍요롭고 인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골고루 갖춘 자치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문화적인 자치단체란 문화적 여건을 균형 있게 갖춘 문명화된 지역이라고 원론적인 규정을 내릴 수 있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역사와 유산이 뒷받침되며, 문화시설을 골고루 갖추어 지역내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지역문화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주민들의 문화시민의식이 향상된 지역으로 만들고자 할 경우 바람직한 문화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가 문화자치단체로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성된 기반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확충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강조해야 하며, 결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문화적 하드웨어의 수준으로는 생활환경의 조성과 문화자원의 개발, 문화자원의 산업화가 필요하며, 문화적 소프트웨어의 수준에서는 문화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 문화예술 관리능력의 향상, 문화시민으로서의 향수능력제고, 지역간 문화교류의 촉진 등이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실천적 행동이 중요시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이의 조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문화개발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아울러 예술가의 폭넓은 기능의 확대와 창작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문화 예술 인력의 양성도 도모되어야 한다. 이는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및 읍, 면지역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문화진흥의 전제로 지적된 사항이다.

둘째, 문화예술 관리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문화적으로 자립·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문화가 계속성과 보편성을 지녀야 하고, 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문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자치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지역문화를 부단히 발굴·전승·창조해야 한다. 또한 문화사업 결정에의 시민참가, 지역문화 연구담당기관의 설치와 성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를 홍보, 안내하는 책자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이와 같은 정보(예 : 프로그램 담당자의 이름과 주

소, 전화번호)를 누구나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문화정보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의 역사보존단체, 시사편찬위원회, 문화재감정가, 시설관리자, 문화행정전문가 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문화시민의식 및 향수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문화는 인간성의 존중·실현에 최종 목표를 둔다고 볼 경우 문화시민의 문화의식 수준이야말로 문화자치단체의 외적조건과 함께 문화자치단체의 최종목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현대 시민문화의 시대에 있어서 문화자치단체의 외적 조건과 아울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시민문화가 문화시민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명실상부한 문화자치단체로서 성립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며, 문화 창조의 주체로서의 개별시민의 활동이 문화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언제나 살고 싶어 하고 그 지역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지역 시민의식이 저절로 구현될 것이다.

넷째, 지역간 문화교류에 힘써야 한다. 지역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문화향수 기회를 넓혀야 한다. 문화교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것으로 추진하여 점차 확산하며, 범위는 소규모적인 것으로부터 대규모적인 것으로, 소수대상에서 다수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등 문화교류·협력담당자들과의 유대강화가 필요하다. 제휴와 협동적인 노력을 강화하되 특히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생활지향적 문화서비스를 담당할 주체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문화교류는 대상지역과 대상 집단을 다변화하여 공동세미나 개최, 특정분야별 인적교류, 문화생사의 교류, 자매결연, 문화이벤트 등의 다양한 전략을 지역 특성에 따라 전개될 수 있다.

다섯째,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여 문화예술행사를 개발하고 개최함으로써 시설의 활용과 시민의 향수기회를 제고시켜야 한다. 문화예술행사는 각 장르별로 예컨대 음악, 미술, 조각, 사진, 연극, 영화 등의 전람회와 각종 공연회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개발하고 활용되어야 함으로 이에 따른 장르별 시설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음악의 경우는 교향악단의 행사, 경연대회, 국제음악회, 감상자 계층별 음악회 등으로 나눌 수 있듯이, 각

장르별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개회를 통한 문화 향수기회의 향상, 지역의 자기표현, 참여를 통한 감상, 체험 및 표출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특히 성인뿐만 아니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얼마나 특성 있게 개발하고 지원하는가 하는 점이 문화개발의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지방정부가 이러한 지역문화개발의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기 위해선 계획지향적인 관점에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및 행정활동의 구체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역문화개발을 위한 관심들을 행정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론적 순서를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지방문화개발의 방법론적 제안

가. 개발계획의 문화적 변수

지역문화개발을 위한 기획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명백한 의사결정 대안을 수립하고 성공을 위한 가능성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상황에 초래될 도전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때 지역문화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화적 변수들은 다양하다. 지역문화개발을 통하여 지역에 파생될 외부효과나 지역 내에 존재해 온 기존의 운영방식과 기존구조, 또는 지방전통에서 연유하는 경제적 가능성들, 혹은 생산조직들과 기관들 간의 협조관계와 공식 · 비공식적 지방 세력의 양상, 그리고 유력한 인사들의 역할이나 전통, 지방사회의 응집력의 특징 등은 지역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력으로 내용과 과정을 이끌 것이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6 : 55~65)

그렇다면 지역문화개발계획에서 이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가. 모든 것을 다 고려하기란 불가능하며, 기획자들은 단지 위의 변수들 중에서 그 지역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변수들과 계획되는 사항에 적용될 수 있는 매개변수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때 기획자들은 계획의 첫 단계인 문제선정 및 목표설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²⁶⁾

따라서 기획가는 지역의 문화개발계획이 무엇을 실현하고자하며 이를

위해 어떤 변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 문화개발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부적 효과와 반응

지역문화계획의 입안자들은 무엇보다도 경제 · 지리적 의미에서의 독립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주민들을 보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 지리적 능력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외부적으로 효과적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추세와 방향들과 함께 실제로 취해질 계획조치들의 가능성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화개발에 있어 첫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어떤 도전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 거주지의 자연스러운 경제적인 역할, 가치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필요가 있다.

어떤 지역이 지역적이거나 또는 국제적인 무역행사나 전시회 또는 문화행사들의 정기적 장소가 된다면 해당 지역은 지역행사를 통하여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행사들로 인하여 해당 지역이 유익하다든지 혹은 행정기관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나타나기 어렵다. 그래서 서구의 한 도시지역위원회는 수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스티벌을 주최했지만 그 행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지역의 명예를 추락시킨 그 행사를 취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는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 오히려 그 지역은 페스티벌을 통해 훨씬 늘어난 매상고를 올린 기업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어 행사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지역문화기획자들은 지역의 문화적 변수로 작용될 요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관광객을 끌만한 곳이거나 경건한 장소이거나 혹은 다른 거주지들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예컨대 병원)이 있는 곳이어서 외부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문화기획에 있어 관광객의 소비행태, 질병 및 교화능력 등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6) 기획과정의 첫 단계인 문제선정 및 목표설정단계에서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은 '3중 오류'의 문제이다. '3중 오류'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선정했을 때 겪게되는 오차로써 기획과정 전반을 무의미하게 이끈다(W.N.Dunn, 1981 : 109).

한편 거주지의 행정적 역할이 사라져 버렸거나 또는 행정결정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없어져 버리면 그 거주지의 존재와 의미는 소멸될 것이다. 거주지에서 산출한 생산물들이 시장을 잃어버리거나 생산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없다가, 장차 상업 고속도로가 그곳을 우회해서 지나가거나 자연스런 공급이 환경적 재앙 때문에 중단되거나, 지방정부가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변화에 반응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아마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한 지역 사회가 외부효과들과 관계를 갖게 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관여하게 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내적 문화과정

내적인 문화과정으로 지역의 문화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물리적 준거틀로 지리적, 환경적, 풍치상의 기본요소들, 기술의 선택과 거주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작업장, 하부구조 조건들, 보건 · 문화기관들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정치 · 공공조직들이다.

둘째는 전통적 준거틀로 지방 사회 문화의 정수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가치, 모형 및 패턴을 제공하는 관습과 살아있는 전통이 있다. 전통체계는 매우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다. 어떤 지역사회가 물질적 또는 지적인 전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된다.

셋째는 지적 준거틀이다. 이는 물리적 및 전통적 준거틀을 지방 경제 · 사회 계획가들에 의해 문화적 매개변수로 고려되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넷째는 기존 사회구조의 운영방법이 어떤 것이며 지역의 이익을 강력히 주장하는 지방의 정치적 조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지방사회에 대한 헝가리의 사회학적 · 정치학적 조사를 통해 볼 때 중앙집권적이며 계급주의적 구조를 가진 정치조직체제로는 지방이익을 정치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식조직과 병행하여 여러 지역의 채널들을 통해 지역의 이익을 실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때 이익실현을 위한 비공식조직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

서 구조적인 활동을 하는 비공식 조직이 된다. 그러나, 그들은 공식구조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다. 의사결정권한과 실현수단을 다가지는 것은 바로 공식구조이므로 비공식구조들은 그들의 의견들이 공식 의사결정 회의에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명사들의 역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영향력의 근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역 사회 내 명사들은 기관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지방적인 참여

지역문화기획에 있어 주민들의 관심도 또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이다. 그 관심들이 무엇이든지 간에(헛소문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관심은 기획과정 및 계획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기획 작업에 있어 지역주민의 관심에 근거한 문화개발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려되어질 수 있는 지역주민의 관심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 전략적 문화기획과정

지역문화개발을 위한 전략적 문화기획에²⁷⁾ 있어 위해서 제시한 문화적 변수가 완전하게 고려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학적인 수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고려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잘 기초된 의사결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획 및 실제 주제에 맞도록 의가결정에 필요한

과정들과 몇몇의 매개변수들만 다룰 수 있어도 충분할 수도 있다. 특히 소규모 지역사회의 경우는 사회학적 조사 대신에 어느 정도 잘 조직된 토론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이나 문화기관들을 포함한 홍보토론허들은 지역의 문화기획에 대한 중요한 정보 자원들을 제공할 것이며, 지역문화 기획자들은 이들을 토대로 지역문화 기획을 수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략적 기획의 성공적 활

27) 전략적 기획은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관련된 근본적인 결정과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돕는 체계화된 노력이다.(Bryson. 1995:45)

용은 전략적 사고와 행동을 조장하고 촉진할 수 있는 잘 정리된 참여적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Bryson(1995)의 전략변화주기모형(Strategy change cycle model)은 (그림-1)에서와 같이 기획가가 기획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어떻게 계획을 이끌어 낼 것인지를 보다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의사결정자 사이의 전반적인 전략적 기획에 대한 합의가 성공적 기획의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의사결정자로는 내부 및 외부의 지여가회인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전략적 기획을 하는 이유와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기획과정을 이끌 것 인지, 보고서의 작성까지 기획과정의 전반에 관한 합의를 이룬다.

둘째는 상황분석을 하여 조직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부응해야 할 의무와 영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해관계자들의 임무와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부과되는 의무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된다.

넷째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내부 및 외부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SWOT분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조직을 둘러싼 내적, 외적환경에 대한 정확한 고려는 조직이 직면한 전략적 이슈를 확인하게 해 준다.

여섯째는 확인된 이슈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을 형성, 수립한다.

일곱째, 이를 검토하여 채택함으로써 모든 관여자가 공식적으로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여덟째, 계획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었을 경우의 기대되는 미래상을 제시한다.

아홉째, 수립된 전략적 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집행과정을 고안한다.

열째,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과 집행에 대한 재평가를 다음의 기획에 활용해야 한다.

Bryson의 전략적 문화기획 10단계 모델과 연관하여 전략적 지역문화개발에 관한 방법론적 제안을 해보면 (그림-2)와 같다.

첫째단계인 시작부분에선 해당 지역의 문화생활에서 이해당사자와 참여자는 누구이며, 이들이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향후 어

떻게 변화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지방 정부가 지역문화개발의 성공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대기업에서 실업자까지, 젊은 기호에서 고령자까지 지역사회내의 모든 부문을 다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각 이해당사자는 지방정부, 지역사회, 민간부문의 3개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문화개발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로는 지방정부내의 기획부서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되며, 지역사회에서는 미술공예조직, 역사학회, 문화계,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조직, 성인조직, 청소년조직, 기획협회지방지부, 지방의 유지들이 관련될 것이다.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관광관련 사업체, 예술이나 공예관련 사업체, 여가관련 사업체, 레스토랑과 카페, 지방언론들이 관련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관심집단과 핵심적인 인사들 중에서 운영위원회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운영위원회는 특정 조건이나 필요에 따른 집단들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이 문화예술조직 및 사업체를 고려해야 하며, 성이나 연령, 경험, 문화적 배경을 안배해서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충실하게 임무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전개될 문화개발 기획을 책임을 지고 능력있게 일해 나갈 프로젝트 매니저를 임명해야 한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전략적 기획에 관한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예술계 출신이거나 지역사회의 자문을 받아보았다거나, 대규모 혹은 다분야 프로젝트를 관리해본 경험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인관계나 조직능력, 의사교환능력, 또는 리더십이 겸비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전략적인 문화 기획전략이 어떻게 우리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며 잠정적인 청사진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상황분석단계에서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으로써 문화자원을 평가해야 한다. 양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자산과 문화활동들은--공공시설, 문화사업, 부동산, 물질문화, 문화조직, 종교단체, 문화교육, 관광, 페스티벌과 이벤트, 미디어 등등 -- 현지조사나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접근될 수 있다.

한편 환경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자산간의 관계는 문화지도 그리기

(cultural mapping)와²⁸⁾ 같은 질적인 문화자산평가를 통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관심사 및 현재의 문화적 상태의 관계가 전략적 문화기획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획과정 및 결과의 개선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새로운 고안을 꾀할 수도 있다. 워크숍을 개최할 경우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가능한 참석범위를 확대하되 부적절한 사람의 참여는 막을 필요가 있다.

셋째,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단계에서는 어떠한 비전이 지역사회의 문화개발전략도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확인하여 이를 증명하며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영역에서 다른 기획의 실행과 연계를 생각해 보며 SWOT분석을²⁹⁾ 활용하여 어떠한 강점(S), 약점(W), 기회(O), 조짐(T)이 해당 지역사회의 문화 자원이나 활동과 관련되는지, 강점(S)과 기회(O)를 이용하기 위해 어떻게 전략과 계획을 고안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약점(W)과 조짐(T)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단계에서도 미래버전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사회가 미래에 어떤 모습의 지역사회를 원하고 있는지 균형감있는 생각을 끌어낼 수 있다. 미래버전 워크숍에서는 향후 미래의 변화의 불가피성 또는 문화적·경제적·사회적 조건들과 환경과의 관계, 삶의 질, 문화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Grogan, 1995)

넷째,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의 단계에서는 전략을 형성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로그램활동과 계획을 어떻게 조합하여 최선의 상태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여야 한다. 대안들을 여러기준에 의해 비교 평

28) 문화지도 그리기는 종이위에 지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공간과 문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한 방법이다. 문화자산이나 문화활동에서 찾아질 수 없는 지역주민에게 특별한 의미로 인지된 것들을 찾아주는 방법이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78)

29) SWOT분석은 강점(S), 약점(W), 기회(O), 조짐(T)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지역문화개발의 전략적 체계내에 존재하는 현안 쟁점들을 검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때 강점과 약점은 지역사회와 그 내부의 질과 관련되며 기회와 위험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외부적 환경과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Grogan. 1995)

가한 후 최종 조정해야한다. 확정된 각종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비로서 실행계획으로 전환되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달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가능해진 문화자원과 계획집행의 진척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탐색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문화산업 육성전략

가.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의 범위와 분류, 특성, 현대 문화산업의 발전양상, 국가 및 지역정책에의 의의, 문화산업 육성의 이론적 전략과 외국의 문화산업 발전 및 육성 사례들을 검토하였고 또한 한국의 문화산업 및 문화산업정책의 발전과정과 수준 그리고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더하여 문화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정책적 요구사항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건대, 한국의 문화산업의 근본적이고도 현실적인 과제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기술적 수준을 높이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기업의 기술수준과 혁신 역량을 총체적으로 높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최근 벤처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거품투자에 그치고 말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문화기업들의 기술 수준과 혁신역량을 고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달성하는데는 산학연 연계, 전문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 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의 공급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생산(혁신 및 물류)네트워크의 구축이 핵심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이 핵심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네트워크는 공간적 집적을 토대로 하며, 집적경제의 핵심적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산업에서 집적의 경제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보와 문화가 관련활동 및 전문가들의 집적에 의해 상호학습 효과와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³⁰⁾ 실제로 이와 같은 집적경제

30) 이러한 현상은 문화산업 뿐 아니라 첨단화되거나 다품종 소량 생산화 된 고부가가치 산업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를 추구하여 전문 문화생산업체들이 광범하게 집적하는 현상들이 범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사례로서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문화산업도시들의 성장과정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문화산업은 산업지구 혹은 신산업지구의 한 형태로서 문화산업지구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근래에 정부 부문이 문화기업들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직 생산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 즉 집적경제의 형성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화산업단지 조성정책 등 문화산업체들의 집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활발히 모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생산네트워크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구축과정을 담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에서 파악할 때 지역적 수준에서 혁신 네트워크의 착근과 질적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의 정책적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화산업의 생산네트워크로서 문화산업지구 조성에 중점

문화산업은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여러 측면에서 일반적인 제조활동들과는 상이한 특성들을 나타내는데, 그러한 만큼 그것의 성장조건 및 육성전략도 차별적으로 이해된다. 문화산업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끊임없는 도입과 신제품의 개발을 특징으로 하는 다품종소량생산 및 유연적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문화산업은 그 경쟁력이 자본의 규모보다는 기술과 창의력에 토대를 두고 있고, 전문가들 간의 혁신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며, 제품 생산에서도 속도의 경제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기업들 및 전문가들간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분야 전문가들간, 관련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그것들이 공간적으로 집적할 수 있는 토대로서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혹은 전문기업지구(specialized business park)가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은 뉴욕의 실리콘밸리,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도쿄의 시부야비트밸리, 이케부쿠로 애니메이션타운, 서울의 테헤란밸리 등 대도시에서 발견될 뿐 아니라, 영국의 셰필드, 카디프, 독일의 헤센, 이탈리아의 카르피, 한국의 남원 등

중소도시들에서도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의 산업집적지로서 문화산업지구모델을 제안하며, 문화산업지구는 일반적인 산업단지나 산업클러스터와는 차별적인 형태를 가짐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의 개발과정도 기존의 산업단지나 산업지구 모델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내포한다.

둘째, 지역혁신시스템의 전략적 활성화

문화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의존하는 혁신 중심형 산업으로서 산업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산업적 가치가 있는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수준에서 전문가들 간의 대면적 접촉에 기초한 혁신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의 논의들에 의하면 이러한 혁신네트워크는 무엇보다도 전문 분야의 전문 인력들을 특정 지역 내에 집중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지역혁신시스템 논의에 의하면 이러한 혁신네트워크의 구성요소는 보다 복합적이어서 단순히 특정분야 전문가들과 기업들을 공간적으로 집적하는 전략보다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여러 구성요소들(생산, R&D, 유통, 전시, 교육, 인프라, 전문협회 등)이 적절히 융합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문화산업지구의 조성이 지역혁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관련 문화기업들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관련 제 기능들을 형성하고 그것들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학원 및 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들을 통한 인력 양성, 전문연구 및 디자인 기능의 활성화, 지역 내 관련 기업들 간의 협력체제(협회 등) 구성, 산업지구 내 광케이블의 구축, 제품기술 정보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기업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

문화산업 육성사업은 지방적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에 중점이 있는 만큼 지방적 수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방기업들의 참여와 지방대학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단지를 우선 유치하고 보자는 안이한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적 문화 생산네트워크 구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과 책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지방기업과 대학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수렴하고 이들의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것이다. 문화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물리적 인프라로서 산업단지만 조성해 놓는다고 활성화될 수 없는 것이다. 네트워크 형성의 궁극적인 주체는 민간기업들과 민간부문들임으로 이들의 참여를 배제한 생산네트워크란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셰필드, 실리콘밸리, 시부야비트밸리, 제3이탈리아 산업도시들의 경우 민과 관의 협력이 문화산업지구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역할은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활동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첨단영상형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제조형 문화산업 육성에 중점

문화산업은 다양한 산업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그것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상이성과 차별성이 존재하며, 이 산업들의 육성전략을 수립함에서도 그 다양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영화산업과 출판인쇄업 사이에는 문화사업으로서 동질성도 존재하지만 또한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산업 육성전략은 산업분야를 세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접근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문화산업 분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고 향후에도 중점적으로 모색해야 할 분야가 첨단영상형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제조형 문화산업으로 판단된다. 이는 두 분야가 외부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생산품을 역외로 수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영상형 문화산업의 경우 지역의 예술적 역량과 포괄적으로 접합하고 디자인산업이나 음반산업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것의 육성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별 문화기업 지원 중심의 문화산업 육성정책 지방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하고 있는 기존의 문화산업 육성정책들은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정책들이 개별 문화기업들에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입지적, 조세상의 혜택을 부

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으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회적인 투입에 그치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기업들에 특별한 조건 없이 직접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유도해 오지 못했다. 문화산업 육성정책의 근간은 문화기업들이 지역 문화산업 육성의 핵심인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로 집중되어야 하며, 문화산업 관련 활동들이 기업과 대학, 연구소, 기타 다양한 문화 활동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정부 부문의 문화기업들에 대한 입지, 금융, 조세, 보조금 지원시책은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종합적, 전략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지방의 문화적 산업과 잠재력 증시

지방적 수준에서의 문화산업 육성은 지방적 문화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문화상품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둔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특정분야 문화상품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적, 정보적 조건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역적 토대가 요구된다. 맨해튼의 실리콘밸리가 단기간 내에 세계적인 영상문화산업지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행적 조건들로서 우수한 입지적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도쿄의 시부야 비트밸리와 이케부쿠로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입지적 장점이 확인된다. 이 점은 영국 쉐필드나 카디프, 그리고 제3이탈리아의 카르피에서도 발견되는 바, 선행적인 문화산업 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문화산업지구 조성은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와 지역생산체제를 구축하지 못할 것이다.

일곱째, 현실적 단계와 접근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을 채택하여야 한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나 문화산업센터 건립은 실현가능성을 재검토하여 도시내 문화산업지구나 문화산업집적시설 지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특정 업체들에 공공자금지원을 집중하는 금융지원방식보다는 임대료 지원이나, 사무실 혹은 토지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여러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네트워크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과정은 점진적으로 생산네트워크를 착근해가는 것이며 단계적인 개발구상과 추진이 요구된다.

종합하건대 한국 문화산업 육성의 핵심과제는 기술 수준과 혁신 역량을 향상하는 것으로서, 문화산업의 기술수준 및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생산네트워크로서 문화산업지구를 조성하여 기술적, 물류적, 인적 네트워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문화산업이 성장하는 토대로서 효율적인 생산(혁신 및 물류)네트워크의 착근(embeddedness)에 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혁신과 학습네트워크 형성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문화산업의 창업을 위한 기초투자비용(sunk cost)을 줄여 주며, 이 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과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대규모의 문화산업단지나 문화산업지원센터를 건설하는 방식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들이 존재하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보다 면밀한 지역분석과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산업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심전략을 토대로 하여 모든 시책들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핵심 전략

문화산업지구 개발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지역 내에 여러 문화 산업체들을 유치하자는 데 있지 않다. 문화산업지구는 문화 산업체들과 전문가들의 지역 내 네트워크를 효율화함으로써 물적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적 시너지를 촉진하는데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지구 개발의 핵심은 어떻게 관련 분야 문화기업들을 집적시켜 그들이 생산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착근할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산업지구 개발은 도시 내에 전문화된 복합단지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문화된 복합단지란 특정 분야의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형의 복합적 산업 집적지임을 의미한다. 그것의 핵심은 다음의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도시 내의 다양한 업무기능들과 문화기업들 간의 복합화, 둘째 특정분야 문화기업 및 전문

가들의 공간적 집적, 셋째 특정 분야 문화산업 관련활동들의 집적, 넷째 이들 간의 혁신 및 물류 네트워크의 착근과 활성화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산업지구 개발과정은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과는 매우 상이하며 별도의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 문화산업지구 개발은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문화기업들에게 불하하거나 문화기업들을 유치하는 사업이 아닌 것이다. 그러한 접근은 문화산업의 실제적인 육성을 가져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역량이 있는 문화기업들의 유치에도 실패할 것이다.

문화산업지구의 핵심이 되는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뿐 아니라 정보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고 산업지구를 구성하는 제요소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창출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은 상당한 투자와 시간을 요구하며, 공공부문의 충실한 지원과 면밀한 전략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의 헌신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문화산업지구의 성숙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집적지(문화산업지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다종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성공적인 사례들에 대한 비교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산업지구 개발전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사 받을 수 있다. 제3장에서 이미 그것들의 개발과정과 특징적 유사점들을 분석하였거니와 문화산업지구는 입지, 개발과정, 단지내 공간구성, 업체 특성, 업체 유치방식 등에서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화 산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희망하는 문화산업지구의 형태와 개발 전략을 참조할 수 있다.

문화산업의 성장토대로서 고효율의 문화산업지구의 개발은 다음의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1)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민간의 협력 : 거버넌스 접근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지구 조성은 기업들과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한 전문분야의 산업지구를 착근 · 성숙시킨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단시일 내에 가능한 일도 아니다. 문화산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집적경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개

별 기업들은 기업 입지에 있어서 각지 게임적 상황에 놓여 있어서 거시적인 집적경제를 창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문화산업지구 형성 과정에는 관련 기업들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 의한 장기적이고 면밀한 전략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³¹⁾ 더구나 문화산업의 토대가 빈약한 지방도시들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자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산업지구 형성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가 협회 그리고 지역 대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문화산업지구 형성과정은 전형적으로 지방적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구축과 발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

문화산업지구 개발은 공공부문 중에서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내 기업가들과 지역 대학의 협력이 요구된다. 과거 공업단지 개발은 토지 및 물리적 인프라조성과 토지의 기업 매각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국가부문에서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문화산업지구 개발은 도시 구역 내 산업지구의 설정, 전문기업의 유치,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기업지운 서비스의 확충, 전문가들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필요로 하며 공공부문이 이 복잡한 과정에 장기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중앙정부가 특정지역의 문화산업지구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실제로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적이 되게 한다.

첫째, 문화산업지구 지정 혹은 조성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 내 특정한 구역을 문화산업지구로 지정하거나 도시 외곽에 새로운 문화

31) 시부야 비트밸리나 이케부쿠로, 테헤란밸리, 그리고 일부 제3이탈리아 산업지구들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부문이 문화산업지구 형성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쉐필드나 실리콘밸리 등을 통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하고 주도적인 개입은 문화산업지구의 형성에 대단히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지구(혹은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더하여, 공공부문에서 지구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관련활동들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하는데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

둘째, 문화기업의 유치

전문 문화기업들이 충분히 집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적절한 선발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선발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선발이익에는 저렴한 업무 공간의 제공,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 기업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셋째, 생산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구개발과 디자인을 촉진하고 그것을 곧바로 상품화하는 기업간 및 전문가간 연계구조(생산 네트워크)를 창출하는데 공공부문이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문화산업의 생산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뉴욕의 실리콘앨리, 영국의 셰필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물론 이밖에도 다양하다. 산업 인프라의 구축,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강화, 기업 지원 서비스의 확충, 전문가들의 생활환경 조성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들이다.

나)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

문화산업 육서전략의 핵심을 지방적 문화산업지구의 조성발전에 둘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은 다소 소극적이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산업정책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첨단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대만의 신주과학산업단지과 같이 국가 부문이 적극적으로 개입, 창출한 사례도 있으나, 도시 내에 형성되는 문화산업지구 개발을 중앙정부가 주도한 예는 거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실리콘앨리 개발에 있어서 뉴욕시

와 뉴욕주의 관계와 같이 주도성과 보조 및 지원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뉴욕주는 뉴욕시가 '로우어맨해튼 재활성화 계획(Lower Manhattan Revitalization Plan)'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을 때 이를 법제화하여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다음의 세 가지에 맞추어 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관련 법제의 정비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지구(여기서 문화산업지구는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문화산업단지과 구별됨)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지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문화산업기반시설의 집적화)에 의해서도 육성을 위해서도 문화산업지구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법률은 대단히 미흡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문화산업지구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기업 및 관련 활동들의 공간적 집적을 실현해야 하는데, 문화산업지구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의 지원제도를 이 법 조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유치 인센티브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부문에서 문화산업지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보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산업 육성계획을 심사하여 이들 중 우수한 계획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 사업들의 진행과정을 평가하여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평가의 핵심적 기준은 관련 문화기업들을 얼마나 유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산활동을 활성화하였는가에 맞춰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정보 및 모델 제공

해외의 성공사례들을 소개하거나 개발 모델들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문화산업지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사업정보의 제공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지원

지방자치단체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추진을 효율화하고 문화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역간의 기업네트워크를 강화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다) 민 · 관 파트너십의 활성화

문화산업지구의 발전과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이 대체로 인정되지만, 보다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갖는 부분이 민간 파트너십이다. 지방의 기업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지방대학이 협력해서 장기적, 전략적으로 문화산업의 생산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실리콘앨리와 셰필드, 시부야비트밸리 그리고 제3이탈리아 산업지구들에서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실리콘앨리의 경우가 주목할 만하다. 실리콘앨리의 형성과정에서 뉴욕시정부와 지역 기업가들은 로우어맨해튼 지역을 24시간 운영되는 사이버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플러그앤고(Plug n' Go)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는데, 민관협력단체인 뉴욕도 심개발을 위한 동맹(Alliance for Downtown New York)이 프로그램의 시행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또 1994년 뉴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뉴욕뉴미디어협회(NYNMA)를 설립하여 실리콘앨리의 생산네트워크를 고도화했다. 뉴미디어 협회는, 설립 초기에 뉴미디어를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멀티미디어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인 뉴미디어 협회의 설립목적은 "기업가, 창작자, 전문가들에 대한 봉사과 뉴욕의 산업발전 진흥"으로,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에게 뉴미디어 산업의 성장현황과 수요를 알리고, 산업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키며,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의 관련정책이 멀티미디어 산업에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로비를 하는 것이다(유승호,2000). 또 민간이 주도한 '다운타운 뉴욕' 연대(Alliance for Downtown New York)는 「기업진흥구역(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의 조성 및 운영에 핵심적 기여를 해왔다(김묵한, 2000). 이는 문화산업지구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정에는 관 주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이 극히 중요함을 보여준다.

라) 지역대학의 역할

문화산업지구 활성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뿐 아니라 지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은 전문인력과 지식 정보를 공급하는 문화산업지구의 중요한 거점이다. 특히 문화기업들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기여는 대단히 중시되어야 할 부분으로 문화기업들의 전문인력 수요를 이들 대학원생들이 탄력적으로 채워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산업시대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다. 과거처럼 진리의 중립성에 안주하여 고답적인 이론만 탐구하는 상아탑이 되어서는 경쟁에서 낙오할 뿐이며 대학 졸업생들도 경쟁력을 배양할 수 없을 것이다. 기술혁신이 엄청난 속도로 발생하는 사회에서 대학은 산업현장에서 직접 배워야 첨단교육을 할 수 있고 쓸모 있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권오혁,1997). 특히 문화산업의 경우에는 젊고 창의적인 두뇌들을 다수 필요로 하는데, 대학은 자체적인 수요적 측면과 함께 젊고 유능한 인력들을 산업체들에 공급할 수 있다. 즉 산 · 학 · 연 협동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산업의 육성을 직접 지원하여야 한다.

(2) 지역전문화와 산업분야 선정

가) 지역 문화산업의 전문화

문화산업지구의 효율적인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지역의 산업 전문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역 산업의 전문화란 특정지역에 있어서 산업분야가 특화 혹은 전문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리콘밸리가 컴퓨터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이나 실리콘앨리 뉴미디어 기업들로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는 글로벌리제이션 현상과 유연적 생산체제의 등장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바, 지역별 산업 전문화는 이제 지역경제 발전의 필요조건이 되었다. 특정의 산업분야에서 관련 업체들의 공간적 집적이 일어나지 않

고서는 혁신네트워크와 물류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고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근래 지역 경제 분석가들은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이 왕성한 지역들에 주목하여 왔는데, 기술혁신은 특정한 환경에서만 생산되고 공유된다는 것이다. 이천의 도자기단지, 실리콘밸리의 뉴미디어지구, 할리우드 영화산업지구 등이 특별한 경쟁력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네트워크 조성 시 지역 전문화전략은 가장 기본이 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다.

나) 산업분야의 선정

지역특화 문화산업의 분야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역 경제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와 분석에 의해 아주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자기 지역에 적합한 문화산업 분야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첫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애니메이션 등 첨단영상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지방 중소도시들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한 부문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방 중소도시들에서 이러한 첨단영상산업을 유치, 육성하는 문화산업들이며, 특히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매력을 주는 것은 예술과 일반 문화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산업의 분야별 입지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첨단적 문화산업의 입지 특성은 매우 특수하며 간단히 분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산업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조차 서울 지역에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근래에는 그 중에서도 강남의 역삼동과 포이동 오피스타운에 집적되어 가고 있다(권오혁, 1999; 기정훈, 1997). 또 이 산업은 도시적 업무공간이 형성되고 정보적, 물류적, 인적, 제도적 기반이 형성된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 지역의 특화 문화산업을 결정하기 전에, 각 문화산업별 입지적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 지역의 입지적 잠재력을 충분히 분석해 보는 것이다. 문화

산업의 성공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유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 혁신네트워크의 착근 혹은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의 문화적 산업적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곳에 이미 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문화산업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이웃한 도시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산업적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와 관련이 있는 문화산업 분야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웃 도시가 특정 문화산업 혹은 기타 산업분야에서 혁신네트워크와 물류네트워크가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산업 도시인 밀라노 인근의 도시들이 의류산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들은 그러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또 이천과 여주 그리고 광주 일대가 도자기 산업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시 규모나 여타의 입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밀라노 인근의 중소 도시가 밀라노와 똑같은 산업분야로 특화해서는 같은 수준의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점에서 지역의 문화산업 분야 선택 과정은 지역주민들의 결단에 속하는 것이지만, 중복투자 방지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문화 정책의 발전을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를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체계적인 방향성 보다는 구색 맞추기식 축제에 급급한 측면이 있다. 옆의 시군에서 하나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경쟁적인 문화 행사도 있다. 그러나 보니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축제이고 문화 행사라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각종 경상보조비도 압력 단체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제 지역의 문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방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을 설정하고 지원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문화는 지역 정체성과 지역 개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은 축제는 그야말로 즐거워야 한다.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편 문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또다른 방법으로 접근될 필요도 있다. 문화산업은 기본적으로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에 제약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제품의 생성 및 소멸주기가 단축되어 기업의 생성소멸도 빈번해지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문화산업의 지속적 혁신과 경쟁력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클러스터의 특성은 내부 구성원 간의 안정적인 생산네트워크 그 자체보다 지식의 흐름을 촉발하는 지식 시스템의 관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업이 많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규모가 더욱 분화되어 가는 경향이 당분간 지속되어 스스로의 입지를 도시지역에 두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도시를 중심으로 자연스레 형성되는 문화산업 클러스터에도 구성원들 간의 지식의 교류 및 공동작업을 촉진하는 정책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의 클러스터정책은 향토의 문화적 자산의 발굴 및 기획의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 생산사슬의 초기단계에 주도권을 확보하여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을 통한 부가가치를 실현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화산업 혁신클러스터정책의 전 과정에 시장경제의 원리는 엄격히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산업 제작업체의 극도로 서울 중심적인 분포의 현실에 내재한 시장원리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제작업체의 무리한 지방유치에 집착하는 것은 정책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소규모기업들의 입지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현재 현지 기업들간의 교류활동을 공간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클러스터의 성격 및 성취도는 개별지역의 문화적 특성, 지식 및 기술수준, 해당산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므로 표준화된 정책모델에 의한 기법 중심적 접근법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적 비효율성은 최대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중시하여야 하는 것은 앞서 남양주의 세계야 외축제에 예에서 그 가능성을 잘 나타내었듯이 문화가 가지는 산업적 측면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지역갈등해소를 통한 토착산업 유발성 또한 중시하여야한다. 또한 지금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간의 갈등적 요인해소와 지역정체성 확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적 함의들을 디자인 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 참고 문헌 >

- 고속희(1998), 문화정책의 경제학적 근거: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1(1):43-64.
- 고양시(1997), 91고양세계 꽃 박람회백서: 355-365.
- 권희재·김장기(2002), 지방정부간 교류협력관계의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16(2):87-108.
- 김문조·박수호(1998), 한국문화정책: 회고와 전망, 아세아 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화연구소: 297-320.
- 김장기·권혁순(2001), 현대 지역축제의 성공요인과 집행과정에 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9호,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3-206.
- 김천영(2001)m Van Peursen의 문화담론과 정책적 함의, 2001년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강원행정학회: 109-124.
- 노화준·송희준 공편(1994), 세계화와 국가 경쟁력: 21세기의 국가 경영전략, 나남: 15-42
- 문화관광부(1996), 한국의 지역축제.
- 박광국(1999), 문화정책의 상황론적 집행이론 구축을 위한 한·미간 비교연구, 한국정책학회보 8(1):5-23.
- 박혜자(1998). 지역문화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관계 모형 연구, 도시행정학보 11:206-229.
- 신윤창(2001), 장소 마케팅(Marketing Place)을 통한 지방도시의 도전: 지역 이벤트를 중심으로, 2001년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강원행정학회: 127-142.
- 신윤창·김장기(2002),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엑스포의 적용가능성 탐색, 강운행정학회·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심포지엄 225-251
- 신윤창·김호식·김장기·손경숙(2002), 관광문화박람회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6(3): 191-212
- 엄운섭·신윤창·김호식·김장기(2002), 2002 삼척세계동굴엑스포 개최 결과분석, 삼척시:1-99.
- 오영환(2000), 지역축제의 실제와 경제적 효과, 관광학 연구33(8).
- 이태희(2001), 문화산업론, 대영문화사: 362-391.
- 이충기·이태희(2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축제참가 동기분석,

- 관광학 연구23(2): 87-88.
- 임학수(1996), 지방문화행정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11(3): 19-37.
- 장순희(2001),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21세기 지방행정의 과제와 비전: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발전요인의 탐색, 2001년도 학술세미나 논문집, 한국행정학회·강원행정학회: 203-219.
-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1997), '97 제2회 광주비엔날레 결과보고서: 432-448.
- 정갑영(1999), 우리나라 도시무화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도시문제, 대한지방공제회: 9-18.
- 정경훈(2001), 문화이벤트 연출론, 대왕사: 83-129.
- 정민의·장양예(2000), 박람회 여행상품속성만족에 의한 재구매와 추천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 24(2):237-239.
-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1998),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 결과보고서, Chapter X:3-8.
- 홍석균·김장기(2002),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영향용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3):167-183.
- Akehurst, G(1998), Community-Oriented strategy development: Kalisz, Ploand, John Wiley & Sons, Ltd:25-44.
- Bramwell, B and A, Shaman(2000), Approaches to sustainable tourism planning and community participation: The Case of the Hope Valley, G. Richards and D. Hall, eds., Tourism and Sustainable Community Deverlopment, Routledge Advances in Tourism: 18-21
- Getz, D(1991), Festival, Special Events adn Tourism, Van Nostrand Reinhold.
- Kearns, G & Philo, C(1993),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Past and Present, london: Pergamon Press.
- Kotler, P(1993),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Past and Present, London: Pergamon Press.
- Ikenberry, J. G(1990), The International Spread of Privtization Policies: Inducement, Learning, and Policy Bandwagoning in Ezra N. Suleiman & John Waterbury, The Political Economy of Pubic sector Reform and Privatization, Boulder : Westview Press:88-110.

Mowforth, M and I. Munt(1998), *Tourism and Sustainability : New Tourism in the Third World*, London ; Routledge : 105-113.

Sharpe, L. J(1979), *Decentralist Trends, in Western Democracies*, London: Sage.

Smith, v(1989), *Ho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Philadelphia, Penn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ix-xi.

Swaim, R. C(1982), *Public Culture and Policy Analysis : An Introduction*. in Mulcahy, K. V & Richard, Swaim C(ed). *Puvlic Policy and the Arts*. Westview Press, Boulder.

Urry, J(1995), *consuming Places*, London & N.Y: Routhedge.

Wanhill, S(1997), *Encompassing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Tourism within an Institutional Contest : A National Tourist Board Perspective*, Cooper, C & S. Wanhill(eds), *Tourism Development: Environmental and Community Issues*, John Wiley & Sons. Ltd: 61-62.

WCED(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and New york : Oxford Iniversity Press : 8-12

<별첨 1> 경기도 각 시·군 지역축제 현황

지역명	축 제 명	개최시기 (기간)	축 제 주 요 내 용	축제종류 (유 형)
경기도	세계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4.14-17	-시상식 -입선작 전시	기 타
	경기관광박람회 2005	9.29-10.2	-관광박람회 -학술회의 -부대행사	기 타
	2005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 비엔날레	'05.4.23 ~ 6.19 (58일간)	-전시학술행사 ·세계현대도자전, 청자전 ·세라믹하우스 II 등 14개 전시·학술행사 -공연행사 ·도자버라이어티 쇼등 ·11개 공연 ·도자퍼포먼스등 9개 ·도자이벤트	기 타
	세계평화축전	2005년 8.1~9.11 (42일간)	-평화수호천사프로젝트 -평화메신저해외파견 -5일장 순회공연,DMZ순례 평화수호천사콘서트 -광복60주년기념공연 -주말공연, 전시프로그램등 -평화통일국제포럼 -평화양상블, 평화프린지 등	문화예술
	실학축전 2005 경기	2005년 10.1-10.9 (9일간)	-실학입체 전시전, 박람회,실학발명대회, 제도개혁백가쟁명, 실학유물체험마당, 실학유적답사대회 -마당극, 창작판소리 -학술심포지엄	문화예술
	천상병예술제	2005년 (미정) (일간)	-천상시화전 -천상백일장대회 -천상음악제 -천상무용제 '귀천' -시인과의 만남 -기타 부대행사	문화예술

지역명	축 제 명	개최시기 (기간)	축 제 주 요 내 용	축제종류 (유 형)
수원시	대한민국 화성서예대전	2005. 3.4(금) ~3.6(일) (3일)	-장소: 경기도 문화의 전당 -내용 · 전국 서예작품 공모 · 초대작가 작품 전시 · 우수작품 전시 등 -후 원: 수원시(225-2244)	문화예술
	수원가요제	2005. 5.29 (1일)	-장소 : 수원야외음악당 -내용 · 신청자 사전 접수 · 예심 및 본선 행사 · 수원가수 초청 공연 등	문화예술
	수원여름 음악축제	2005 8.12 ~8.15 (4일)	-장 소 : 수원 야외음악당 -내 용 · 1일차 : 전통음악 공연 · 2일차 : 클래식 공연 · 3일차 : 퓨전음악 · 4일차 : 대중가요 공연	문화예술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2005 8.17 ~8.28 (12일)	-장 소 : 4개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 수원 야외음악당 등 -공연 내용 : · 국내·외 초청 공연 ·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기획 공연	관광특산
	수원화성 문화제	2005 10. 7 ~10.10 (4일)	-장 소 : 수원화성 일원 -내 용 : ·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 시민퍼레이드 · 궁중체험행사 · 수원화성 축성체험 행사 · 수원갈비축제 및 시장 거리축제 등	관광특산
	2005 수원국제 지휘 콩쿨	2005. 11.19 ~11.27 (9일)	-장 소 : 2개소 · 경기도 문화의 전당 · 청소년 문화센터 -내 용 · 국내·외 젊은지휘자 선발 · 수원시립 교향악단 협연 · 입상자 시상 및 협연 등	문화예술

지역명	축 제 명	개최시기 (기간)	축 제 주 요 내 용	축제종류 (유 형)
성남시	제5회 성남 세계민속 예술축제	'05.8.19 ~8.27 (9일간)	-세계민속 무용, 음악, 의상축제 (12국 400명 공연단 참여)	문화예술
	제18회 성남문화 예 술 제	10월중 (5일간)	-국악제, 무용제, 음악제 -연극제, 영화제, 미술작품전 -사진작품전, 시민백일장 -시민노래자랑 -민간단체참여	문화예술
	모란민속5일장 축제	2005년 5월 -9월	-전통예술공연, -성남세계민속예술축제공연 -타악놀이 -코메디등	전통민속
부천시	복사골 예술제	2005년 5. 5 ~5. 8 (4일간)	-개막식 -공연기획 -전시기획 -시민참여행사 -학술심포지엄	문화예술
	복사골청소년 예술제	2005년 8.20 ~8.21 (2일간)	“내송 無 성깔 有” -공연:도도한페스티벌 -경기도청소년마술경연대회 -청소년축제박람회 -캠퍼스페스티벌	기 타
	부천국제판타 스틱영화제	2005.7.14- 7.23 (10일간)	-영화상영(32국 261편참가) (6개 상영관 215회 상영) -PiFan Date, Mega Talk -Midnight Talk -GA(무대인사, 관객과의 대화) -씨네락 나이트 -그린콘서트,파이널콘서트	문화예술
	부천국제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2005.11.4- 11.8 (5일간)	-애니메이션 상영 : 23개국 145편 참가 (1개 상영관 40회 상영) -전문전시관 운영 -문화콘텐츠 채용박람회 -동아시아 카툰애니메이션포럼 만화그리기 대회 -공개특강, 학술행사	문화예술

지역명	축 제 명	개최시기 (기간)	축제주요내용	축제종류
안양시	시민축제	2005.10.8·10 (3일)	- 5개마당별 축제 · 전야제 - 테마축제(5개마당) 메인, 댄스, 공연, 풍물, 어울 마당 - 폐막공연 오픈공연, LIVE공연,	문화예술
안산시	단원미술제	2005.10 월중 (20일)	-미술대전,미술공모대전, -현대미술전,미술감상교실 -안산 김홍도 축제 · 단원 홍보관 설치운영 · 옛생활 용품전시 안내 등 · 조선풍속여행 풍속체험 등 5개분야 35개 프로그램 운영	전통민속 문화예술
	별 망 성 예 술 제	2005년 10월초 (5일간)	-길놀이 -별초무 창작공연 -예술공연(초청,기획) -경연대회 : 8~9종 -전시행사 : 2~3종	문화예술
	성호문화제	2005. 5월중 (3일간)	-성호송모제,개막공연등 -국가중요문화제공연, -경기민요합창단공연, -성호사상학술대회, 웃다리풍물놀이경연, 전국청소년국악경연, 성호백일장 등	문화예술
	대부포도축제	2005.9월 예정 (1일간)	-포도직거래행사 -포도아가씨선발대회 -노래자랑 -포도, 포도주 시음회 -포도관련이벤트행사 등	관광특산
용인시	용구문화 예술제	05.9.30	-길놀이 -한복맵시대회 -처인가요제	문화예술
	용인사이버 페스티벌	05.9.30 ~ 05.10.02 (3일간)	-it 콘텐츠공모, -it 전시회 -개/폐막식, 부대행사	기 타

지역명	축 제 명	개최시기 (기간)	축제주요내용	축제종류
평택시	소 사 별 단 오 제	'05.6월 (1일간)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씨름,그네뛰기, 창포물머리 감기, 떡메치기	전통민속
	제5회평택 농악경연대회	'05. 10월	-읍·면·동별 평택 농악 경연	전통민속
	제4회지영희 전국국악경연 대회 및 제6회 지영희예술제	'05. 9월	-전국국악경연대회 -축하공연	전통민속
광명시	제6회 정월대보름	2005 2. 23	-길놀이, 광명농악 판굿 -동별풍물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 -지신밟기, 연날리기, 제기 차기,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축하공연	전통민속
	오리문화제	5월중 (4~5일)	-개막공연 -오리대감 거리행렬 -어린이 이원익 선발대회	전통민속
	15회 구름산예술제	2005. 10월중	-개막식 및 개막 축하공연 -광명시 학생 백일장대회 -사진전시회 -구름산 가요제, 국악제 무용제, 합창제,광명미협 회원전, 연극 공연	문화예술
	제2회광명 월드뮤직축제	2005. 9-11 월중	-축제기획중	기 타
	제6회경기 농악경연대회	'05. 10월	-전국농악경연대회	전통민속
	연성문화제	2005년 10월중	-길놀이, 음악회, 사생대회 -연극공연, 무용공연, -전통음식시연회, -전통민속놀이체형 등	전통민속 문화예술
시흥시	물왕예술제	2005년 5월중	-학생음악경연대회, -사물놀이경연, 동요연주회 -미협회원전, 백일장 등	문화예술

지역명	축 제 명	개최시기 (기간)	축제주요내용	축제종류
군포시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2005. 2.23 (1일)	-터밧기 · 전통문화체험 마당 · 연날리기, 널뛰기, 윷놀이 등 -달맞이 대동놀이 ·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문화예술
	군포수리문화 축제	2005. 4.23-26 (4일간)	-가장행렬, 거리축제, -자매단체 농·특산물 판매, -축하공연, 실버축제, 사진촬영 대회 등	문화예술
	철쭉동산 축제	2005. 4.28-5.2 (5일간)	-참여마당 -사생대회, 페이스페인팅, 레크레이션 등 -공연마당 -오케스트라, 통기타가수, 뮤지컬 공연, 무용, 합창 공연 등	문화예술
화성시	제1회화성포구 축제	2005년 구체적인 일자 (5월말)	-어항문화(배끌기, 어시장, 벗고사) 전야제 -갯밭문화(갯바닥길체험, 호미, 가래체험, 갯벌 염전체험) -어로문화 (어망전시, 승선 항해체험, 어선전시) -기타 먹거리 (바지락 축제)	관광특산
	화성용주사 승무제	2003년도 10월 (1일간)	-기념식 -승무제 -백수연 -산사음악회	전통민속
	정조효행문화 제	2002년도 5월 (2~3일간)	-건릉제향 -효 서예취호대회 -효 백일장 -홍재미술사생대회 -시화전 및 미협정기전	문화예술
	별빛축제 및 마린투어	2004년도 8월 (1~2일)	-별자리 강연 -우주과학영화상영 -별빛퀴즈대회 -천체관측 및 사진전시 -플라네타리움	기 타

지역명	축 제 명	개최시기 (기간)	축제주요내용	축제종류
이천시	제19회 이천 도자기 축제	2005. 4. 23 ~6. 19 (58일간)	-공식행사, -기획전시, 특별전시 -도자기판매 -시연행사, 공연행사 등	관광특산
	제7회 이천 쌀문화축제	2005. 10. 6 ~10. 9 (4일간)	-공식행사 -기획, 체험 행사 -전시,판매행사 -참여행사 등	관광특산
	제9회 이천장호원 복숭아축제	2005. 9. 23 ~9. 25 (3일간)	-시민노래자랑, -세미가족 마라톤대회 -복숭아관련 이벤트, 게임 -복숭아 캐릭터 쇼 -복숭아품평회, 직판행사 -문화예술행사 등	관광특산
	제6회 이천백사 산수유꽃축제	2005. 3. 25 ~3. 28 (4일간)	-산수유꽃관람,풍년기원제 -전통혼례, 풍물놀이 -전통놀이 -문화예술행사 등	관광특산
	제19회설봉 문화예술제	2005. 10월중 (30일간)	-문예행사 -민속행사 -경축행사 -청미예술제 -연계행사 등	문화예술
김포시	김포문화 예 술 제	2005년 9월중 (3일간)	-문화예술행사 전시공연 -우수전통민속예술 시연 -지역출신 인물 선양사업 의병출정 퍼레이드 등 -먹거리장터 개설 운영 -농산물 직거래 등	문화예술
	김포농업인의 날 축제	2005년 10월 하 (3일간)	-전시장 : 김포쌀테마 등 -경연대회 : 송편빚기, 다듬이 경진 등 -축하공연 및 놀이마당 -4-H경진:농악,민속놀이 -농산물 직거래 및 홍보	관광특산
	포도축제	2005년 9월초 (2일간)	-전시장:포도품종,포도주등 -체험장:포도수확,포도주담 그기, 포도천연염색 -축하공연 및 놀이마당 -시식회:포도,가공품 -포도직판 및 홍보	관광특산

지역명	축 제 명	개최시기 (기간)	축제주요내용	축제종류
광주시	남한산성 문화제	2005년 10월 (6일간)	-어가행열 -전통무용 공연 -문화체험학교 -창작연극공연 -산성투어	문화예술
	광주왕실도자기 축제	2005년 4.23~6.19 (58일)	-도자박물관 전시 -흙 체험행사 -도자경매 -전통가마불지피기 -다례시연	문화예술
안성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2005년 10.5~9 (5일간)	-남사당놀이, 상설공연 -마당놀이, 음악회 등 -줄타기, 풍물, 탈놀이 -인형극, 버나놀이 등 -전시 : 남사당 전시관 -재현 : 옛날장터 재현 -판매 : 농축산물 판매 -전국 풍물, 사물, 탈놀이 전국 옛장수 경연	전통민속
하남시	'05.하남 이성문화축제	2005년 9.24~25 (2일간)	-공개방송 -초청공연 -시민단체 공연 -시민참여 마당 등	문화예술
의왕시	의왕 백운예술제	2005.10.8 ~10.9 (2일간)	-예술행사, 예술교육캠프, -예술놀이캠프, -예술체험캠프, 경연대회, -초청공연, 부대행사	문화예술
	의왕 어린이축제	2005.5.3~ 5.5 (3일간)	-가족노래자랑, 영상마당, -공연마당, 체험마당, -경연마당, 전시마당등	문화예술
	의왕 단오축제	2005.6.11 (1일간)	-단오제사, 민속행사, -민속공연, 초청공연, -민속체험행사, -민속놀이행사등	전통민속

지역명	축 제 명	개최시기 (기간)	축제주요내용	축제종류
여주군	세종문화 큰 잔치	2005년 9~11월	-군민 한마음 음악회 -한글백일장 -전국사진공모전 -각종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
	여주도자기 박람회	2005년 4.23 ~6.19 (58일간)	-도자기 판매행사 -전통가마 불지피기 -전시·공연 행사 및 체험행사	관광특산
	명성황후 추모제	2005년 10월8일	-영산제 -해원굿	기 타 (추모제)
	여주천서리 막국수축제	2005년 9월초 (5~7일)	-개막식 -막국수 빨리먹기대회 -행운의 막국수 찾기 -한마음 노래자랑 -연예인 초청공연 -폐막식, 불꽃놀이 등	관광특산
	진상명품전	10월	-개. 폐막행사 -특별전시행사 -전통, 문화예술행사 -경연, 공연, 판매 행사 -농촌문화체험행사 -기타이벤트행사	관광특산
양평군	양평 맑은물사랑 예술제	'05.5.28 ~6. 4 (8일간)	-맑은물사랑콘서트 -숲속의 음악회 -맑은물사랑시낭송회 -맑은물사랑미술전시회 -국악공연	문화예술
	양평 은행나무축제	'05.10월 예정 (7일간)	-세계사물놀이겨루기 -산사음악회 -은행나무영목제 -친환경농산물판매전 -친환경농산물먹거리전 -산길따라작은음악회	관광특산

지역명	축 제 명	개최시기 (기간)	축제주요내용	축제종류 (유 형)
양평군	단월 고로쇠축제	'05.3.13 (1일간)	-사물및풍물놀이 공연 -고로쇠수액 먹기대회 -민속놀이 -먹거리장터운영 -등산대회 -인절미만들기시연등	관광특산
	청운 향토마을축제	'05.4.23 ~4.24 (2일간)	-전통모심기,벚꽃공연 -전통떡메치기 -손두부만들기 -사물놀이공연 -민속놀이 -전통혼례재연등	관광특산
	양동 알밤축제	'05.9월 (2일간)	-알밤줍기,알밤까기 -영농체험,먹거리장터 -전통민속놀이 -스포츠댄스,용타공연 -민요한마당,사물놀이 -장승깎기,초상화그리기	관광특산
	양평개군 산수유축제	'05.3.25 ~3.27 (3일간)	-길놀이및외줄타기 -백일장및사생대회 -민속놀이 -추읍산등산대회 -송어잡기대회 -개군한우시식회 -향토노래자랑등	관광특산
과천시	과천 한마당축제	2005년 9.23 ~9.28 (6일간)	-국·내외 거리·야외극 공연예술제	문화예술
	과천토요 거리 축제	2005년 4.9~7.30 (매주토 17회운영)	-대중공연예술 (메인1, 서브2, 시민 체험, 거리공연 등)	문화예술
	통기타와 영화의만남	2005년 8.6~8.14 (9일간)	-통기타 가수 라이브 공연 및 가족단위영화 감상	문화예술

지역명	축 제 명	개최시기 (기간)	축제주요내용	축제종류 (유 형)
고양시	고양 행주문화제 (18회)	9.30~10.3 (4일간)	-시낭송, 시화전, 휘호대회, -승전거리축제, 행주대첩 위령제 -초청가수 공연	문화예술 기 타
의정부	통일예술제 (12회)	5월	-전통춤대공연 -한마음시민가요제 -백일장 대회 -현대미술초대전	문화예술
	회룡문화제 (20회)	10월	-왕실행차재현, 개막식, -전시회, 축하공연, 용춤, -마당극, 국악공연	문화예술
	의정부국제 음악극축제 (4회)	5월	-해외단체초청 공연, -대학생쇼케이스, -부대행사, 전시회 등	문화예술
남양주	다산문화제 (19회)	10.10~12 (3일간)	-헌다례, 문예대회 -다산사상학술대회 -경기도 문형문화제 시연 -전시 및 체험마당	전통민속
파주시	제7회 파주예술제	5.28 ~5.29 (2일간)	-국악한마당,한마음음악, -파주미협 회원전, -페이스페인팅,발레공연 -두드락공연,학생예능대회	문화예술
	제18회 울곡문화제	9.29 ~10.2 (4일간)	-추향제례,유가행렬및길놀이 -울곡백일장, 퀴즈대회 -파주시합창단공연 -사생대회,휘호대회 -울곡서예대전	전통문화
	헤이리페스 티벌 2005 (3회)	9.24 -10.9 (16일간)	-건축속의 미술,풍경속의 미술 -헤이리오프스튜디오 -헤이리건축전, 프린지	문화예술
	2005 파주 어린이책 한마당 (3회)	9.30 -10.9 (10일간)	-도서전시 및 판매, -헌책전시회,출판사별 책전시,건축학교,책의교실 -마당극,빛그림이야기	문화예술

지역명	축 제 명	개최시기 (기간)	축제주요내용	축제종류 (유 형)
구리시	2005구리 코스모스축제 (3회)	9.10~11 (2일간)	-국악한마당 가을음악회 등 -인기가수초청 축하공연 등 -체험마당 및 전시행사 -시정홍보관 운영	문화예술
	구리한강 유채꽃축제 (3회)	5.14~5.15 (2일간)	-축하공연 및 이벤트 행사 -가족참여 및 체험마당 -전시회 등 -시정홍보관 운영	문화예술
포천시	산정호수 명성산 역새꽃축제 (9회)	10.8~10.9 (2일간)	-체험/전시 -경연/공연 -참여행사 -명성산 등반대회 등	관광특산
	2005 도리돌 동장군축제 (1회)	1.7~1.29 (23일간)	-얼음낚시,얼음썰매 -민속놀이, 슬로푸드 -군것질한마당, -동지 팥죽먹기 등	관광특산
양주시	양주문화제 (11회)	10월중 (2일간)	-양주의 문화체험 -시민참여행사 -작품전시회 -연애인 초청공연 -청소년댄스 경연대회 -각종부대행사	문화예술
	전통민속 예술축제 (3회)	5월중 (1일간)	-전통민속 예술공연 -부대행사(초청공연) -참여행사	전통민속
동두천	제20회 소요 단풍문화제	10.22~23 (2일간)	-민속놀이 체험마당 -전통 혼례재현 -전통 줄타기 공연 -초청가수 공연	문화예술
	제7회동두천 락 페스티벌	8월 중순 (3일간)	-고등부 락 경연대회 -대학부 락 경연대회 -전문 락 뮤지션 공연	문화예술

지역명	축 제 명	개최시기 (기간)	축제주요내용	축제종류 (유 형)
가평군	북한강축제 (2회)	8.12~14 (3일간)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 국내외재즈아티스트 · 프린지공연 · 재즈관련(사진등)전시 -북한강수상축제 · 쌍둥선경주 · 바나나보트경주 · 연인보트 · 각종수상레저체험 · 악기전시회 -세계타악기 1000여점 전시 및 체험	기 타
	제4회 가평포도축제	9.10~9.11 (2일간)	-포도품평회, 우수포도 및 포도가공품 전시 -포도이용요리 시연 및 시식 -포도염색, 포도주담그기 체험 -포도밭에서 그림그리기 노래자랑, 가수 축하공연 등	관광특산
연천군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13회)	5.4~5.8 (5일간)	-개,폐막식(축하불꽃쇼) -전시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 어린이무대, -가족놀이마당, -연천문화마당 등	문화예술
	DMZ민통선 예술제 (6회)	8.14 ~8.15 (2일간)	-개,폐막식 -전시행사, 공연행사, -부대행사(노래자랑등) -향토음식판매 등	문화예술

<별첨 2>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지원 내역 (2001-2005)

<세부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자치단체	사 업 명	지원액	실제집행액	비고
'01	총 계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	1,650 (1,850)	1,650 (1,850)	
	부산광역시	부산 자갈치축제	100	100	
	대구광역시	대구 약령시축제	50	50	
	광주광역시	광주 김치대축제	(100)	(100)	방문의해지 원사업
	대전광역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50	50	
	경기도 수원시	화성 문화제	50	50	
	강원도 춘천시	춘천 국제마임축제	50	50	
	양양군	양양 송이축제	50	50	
	평창군	대관령 눈꽃축제	(50)	(50)	방문의해지 원사업
	충북 충주시	충주 세계무술축제	50	50	
	영동군	영동 난계국악제	50	50	
	충남 서천시	한산 모시문화제	70	70	
	금산군	금산 인삼축제	100	100	
	보령시	보령 머드축제	50	50	
	전북 남원시	남원 춘향제	70	70	
	무주군	무주 반딧불축제	50	50	
	김제시	김제 지평선축제	50	50	
	익산시	익산 보석문화제	50	50	
	전남 진도군	진도 영등축제	100	100	
	영암군	영암 왕인문화축제	70	70	
	강진군	강진 청자문화제	70	70	
	무안군	무안 연꽃축제	50	50	
	경북 경주시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50	50	
	안동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100	100	
	영주시	풍기 인삼축제	50	50	
	청도군	청도 소 싸움축제	70	70	
	경남 하동군	하동 야생차 축제	50	50	
	고성군	고성 공룡나라축제	50	50	
	통영시	통영 나전칠기축제	50	50	
	제주 북제주군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	50	50	
	제주시	한라산 눈꽃 축제	(50)	(50)	방문의해지 원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	자치단체	사 업 명	지원액	실제집행액	비고
'02	총 계		1,650	1,530	
	부산광역시	부산 자갈치축제	60	60	
	기장군	기장대변 멸치 축제	30	30	
	대구광역시	대구 약령시축제	60	60	
	광주광역시	광주 김치대축제	60	60	
	대전광역시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60	60	
	강원도 춘천시	춘천 국제마임축제	60	60	
	양양군	양양 송이축제	60	0	사업취소
	충북 충주시	충주 세계무술축제	60	60	
	영동군	영동 난계국악제	60	0	사업취소
	진천군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30	30	
	충남 서천시	한산 모시문화제	60	60	
	금산군	금산 인삼축제	100	100	
	보령시	보령 머드축제	30	30	
	논산시	강경 젓갈축제	30	30	
	전북 남원시	남원 춘향제	60	60	
	무주군	무주 반딧불축제	60	60	
	김제시	김제 지평선축제	30	30	
	전남 진도군	진도 영등축제	60	60	
	영암군	영암 왕인문화축제	60	60	
	강진군	강진 청자문화제	100	100	
	무안군	무안 연꽃축제	60	60	
	경북 경주시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60	60	
	안동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100	100	
	영주시	풍기 인삼축제	30	30	
	청도군	청도 소 싸움축제	60	60	
	경남 하동군	하동 야생차 축제	60	60	
	고성군	고성 공룡나라축제	30	30	
	통영시	통영 나전칠기축제	60	60	
	제주 북제주군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	60	60	

(단위 : 백만원)

연도	자치단체	사업명	지원액	실제집행액	비고
'03	총 계		1,840	1,840	
	부산광역시	부산 자갈치축제	80	80	
	대구광역시	대구 약령시축제	80	80	
	광주광역시	광주 김치대축제	50	50	
	대전광역시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50	50	
	경기도 이천시	이천 햅쌀축제	20	20	
	양평군	산수유 축제 지원	10	10	기타축제
	강원도 춘천시	춘천 국제마임축제	80	80	
	양양군	양양 송이축제	50	50	
	충북 충주시	충주 세계무술축제	80	80	
	영동군	영동 난계국악제	50	50	
	충남 서천시	한산 모시문화제	80	80	
	온양시	온양 문화제	20	20	
	금산군	금산 인삼축제	130	130	
	보령시	보령 머드축제	80	80	
	논산시	강경 전갈축제	50	50	
	전북 남원시	남원 춘향제	50	50	
	무주군	무주 반딧불축제	80	80	
	김제시	김제 지평선축제	80	80	
	정읍시	정읍 민속투우축제	20	20	
	전남 진도군	진도 영등축제	50	50	
	함평군	함평 나비축제	50	50	
	영암군	영암 왕인문화축제	50	50	
	강진군	강진 청자문화제	130	130	
	경북 경주시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80	80	
	안동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130	130	
	영주시	풍기 인삼축제	50	50	
	경남 하동군	하동 야생차 축제	80	80	
	진주시	진주 남강유등축제	20	20	
	합천군	팔만 대장경축제	20	20	
	산청군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20	20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칠십리축제	20	20	

(단위 : 백만원)

연도	자치단체	사 업 명	지원액	실제집행액	비고
'04	총 계		2,160	2,150	
	부산광역시	부산 자갈치축제	60	60	
	대구광역시	대구 약령시축제	100	100	
	광주광역시	광주 김치대축제	60	60	
	강원도 춘천시	춘천 국제.마임축제	100	100	
	양양군	양양 송이축제	60	60	
	충북 충주시	충주 세계무술축제	100	100	
	영동군	영동 난계국악제	60	60	
	충남 서천시	한산 모시문화제	100	100	
	아산시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60	60	
	금산군	금산 인삼축제	200	200	
	보령시	보령 머드축제	100	100	
	논산시	강경 젓갈축제	60	60	
	전북 남원시	남원 춘향제	60	60	
	무주군	무주 반딧불축제	100	100	
	김제시	김제 지평선축제	100	100	
	전남 진도군	진도 영등축제	60	55	
	함평군	함평 나비축제	60	60	
	강진군	강진 청자문화제	200	200	
	경북 경주시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100	95	
	안동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200	200	
	영주시	풍기 인삼축제	60	60	
	경남 하동군	하동 야생차 축제	100	100	
	진주시	진주 남강유등축제	60	60	

(단위 : 백만원)

연도	자치단체	축 제 명	지원액	비 고
2005	계		2,500	
	부산광역시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	40	유망축제
	대구광역시	대구약령시축제	60	지역육성축제
	광주광역시	광주김치대축제	40	유망축제
	경 기 도	연천구석기축제	40	유망축제
		이천쌀문화축제	40	유망축제
	강 원 도	춘천국제마임축제	130	우수축제
		양양송이축제	130	우수축제
		인제빙어축제	40	유망축제
	충청북도	충주세계무술축제	130	우수축제
		영동난계국악제	40	유망축제
	충청남도	한산 모시문화제	60	지역육성축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40	유망축제
		금산인삼축제	130	우수축제
		보령머드축제	60	지역육성축제
		강경전갈축제	130	우수축제
	전라북도	남원춘향제	60	지역육성축제
		무주반딧불축제	60	지역육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250	최우수축제
	전라남도	보성다향제	40	유망축제
		함평나비축제	130	우수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60	지역육성축제
		강진청자문화제	250	최우수축제
	경상북도	경주한국의술과떡잔치	60	지역육성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250	최우수축제
		풍기인삼축제	40	유망축제
	경상남도	하동야생차축제	60	지역육성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130	우수축제

<지원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총사업비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지역육성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	비고
'01	개수	27개 (30개)	4개 (5개)	5개	18개 (20개)	-		방문의해 지원사업 3개 2억원
	개당 지원액	1,650 (1,850)	100	70	50			
'02	개수	29개	3개	19개	7개	-		
	개당 지원액	1,650	100	60	30			
'03	개수	30개	3개	10개	10개	-	20개 기타 1개	
	개당 지원액	1,840	130	80	50		20 기타 10	
'04	개수	23개	3개	9개	11개	-		
	개당 지원액	2,160	200	100	60			
'05	개수	27개	3개	7개	8개	9개		
	개당 지원액	2,500	250	130	60	40		